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1 호　　11월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21호 (43)

1949년 11월15일

내 용

권두언 사상투쟁에 있어서 출판물의 역할……(3)
인민의 정권인 지방 정권기관을 더욱 강화하자……장 순 명(8)
새로 동용된 당간부들에 대한 실무적 교양……진 반 수(15)
농민동맹은 농민 대중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키자……강 진 건(20)
리승만도당은 요시다반동정부와 결탁하고 있다……리 기 석(30)
—참 고 자 료—
전후 쏘베트문학에 있어서의 불쉐위크의 형상……브·오제로브(44)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기에 있어서의 계급투쟁과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신 열(67)
—「전동맹공산당(불쉐위끼)력사」연구자료—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불쉐위끼당……이·이노젬쩨브(79)
당 생 활 경 험……(100)
국 제 보 도……(104)

사상투쟁에 있어서 출판물의 역할

근로자들에 대한 민주주의적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부문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사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 조국의 완전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조선인민들은 과거 근 반세기 동안이나 악독한 일제의 통치 하에서 자유로운 사상적 발전과 선전사상섭취의 온갖 기회를 박탈당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 국제 국내 반동은 장성하는 민주력량을 최후발악적으로 억압 말살하며, 우리 인민들의 사상적 발전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의 모든 사회생활면에서 자기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자본주의적 반동적 사상의 해독한 선전적 무기를 광범히 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일제 사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며, 확고한 민주주의적 사상으로 우리 인민들을 무장시킴으로써 반동적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각종 발로를 근절하며, 부르죠아문화에 대한 굴종을 반대하는 결정적이고 부단한 투쟁을 전개하는 사업은 현하 우리들에게 부과된 가장 긴요한 투쟁적 과업으로 된다。

우리의 인민정권과 우리 당은 각종 형식의 선전사업과 문학 및 예술발전의 방향을 항상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적 교양사업에로 돌리고 있다。 인민정권과 당은 모든 부문에서의 이데올로기 사업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하는 고상한 애국주의적 사상과 국제주의적 정신, 그리고 근로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근로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면서 이에 적대되는 일제적 봉건적 사상잔재 및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각종 표현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인민정권과 당이 수행하는 이러한 사상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출

관물에 의한 선전사업이다。

우리의 매개 출판물들은 인민들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교양사업에 있어서 결정적이며 중요한 무기이며 또한 선전의 전국적인 연단(演壇)이다。출판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어떠한 진리이든지 모든 사람이 일시에 소유할 수 있게 하여준다。출판물은 어떠한 형식의 구두선전보다도 일층 강력한 선전적 무기이다。출판물은 우리의 맑쓰—레닌주의적 선전사업의 범위를 국한된 수공업적 방법과 비조직성으로부터 해방한다。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데올로기 사업에서 출판물의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리용한다면 우리의 사상투쟁은 더욱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오늘 우리의 출판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동원하며、정부와 당의 옳은 정책을 정확히 인민 속에서 해석하며、인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고 유해한 사상잔재를 숙청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고 있다。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신문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을 비롯하여 맑쓰—레닌주의에 관한 기본적 리론서적 및 기타 단행물들이 많이 발간되였다。공화국 북반부의 출판물들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현재에 이르러 신문 부수는 三一一·九%、잡지 부수는 一一七·一%、도서 부수는 七〇·五六% 이상으로 각각 비약적 장성을 보고 있다。그 중에서 사회과학부문의 도서가 종수에 있어서 五〇·三%、부수에 있어서 七一%를 차지하고 있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발간되는 출판물 중에서 특히 맑쓰—레닌주의적 고전 저서들은 우리 당 출판사를 통하여 발간되고 있다。一九四九년도에 당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서적들 중에는 맑쓰—레닌주의의 고전 저서들의 번역 출판만 하여도 五十五만 여부에 달하는바 그 중에는 레닌선집 섣히권 및 쓰딸린전집 五권까지가 포함되고 있다。이 외에도 당은 창립 이후 이때까지 많은 리론서적들과 강연자료 및 자습당원들에게 주는 각종의 보충적 교양자료들을 합하여 四천五백 여만부의 소책자들을 발간하였다。

우리 당의 매개 출판물들은 쏘베트동맹으로부터 보내오는 모든 서적들과 함께 비단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광범한 비당원 군중들 속에서도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당출판물들이 광범한 인민대중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선진적 로동자 농민 및 근로인테리들 속에서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은 맑쓰—레닌주의의 연구에 대한 인민들의 높은 열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이데올로기 사업의 급진적 발전과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의식수준의 거대한 장성에 대한 지표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대한 사업의 결과는 조선 근로인민들의 사상의식 제고에 있어서 획기적 전변을 가져왔으며 맑쓰—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한 많은 인재들을 교양할 수 있었다。이 인재들은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굳게 하고 당과 국가 사업을 능숙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출판물들은 사상전선에서 자기들에게 부과된 전투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그러나 우리의 출판기관들은 아직도 우리 국가와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사업을 원만히 하였다고 하기는、어렵다。

오늘 출판사업에서 표현되는 가장 큰 결함의 하나는 우리의 민주건설의 성과들을 대담하게 리론적으로 분석 총화하며、이를 현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전개하는 사업이 미약한 그것이다。해방 후 우리 조선인민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부면에 있어서의 건설과 투쟁을 통하여 많은 찬란한 성과들을 쟁취하였다。또한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욱더 거대한 투쟁적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인민들이 이미 쟁취한 투쟁적 성과들과 국가와 당과 사회단체들의 모든 사업에서 얻은 풍부한 사업상 경험들과 그리고 우리 조국과 당의 실지생활과 투쟁에서 가장 긴급히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리론적으로 해명하여야 하며、또한 이것을 대담하게 출판물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이러한 리론적 해명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되며、앞으로의 전망과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의 신념을 더욱 튼튼히 갖게 될 것이다。이는 곧 우리에게 가장 긴박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또 이것이 맑쓰—레닌주의를 우리의 실지 투쟁에서 우리의 것으

로 체득하는 방도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리론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취급한 저서들과 론문들을 아직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출판기관들이 모든 곤난을 극복하면서 대담하게 자기 사업을 추진시키지 못하였으며, 필요한 리론간부들을 충분히 출판사업에 동원하지 못한데 기인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출판기관들은 광범한 근로대중들이 손쉽게 애독할 수 있는 내용이 고상하고 서술이 평이한 해설적인 출판물들을 아직 다량으로 내지 못하였다。 평이하며 해설적인 서적들을 출판한다는 것은 악독한 일제통치의 결과로써 장구한 동안 자유로운 사상발전과 선진사상 섭취의 기회에서 배제되였던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교양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은 결점들과 관련하여 우리의 신문들은 인민들에 대한 사상적 교양사업에서 우수하게 사업한 당단체 및 사회단체들의 사업경험을 광범히 소개하며 훌륭한 교양 선전일군들의 원고들을 공개하며 강연청취자 및 독자들의 리론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열성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들을 충분히 게재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번역출판사업에 있어서 공화국 북반부의 부분적 출판기관들 중에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자기의 사업 대상에 대한 명확한 한계의 규정이 없이 무질서하게 사업하며, 개인적인 관계와 편집자의 일시적 착상에 의하여 사업을 조직한 결과 책임성없는 번역물을 내는 경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가 출판물들 그 중에서도 특히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저서들 및 그와 관련된 서적들을· 무책임하게도 부정확하게 번역하는 사실들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된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결함들을 시급히 시정함으로써만 사상투쟁에 있어서 출판물들이 당하고 있는 제 과업들을 성과있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사업은 매우 꾸준하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이 그 발전에 있어서 그

들의 경제 정치적 발전보다 뒤떨어지는 때문이며, 더우기 오늘날 국제 국내 반동분파의 치렬한 사상투쟁 전선에 서 있는 우리들은 아직도 다분히 낡은 사상적 경향을 소생시킬 수 있는 잔재요소들을 우리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출판기관들은 사상투쟁전선에서 자기들에게 부과된 고상한 사명들에 대하여 일층 높은 각성을 가지며, 인민의 요구에 충실하게 자기의 사업을 더욱 심각히 연구하며, 출판사업에 우수한 맑쓰—레닌주의적 리론간부들을 충분히 망라하며, 출판일군들의 재준비를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매개 간부들은 특히 사상전선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은 자기 학습의 리론적 충화를 출판물을 통하여 대담하게 발표함으로써 출판물의 리론적 질적 수준을 제고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동시에 출판물들은 민주개혁의 성과를 한층 더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또한 민주주의의 원쑤들과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식민지화하려는 국제 국내 반동들의 침략계획을 폭로하며 그의 반동적 이데올로기의 근절을 위한 투쟁에 모든 조직력과 헌신력을 고도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의 출판물들은 날마다가 아니라 시간마다 장성할 수 있을 것이며,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우리의 투쟁적 무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민의 정권인 지방 정권기관을 더욱 강화하자

장 순 명

장구한 동안 일제 통치 하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주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인민정권의 고귀한 우월성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八·一五 해방과 함께 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의사에 의하여 새로운 정권 형태인 인민위원회를 방방곡곡에 수립하였다. 우리 민족의 해방자인 쏘베트 군대는 모든 정권을 조선인민에게 넘겨주었으며, 인민정권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의 새 력사는 시작되었으며, 조선인민들 앞에는 자기의 주권을 강화 발전시키는 과업이 제기되었다.

일찌기 레닌선생은「혁명의 기본문제는 주권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하였다. 레닌의 이 말씀은 주권을 전취하고 그를 공고히 함이 혁명을 완수하며, 인민의 승리를 보장하는 기본문제라는 것 가르친 것이다.

인민이 자기의 수중에 정권을 장악한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는 인민정권의 지도 하에 제반 민주개혁을 통하여 인민정권의 경제적 토대를 확고히 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선거를 통하여 인민위원회를 더욱 민주화하여 확고 발전시키었다.

또한 인민정권은 자기의 정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그를 능히 수호할 수 있는 새로운 인민군대를 창건하여 반동의 침해를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무장력으로 장성 강화시키고 있다.

이 정치 경제적 과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우리 당은 항상 주동적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이 성과있는 투쟁을 통하여 당은 근로자들의 리해관계를 위한 헌신적 투사로서 인민 대중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획득하였다.

해방 후 四년간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자기

의 일상 생활과 산 경험을 통하여 인민정권의 정당한 시책들을 몸소 체험하고 인민정권이 모든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부강한 민주주의적 통일독립국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리승만 괴뢰정권 하의 남반부는 식민지 예속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곧 정권이 인민에게 속하여 있는데서와 그렇지 않는데서 구별되는 것이다.

제二차 세계대전은 세계민주진영의 장성 강화와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었다.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독일 강점자들로부터 해방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지주—자본가의 정권을 없애고 로동계급을 수위로 한 근로자들의 수중에 정권이 장악되었다. 이렇게 인민적 민주주의국가들에서 국가의 자유독립과 민주발전이 튼튼히 보장되는 것은 주권이 인민의 민주주의적 원칙 위에 기초하고 있는 까닭이다.

× × ×

우리 공화국의 헌법에는 주권에 대한 문제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지방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제二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제三조)

이것은 공화국의 모든 주권들은 인민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인민에게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화국의 지방 정권기관인 도·시·군·면·리 인민위원회는 공화국의 새 국가 조직의 정치적 기초이며, 광범한 인민 대중과 밀접하게 련결된 진정한 인민주권기관들인 것이다.

지방 주권기관들은 선거자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거되며, 그들 앞에서 책임지며, 그들의 의사에 의하여 파면될 수도 있다. 지방 주권기관은 지방적인 경제 및 문화건설을 지도하며, 사회질서의 보장과 법령 및 공민의 권리를 확보하며, 그리고 지방적 사업들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면·리인민위원회는 수전 면적 확장을 위한 관개공사의 실시, 파종면적 확장, 영농법 개선에 의한 수확고 제고 등 북반부 농촌경리 발전을 위하여 많

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문화면에 있어서 초등 의무교육제 실시의 보장과 문맹자의 기본적 퇴치, 또한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조국보위 후원사업들을 위하여 인민들의 애국적 열성을 고도로 발휘케 함으로써 인민정권과 인민의 련결을 강고히 하며, 인민정권의 위신을 제고하였으며, 인민들을 부강한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인도함에 있어서 인민 대중의 검열을 받으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진정한 인민정권 형태인 인민위원회를 지방 주권기관으로 하여 발족한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성과인 것이다.

그러나 공화국 남반부는 이와 전혀 다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八·一五 해방 직후 공화국 남반부에도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위원회가 창건되였다.

인민의 손으로 반동계급의 정치적 활동을 억제하면서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결과로 해산당하고 인민에게는 아무런 정치적 자유도 권리도 보장되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민족을 분렬시키며, 우리 국토를 량단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감시 하에 조선인민들의 어떠한 계층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친일과 민족 반역자들의 반동 독재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반동 매국적 정권은 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인민들의 힘에 의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타도 분쇄되고 말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남북 조선의 이와 같이 판이한 정세는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서는 진정한 인민의 주권인 인민위원회를 공화국의 지방 주권기관으로 하는 때만이 그 승리와 공화국의 륭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치적 기초인 각급 지방 인민위원회들이 이미 조직된 지역에서는 그를 일층 강화할 것이며 반동세력에 의하여 조직되었다가 해산당한 지역들에서는 그를 복구하며 조직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제시한 김일성 수상의 말씀을 전체 조선인민들은 자기의 투쟁적 강령으로 삼고, 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즉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는 각급 인민위원회의 시책을 높이 받들고 인민들은 인민정권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인민경제 계획의 초과 완수를 위하여, 또는 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민주화하는 선거준비사업을 성과있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화국 남반부에 있어서 손에 무기를 잡은 인민들은 인민위원회 복구를 위한 류혈적 투쟁을 치렬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인민위원회들이 복구된 지방들에서는 인민적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개혁들을 실시하고 있다.

× × ×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지방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는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온갖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주권기관이며, 또한 법적으로 확립된 공화국의 정치적 기초로 되고 있다.

지방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을 위시하여 전체 인민들의 단결된 민주력량을 결속하여 지방 주권기관의 강화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성과있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지방 주권기관은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며 인민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는 능력있고 믿음성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민정권 기관으로 강화되었으며, 인민들의 무한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적 환경은 지방 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민주화하며, 그의 권위와 위신을 더욱 제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최고인민회의 제二차 회의는 공화국의 정치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주권기관의 선거 실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또한 금번 실시되는 면·리 인민위원회 선거는 다만 헌법상의 요구에서만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급격한 발전 장성에서 요구되는 가장 적절한 대책으로 되는 것이다.

一九四七년의 선거로부터 二년 八개월을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들이 대규모적으로 확장된 국가사업에 등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인민위원들의 결원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제반 민주건설을 촉진시키는 투쟁 과정에서 모범적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인민들의 두터운 신망과 지지를 받고 있는 우수한 국가적 새 인재들이 인민 속으로부터 육성되었으며, 그들을 공화국의 정치적 기초인 인민위원회에 광범히 등용하여 간부구석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데 있다.

그러므로 면·리 인민위원회 선거는 인민주권과 인민과의 련계를 일층 굳게 함으로써 인민주권의 토대를 확고히 하고 인민주권의 위신을 더욱 제

고시키며, 정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들의 창발력을 적극 발휘시킬 것이다.

또한 금번 선거를 통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일층 강화하며, 각계 각층 인민들을 공화국 정부와 김일성 수상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며, 조국 공화국의 정치적 기초를 튼튼히 함으로써 조국통일과 국토완정을 전취하기 위한 조선인민들의 전투적 력량을 강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잡 첨예한 현하 국제 국내 정세에서 진행되는 금번 선거는 공화국 인민들이 고도로 되는 경각성과 애국열성으로써 승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곧 우리 조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매국정책을 배격 분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나아가는 조선인민들의 단결된 민주력량을 검열하는 것으로 된다.

금번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 이 사업의 승리적 성과를 보장하는 문제는 우리 당 앞에 제기된 거대한 사명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선거사업의 승리적 성과를 보장할 중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온갖 조직적 력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각급 당단체들은 금번 실시되는 선거는 국제 국내적으로 복잡 첨예화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느니만큼 반동에 대한 경각성을 고도로 발휘하며, 반동놈의 갖은 발악적 책동과 음모를 제때에 폭로 분쇄하며, 농촌에서의 비근로적 사상들과의 견결한 투쟁과 병행하여 선거 캄파니야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정권의 주인으로 된 인민을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층 교양하며, 주권과 인민과의 혈연적 관계를 일층 확고히 하며, 우리 주권의 민주주의적 성격과 인민적 성격을 또한번 시위하여야 할 것이며, 정권기관에 애국적이며 열성적인 인재들이 선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선거의 의의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또한 선거는 공화국의 정치적 토대를 일층 튼튼히 하며, 국토완정을 일층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조선인민들은 쏘베트동맹의 형제적 방조 하에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받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은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단결을 일층 강화하여 면리 인민위원회 선거를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공화국의 정치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자.

새로 등용된 당간부들에 대한 실무적 교양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당간부부장 진 반 수

우리 당의 정당한 정치로선을 실생활에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정치적 로선을 옳게 리해하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시하려는 결심이 있고 그것을 실제에서 실현할 줄 알며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것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능력있는 간부가 있어야 하며 이들 간부가 없이는 우리 당의 정책과 결정이 집행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창립된 처음부터 오늘까지 일관하여 당간부 양성에 전당의 주의를 돌린 결과에 오늘 우리 당을 능히 움직이며 우리 당의 정책과 로선을 실 사업에서 정확하고 능숙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검열되고 훈련된 당간부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특히 근로대중의 전투적 선봉부대인 우리 당의 지휘적·력량으로 되는 당간부진영을 더욱 공고히 하며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문에서 로동계급의 명도적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생산로동자들과 인민 속에서 자라나는 로동자 빈농민성분의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으며 실지사업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사업이 더욱 발전되며 국가기관이 확장되고 인민경제가 급속히 발전되는 오늘의 정세 하에서 더욱 많은 간부가 요구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당간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과학 기술만으로서는 이미 얻은 승리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우리 사회를 더 높은 계단에까지 전진시키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동지는 항상 민족간부의 양성문제는 민주조국 건설에 있어서의 선결문제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당과 공화국정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었다.

그러므로 우리 당단체와 당간부들에게는 당조직 선전사업과 경제 문화 건설사업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을 얼마나 양성하였으며 어떻게 교양 훈련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간부 양성면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새로 등용된 간부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단체와 국가기관 사회단체에 급격히 많은 간부가 수요됨에따라 어느 당단체나 국가기관을 물론하고 근로성분의 새로운 간부들이 많이 등용된다。

물론 해방 이후 四년 동안에 이 간부들이 실지사업과 학습을 통하여 많은 교양과 훈련을 받았으며 지난날의 로동자들과는 비교하여 상상할 수 없는 장족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간부들이 다 준비되었으며 전부가 다 높은 수준에서 필요한 사상 정치 리론으로 무장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 그들은 부단히 발전하고 있는 현계단의 조국발전의 급속한 속도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 지도사업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더 높은 수준의 조직 지도능력을 소유할 것이 요구된다。

당중앙위원회는 새로 등용되는 간부들에게 특별한 주의와 일상적인 원조와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교양과 훈련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러 지방 당단체들의 간부사업을 검열한데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적지 않은 하급 당단체들에서 이 지시가 철저히 집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성분의 새 간부들을 등용 배치하여 놓는 적절한고 지도와 실무적 방조로써 그들을 교양 훈련하지 않고 아직도 결정서와 지시문만으로 사업시키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하여 사업이 잘못된다、무능력하다는 유로써 공작을 이동시키거나 심지어 본직장에 돌려 보내거나 혹은 무원칙한 책벌을 적용하는 사실들이 아직 완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평남도 어느 군당단체에서는 수다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내려보내고 구체적인 산 지도를 주지 않고 막연하게 사업이 잘 되기만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이 잘 되지 못하면 하급 당단체의 일꾼들에게 무원칙한 책벌을 여러번 적용하는 그릇된 사업방법을 볼 수 있으며 기타 지방 당단체들에서도 이와 류사한 사실들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당 책벌의 존엄성과 교육성을 감소시키며 간부의 장성에 커다란 조애를 주고 있다。

쓰딸린 대원수는 지도간부들의 이와 같은 태도를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지도간부들이 우리의 일꾼들에게——그들이 「큰」 일꾼이든 「적은」 일꾼이든지 간에、그들이 어느 부문에서 사업하든지 간에、가장 천념스러운

태도를 취하며、그들을 잘 배양하며、그들의 장성을 보장하며、그들이 자기를 받들어 주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들을 도와주며、그들이 첫성과를 보이는 때에는 그들을 장려하며、그들을 등용하는 등등을 요구한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꾼들에 대한 랭혹한 관료주의적 태도、아주 무리한 대우의 현상을 보게 된다。 사람을 잘 알아보고 또 다만 알아본 뒤에 그에게 책임을 맡기어야 될 대신에 사람을 장기쪽처럼 내붙이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기계를 귀중히 여기며 우리의 공장이나 제조소에 얼마나 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보고할 줄을 배웠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기간에 얼마나 인재들을 배양하였고 또 인재들이 사업에서 장성되며 단련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었다는데 대하여서도 그렇게 보고하기를 즐겨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이것은 아직도 사람들을 중히 여길 줄을、인재를 중히 여길 줄을、일꾼들을 중히 여길 줄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리고 하시면서 인재는 세계에 있는 모든 값있는 자본 가운데서 가장 값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본이라고 가르치시었다。

오늘 우리 당에 새로 등용된 간부의 절대다수가 전국사업에 열성적이고 군중의 신임을 받으며 계급적 립장이 튼튼한 정치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일군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당단체들이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옳게 지도하며 교양 훈련한다면 그들은 당과 국가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당단체와 그의 지도간부들이 이 방면에 있어서 사업을 급속히 개선한다면 간부에 대한 기근을 성과있게 퇴치하게 될 것이며 당과 국가사업이 더 높은 수준에서 진행될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더우기 인재의 진정한 단련이 실제사업에서 난관과 투쟁하며 그를 극복하는데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새로 등용된 간부들을 옳게 지도하며 교양 훈련하는 문제는 간부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큰 사업으로 된다。

그러면 간부들을 옳게 지도하며 교양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또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첫째、간부들로 하여금 당과 국가의 정책과 로선을 정확히 인식케 하며 사회발전법칙과 계급투쟁의 방법을 배워주어 이것을 오늘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제기되는 전략과 전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며、리용되고 있지 않는 모든 가

능성과 대비력을 발견하며, 리용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간부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시키며 선진 혁명당들의 고귀한 투쟁경험을 배우도록 하는 데 있다。

간부들의 교육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를 배워주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만일 우리 당간부들이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을 받지 못한다면 간부들 그 자체가 우리 사업의 정당성을 모르게 되며 상부기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사무주의자로 변하게 될 것이니 불피코 우리 국가 및 당사업도 쇠약해질 것이다。

우리당 간부들은 인민대중의 정치적 조직 지도자이다。 정치 지도사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지도사업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며 광범한 지식과 능숙한 사업기능이 요구된다。

우리 당단체와 그의 지도간부들은 새로 등용된 간부들에게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배워주며, 또 그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며, 단기강습회 강연회등을 조직하여주며, 필요한 서적을 선택하여주는 등 백방으로 방조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오래지 않아 사기 사업에 흥미와 자신을 가지게 될 것이며 국내외의 정세를 옳게 분석하며 모든 사건의 내적 관계를 리해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의 진행과정과 장래의 발전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당간부들의 정치적 지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당간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간부들을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문제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우리당의 일상적 사업에 있어서나 매개 당원과 당간부들의 사업에서 나타나는 결점과 오유를 폭로 퇴치 시정하며 사업을 더 높은 발전에로 인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사상적 무기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레닌—쓰딸린이 지도하는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은 발전의 무기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옳게 구사하며 전체 당원과 당간부들을 오랜 력사를 두고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하고 단련한 결과 오늘 전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유력한 정당으로 되었다。

만일 당내에 비판과 자기비판이 없으며 당원들과 당간부들을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부패성과 침체성이 뿌리를 박게 되며 자아도취에 빠져 멸망하고 말 것이다。

오늘의 정세 하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 사상전선에 침입하는 일체 반맑쓰주의적 반동사상들과 투

쟁하며 우리 일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잔재요소를 숙청하고 사회발전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상적 근거를 소탕하며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예리한 사상적 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간부들을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훈련하여 그들이 대중의 목소리를 신중히 청취하며 비판적 지적을 주의 깊게 들으며, 또 원칙적인 비판은 대담스럽게 받으며, 자기사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줄 알며, 비판을 자기사업에 유리하게 리용할 줄 알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의하여 각급 당단체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의 가치를 높이 들고서 당과 국가사업에 해를 주는 일부 락후한 사상 및 행동들과 사업조직 지도상의 모든 결점과 오유들을 비판하면서 사업의 금후 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당내에 존재한 락후한 사상과 행동들을 폭로 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과 당간부들의 당적 각성과 혁명성을 고도로 제고시켰다。

특히 당간부들은 이 사업을 통하여 결점과 오유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사업작풍과 방법에 대하여 많은 교육을 받았다。

이와 같이 간부들을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만이 우리 사업의 오유와 결점을 미연에 시정하며 간부들을 쓸데 없는 자존심과 안일에서 구출하며, 일체 옳지 못한 작풍들을 폭로 시정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사업에 대한 자각적 열성과 조직에 대한 당성과 적극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새로 등용된 신진간부들을 실지 사업을 통하여 자래우는 문제이다。

간부양성 특히 새로 등용된 간부들을 자래우는 데 있어서 실지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산 지도와 훈련이 중요한 방법으로 된다。 옳은 지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간부들에게 매개 지방의 구체적 실정과 그 지방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파악하여야 할 기본적이며 중요한 고리를 지시해 주며, 어떤 과업의 해결방식과 방법을 매개 일꾼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며, 그의 실행을 검열하면서 자래우며 단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당 또는 정권기관의 정확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이 옳게 되지 못하였다면 그를 집행할 간부들을 적절히 지도하며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실효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공문으로 화하여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관의 조직사업의 본질은 회합과 결정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간부의 교양과 지도에 보다 더 힘을 들이며 그들에게 실제적 방

조를 한층 더 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당단체들의 실정을 본다면 다수 당단체들에서 간부에 대한 일상적 지도를 제二차적인 일로 인식하고 마땅히 돌려야 할 주의를 적게 돌리고 있으며, 또 어떤 당단체에서는 수다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하부에 발송하고는 실행 여부에 대한 검열과 구체적인 지도를 주지 않고 성과가 있기만 기대하고 있는 실례들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 당단체들에 다수 새로 등용된 경험이 적은 간부들이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며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할찌 모르고 있다。 그들은 상급 당단체와 지도간부들이 지도하여 주며 방조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실지 형편은 어떠한가? 일부 지도간부들은 그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방조를 주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불러다 보고나 받고 결정서나 채택하며 책벌이나 주는 등등의 태도를 취한다。 또 한가지 엄중한 사실은 우리 간부들중 어떤 동지들은 근로계급 성분의 일군들은 무식하며 일할 줄 모르니 등용하기 곤난하다는 등 옳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이것이 옳은가? 물론 옳지 않다。 이러한 사상은 당과 국가의 간부, 정책에 위반되는 가장 유해한 사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일부 새로 등용된 근로성분의 간부들이 리론교양과 실무적 사업을 배우는데, 등한한 그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경력에만 자부하고 그것만으로 간부자격이 있는듯이 인식하는 락후한 사상적 경향이다。

오늘 우리 조국 력사가 발전하는 속도와 우리 당사업의 발전과정은 우리 당간부들이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만으로는 사업의 높은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당과 국가의 어느 간부를 물론하고 더 높은 사상 정치수준과 조적 지도능력을 소유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경험이 적은 새로 등용된 간부들은 자기의 조직지도 수준을 제고하여 당의 정치적 표어와 결의의 실지적 실시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당단체와 그의 지도간부들은 새로 등용된 일군들을 어떻게 지도하며 훈련할 것인가?

오늘 각급 당단체와 국가기관에 새로 등용된 일군들은 각기 지식정도와 사업경험과 기능이 동일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맡은 사업과 일하는 지대가 다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결정 지시의 실천, 동일한 과업의 해결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정도로, 일률적으로 지도해서는 아니된다。 조건이 다르면 그를 취급하는 방법도 반드시 달라야 한다。

당지도간부들은 먼저 대상의 력량과 그가 책임진 사업의 분량과 그가 사업하는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들을 잘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제시된 어떠한 과업의 조직적 정치적 의의를 충분히 파악시키며 그 과업의 해결방식과·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옳은 지도를 하기 위하여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그가 실지에 어떻게 사업을 조직하며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시작된 사업을 끝까지 검열하여 그때그때에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며 나타나는 결점을 시정하여주며 곤난과 애로들을 해결하여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원조를 제때에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도만이 구체적인 산 지도로 된다。 로간부와 신진간부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지도간부들이 자기를 표준하여 일률적인 지도를 하거나, 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자라나는 일군들의 창의를 구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는 반대로 일상적으로 개별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자신의 창의와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시키며 위임맡은 사업을 세심히 연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간부들을 자래운다면 그들은 오래지 않아 경험있는 로간부들을 따라가며 앞서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간부에 대한 옳은 지도이며 훈련인 것이다。

오늘, 원쑤와의 투쟁의 가장 첨예화한 단계에 처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한 투쟁의 최선렬에 선 우리 당은 어느때보다도 사업수준을 제고하며 전투적 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의 지휘적 력량으로 되는 능숙한 간부를 많이 양성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단체와 그 지도간부들은 근로인민들 속에서 새로 등용되는 간부들에게 대하여 당로선의 정당성과 반동파의 투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높여주며,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키며, 국제주의적 사상교양을 강화하며, 능숙한 실무적 조직 지도 능력을 채득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있는 교양과 훈련을 주어 준비된 간부들로써 인민적 조국을 보장하는 영광스러운 과업을 승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동맹은 농민 대중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키자

북조선농민동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 진건

오늘 二四〇만의 방대한 근로 농민을 자기 대렬에 조직 망라한 농민동맹은, 근로 인민의 선봉대인 북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산하에 굳게 뭉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을 실천하며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전체 근로 농민들을 조직적 투쟁에로 고무 발동시키고 있다. 이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민동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업을 내세우고 싸웠으며, 또 싸우고 있는가?

농민동맹은 로동 계급과의 굳은 동맹에 기초하여 공화국 정부와 그의 수상 김일성 장군 주위에 농민 대중을, 굳게 결속시키어 조국을 재식민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구축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국내 반동 세력을 타도 분쇄하고, 조국의 민주주의 통일 독립과 국토완정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봉건적 착취와 예속에서 농민을 해방시킨 토지개혁의 위대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조국의 통일과 독립의 중요한 경제적 토대로 되는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농민동맹은 농촌에 남아 있는 악독한 일제 사상 잔재와 봉건 인습을 근절하며, 농민들을 인민민주주의적 애국 사상과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과학 지식을 광범히 보급시키는 동시에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장성에 수응하도록 그의 교육 및 문화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자기의 기본 과업으로 삼으며, 또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는 토지받은 근로 농민들의 강령이며, 또한 우리 당이 농민동맹 내 당원들에게 제시하는 과업이다.

이상 과업을 실천하는 투쟁에서 우리 당은 농민동맹 내에서 공작하는 우리 당원들이 모범적 선봉적 역

할을 함으로써 근로 농민 대중을 농민동맹에 집결시키며, 당과 국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는 사업에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를 몰수당한 반동 지주들과의 투쟁을 가강히 전개함으로써 근로,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더 한층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은 우리 당 제二차 대회 결산 보고에서 사회단체 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단체 일군들이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서 군중과 일편이 되어 군중들의 리익을 존중히 여기며, 군중들이 정치 경제 실제적 생활에서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을 제때에 해결해 줌으로써 군중 앞에 가장 위신있는, 가장 민는 의지(依支)가 되도록 할 것이며……사회단체 내 비당원들이 오직 우리 로동당이라야만 자기들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당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여 로동당원이 되지 못하고 아직 비당원 맹원으로 있는 맹원들에게 우리 당이 자기의 제일 큰 벗이며, 자기들과 같이 끝끝내 한뎡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단체인 농민동맹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당원들은 자기의 일상적 투쟁을 통하여 근로 농민 대중 속에 우리 당과 정부의 정책을 옳게 해석 침투시키며, 그를 자각적으로 실천케 함으로써 우리 당의 영향을 부단히 근로 농민 속에 미치게 하며, 우리 당 주위에 굳게 결합시키는 인전대(引傳帶)로써의 역할을 농민동맹이 충분히 놀도록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높여야 할 것이다.

× × ×

그러면 농민동맹은 오늘 우리 조국과 우리 당이 요구하는 고상한 정치적 수준에서 자기의 사업을 옳게 전개하였는가? 우리는 원만하게 역할을 놀았다고 볼 수 없는 동시에 아직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례를 들어 보자.

첫째, 조국의 통일 독립과 국토완정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하여는 인민 정권의 토대를 물질적으로 튼튼히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농민동맹은 전체 근로 농민들을 고무 추동하여 농산물 증산투쟁에 자각적으로 총궐기시켜야 할 것이다. 즉 다수확을 위한 투쟁은 곧 인민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농민들 앞에 제기된 가장 큰 과업이다. 다수확을 보장하려면 또한 필연적으로 다른 여러 조건과 아울러 농업 기술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민동맹은 토지개혁 후 「한치의 땅이라도 묵이지 말고 갈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 정

권의 옳바른 지도 밑에 경지 면적을 확장하며、토지를 개량하며、토지 리용률을 높이어 보다 높은 농산물 증산을 위한 애국적 투쟁에 농민 대중을 고무 추동시켜 왔다。이로써 식량이 부족되던 북반부를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대로 전변시켰으며、일제의 최고 수준이던 一九三九년도 수준을 一○·四%나 초과하였으며、토지개혁 전에 비하여 二九%를 초과 생산하게 되었다。

특히 一九四九—一九五○년도 새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첫해인 금년도에 있어서 례년에 볼 수 없는 한발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민 정권의 옳바른 지도와 농민동맹의 적극적 협조로써 한발을 극복하는 투쟁에 농민들의 온갖 창발력과 애국적 열성을 기울인 결과 작년에 못지 않는 농산물 증산을 예견하게 되었으며、벌써 맥류는 계획의 一○一·九%의 증산을 쟁취하게 되었다。그뿐만 아니라 농민동맹은 인민 정권의 농산물 증산을 위한 제반 기술적 지도를 적극 협조하여 과학적 농업 기술과 선진 다수확 열성 농민들의 영농 경험을 보급시킴으로써 과거의 가혹한 봉건적 소작 제도 하에서 락후되고 정체되었던 영농 방법을 새로운 과학적 영농 방법으로 개진시키기 위한 농업 기술 보급 사업을 조직 전개하였다。즉 一九四八년부터 一九四九년 상반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군에서 一五、四一六회의 농업기술 강습회를 실시하여 九八六、三○三명에 강습을 주었으며、농업 기술 좌담회는 二二、七五九회에 四八二、一四四명의 농민을 참가시키었다。그 외에 농업 기술에 대한 소책자와 다수확 농민들의 영농 경험집을 一八○、○○○부를 발간하여 농촌에 보급시키었다。결과에 북반부에서 단위당 수확고는 일반적으로 높아졌으며、그 중에서는 평균 수확고에 대비하여 三○○%로부터 四九○%까지 단위수확고를 높인 다수확 농민들이 다수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왜 그러냐 하면 농업 증산을 위한 투쟁은 아직 초보적 계단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전체적으로 보아 농업 기술 보급 사업은 아직 좁은 범위의 다수확 열성 농민들 간에 보급되었을 뿐、광범한 농민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그것은 선진 열성 농민들의 다수확 경험에 머물러 있으며、아직 과학적 영농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거리가 멀다。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낡은 영농법을 고집하며、새로운 영농법 실시를 주저하는 보수적 사상 잔재와의 사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지 못한 점이다。

이같이 농업 기술 보급 사업이 낮은 수준에서 진행된 결과로 농촌에서 부분적으로 봉건 유습을

청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농민들이 자연의 피해를 미연에 극복할데 대한 대책이 미약하였다。그것은 금년과 같은 한발이 심한 때에 천수답에는 미리 건파를 실시하는 방법으로써 한발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으며、대작과종에 있어서도 세곡 과종을 옳게 보장하지 못한 곳도 부분적으로 있게 되었다。

또한 토지 리용률 제고와 단위 수확고를 높이는 二모작과 랭상묘、밀의 광조파(廣條播)、종자의 개선、추경 춘경과 심경 등등 다수확 영농법을 일반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수확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청산하고 높은 수준으로 급속히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농민들의 낡은 영농법 대신에 선진 과학적 영농법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가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투쟁은 농민들의 보수성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앞날 조선 농민의 보다 높은 계단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농민들 속에 근로 사상을 깊이 배양시키며、그들의 창조력을 백방으로 고무 추동시키기 위한、또한 선진 과학적 영농 기술을 광범히 보급시키기 위한 농업 기술 보급 강습회와 좌담회의 조직을 체계적으로、또 일상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아울러 농민동맹은 농사 시험장、국영 농장、목축장、종축장들과 일상 긴밀한 련계를 취하여 농민들을 발동시킴으로써 그 사업을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농사 시험장、국영 농장、종축장들에서 달성한 우수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섭취하여 전체 농민 군중 속에 광범히 보급시키는 사업을 적극 조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농민동맹은 삼림 애호 사상을 농민들 속에 고취하며、농민은행 사업을 협조하여 경제적 여유력을 저금하는 동시에 농업 확대 재생산에 광범히 리용케 하며、소비조합 사업을 또한 적극 방조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물자의 교류를 원활히 하는 등 농촌 경리를 발전시킴에 가능한 모든 조건들을 철저히 리용하도록 농민 대중을 추동하여 참가시킬 것이다。二개년 인민경제 계획 농산 부문의 예정 숫자를 초과 달성함은 인민 정권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며、그것은 또한 조국의 통일 독립과 국토완정을 촉진시키는 거대한 투쟁인 것이다。

× × ×

둘째、인민 정권을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근로 농민들의 사상을 민주주의적으로 철저히 개변시켜야 할 문제이다。

일제와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벗어나、또 국

가의 주인으로서 토지의 주인으로서의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며, 국가의 모든 법령과 결정을 자각적으로 실천하며, 자기 조국을 침해하려는 온갖 반동에 대하여 증오하며, 투쟁하는 민주주의 애국 사상으로 철저히 교양하여 사상 의식을 개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동맹은 근로 농민들을 민주주의 애국 사상으로 교양하며, 반동에 대한 증오심과 경각심을 높이며, 정부의 제반 시책을 높이 받들고 실천하도록 부단히 맹원 정치 교양사업을 조직 실시하기 위하여 三四, 七七八개의 맹원 학습반에 八五五, 三七五명의 학습반원을 망라시키고 였다.

그러나 금년 상반년의 맹원 교양 정형을 보면 학습 실시, 회수가 겨우 五九, 一七四회, 참가자가 겨우 연 一, 六二一, 六〇九명으로 六개월 간에 二회도 완전히 실시하지 못한 락후한 상태에 방임되어 있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학습반 체계의 개편으로 근본적 개선을 보았으나, 아직도 일부 학습반은 휴식 상태에 있거나 불충분한 상태에 처하여 있다. 또한 동맹 간부 교양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중앙·도·군에서 실시한 간부 단기 강습실시 정형을 본다면 상반년에 중앙은 一회 一〇二명, 도·군에서는 三, 一九四회를 실시하여 연 六〇, 九九八명에게 강습을 주었다. 그러나 부분적인 군들에서는 계획대로 강습이 조직되지 못하였으며, 형식적으로 강습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맹원 정치 교양사업과 간부 교양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결과로 지방 간부들의 지도적 력량을 높이지 못하였으며, 사업상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 맹원 및 농민 대중에게는 국가의 법령 등을 깊이 침투시키어 농민들이 국가 시책을 제때에 자각적으로 실천하도록 옳게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토지받은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며 애국적 근로 사상을 깊이 배양하지 못하였으며, 농촌에서 일제의 잔재 사상과 봉건 유습을 철저히 소탕시키는 사상 투쟁이 미약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일부 농민들에게는 비근로적이며, 국가시책에 불충실히 하는 현상과 부화된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농민동맹 내 우리 당원들은 이상과 같은 옳지 못한 현상들에 대하여 심각한 당적 주의를 돌리는 동시에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인민 정권은 자기들의 정권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인민 정권은 로동자 농민을 핵심으로 한 전체 근로 인민들의 주권이며, 인민 정권만이 자기들의 토지소유를 영원히 보장하여 주는, 즉 자기들의 리해 관계에 있어서 혈연적 련계를 가지고 있는 정권임을 철저히 인

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온갖 열성과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들의 영예스러운 의무인 동시에 그들의 사활에 관한 중대한 임무인 것이다.

로동계급의 지도 밑에 로농 동맹을 굳게 하는 것은 농민들이 자기의 앞날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며, 자기의 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며, 자기를 더 한층 높은 계단으로 개조하는 길임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농민은 언제나 로동계급과의 튼튼한 동맹을 가짐으로써만 자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리해가 합치되는 조건 하에서 농민은 공업 생산품을 값싸게 보내주는 로동계급에게 식량과 더부러 경공업 원료를 싸고 풍부하게 보장하여 주도록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민 정권을 침해하며 파괴하려는 반동파에 대한 증오심을 앙양시키며, 특히 농촌에서 토지를 몰수당한 반동 지주놈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어 농민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 몰수당한 반동 지주놈과 남조선 매국노들은 토지개혁 실시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경제적 토대를 빼앗기게 되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토지개혁의 승리를 파괴하려고 발광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론 오늘과 같이 모든 질서가 잡히고 인민 정권이 확고 부동하게 수립된 북반부에 있어서는 발동의 활동은 공공연한 형태로 나타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갖은 교묘한 수단으로 인민 정권과 인민을 리탈시키기 위하여 테로 방화 등 최후 발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에 있어서 근로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농민동맹은 또한 농민들에게 근로 정신을 배양하며, 과학 지식을 보급시키는 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는 근로 농민들의 사상이며, 라태와 안일은 지배 계급과 지주의 사상이다. 농촌 경리의 발전에 따라 생활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근로하기를 기피하며, 남의 로력에 의존하려는 부화한 사상은 농민의 사상이 아니라 농민을 착취하며 억압하던 지주의 사상인 것이다. 그것은 토지 개혁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며, 농민 자신이 자기를 패망의 구렁으로 몰아넣는 사상인 것을 깊이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지식이 결여한 곳에 봉건 유습과 일제 사상 잔재가 숨어 있을 수 있으며, 미신과 인습이 깃들 수 있는 것이다. 이곳에 퇴보와 정체가 눈트고 있는 것이다.

과학 사상을 소유함으로써 비로소 앞을 내다 볼 줄 알며, 자기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확신성을 갖

계 되는 것이다。 농민 대중에게 과학 지식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이같이 맹원들을 민주주의 애국 사상으로 교양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헌신성을 고무하여야 할 것이며, 조국을 팔아먹으려는 반동에 대한 증오심을 높이며, 선진 과학 사상으로 교양함으로써 승리에 대한 확신성을 제고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동맹은 전체 맹원 및 농민 대중을 철저한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일체 협소한 민족주의적 사상 경향을 철저히 배격하며, 그와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농민동맹은 제二차 세계대전에서 또는 세계 약소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옹호하는 투쟁에서의 위대한 쏘련의 역할을 농민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켜야 할 것이다。 더우기 쏘련이 우리 조국의 해방과 민주개혁과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조선인민에게 준 그의 진정한 원조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조국의 완전 통일 독립과 민주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조선인민에게 줄 적극적 방조에 대한 확신성을 농민대중 속에 깊이 해석 선전함으로써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을 영원불멸의 것으로 강화하도록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동맹은 근로 농민들을 사상적으로 개변시킬뿐만 아니라 그 생활 자체도 개변시켜야 할 것이다。 빈궁과 암흑 속에서 살던 낡은 생활 양식을 버리고 문명한 생활을 하게 하며, 문화적으로 쾌적하고 명랑하게 살도록 생활 양식을 개변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토지개혁 후 나날이 장성하는 농촌 경리의 발전에 따라 농민들이 자기의 생활을 문화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농촌 문화의 건설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동맹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농촌 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농민동맹은 기관지 월간 농민신문, 월간 농민잡지, 농민화보, 농민소설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여 농촌에 광범히 배포 보급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정치 사상 교양과 과학적 영농 기술 습득에 노력하는 동시에 농촌 문화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북반부 농촌 방방곡곡에는 一만八천여개의 구락부와 민주선전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천개의 각종 써클이 조직되어 있으며, 중앙 직속으로 농민극단이 있으며, 각 도 농민동맹에는 이동 예술대와 이동 영사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각 군농에서는 년 四회의 이동문고와 이동 사진전람회가 조직되어 산간 벽지를 순회하면서 근로 농민들의 문화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동맹은 토지개혁 후 급전적으로 향

상 발전됨을 따라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농촌 농민들의 경제적 여유력을 문명한 생활에로 돌릴 수 있도록 농촌 문화사업을 옳게 조직 지도하지 못하였으며, 농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데 대하여 크게 주목을 돌리지 못하였다。 一八, ○○○여개의 구락부 및 민주선전실이 설치되고, 수다한 써클들이 조직되었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민주선전실은 휴식 상태에 처하여 있으며, 써클은 발동되지 않고 있다。 새 집을 짓기는 많이 지었으나 가옥 구조는 구태 의연한 비위생적 건물이며, 또한 향토를 미화시킬데 대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농민동맹은 앞으로도 농촌 경리가 물질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더욱 급전적으로 장성될 경제적 여유력을 부화한 생활에 랑비하지 말고 농촌 문화 건설 및 교육사업에 돌리도록 농민들을 사상적으로 옳게 교양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 가옥 제도와 농촌 보건 위생 시설과 문화 시설을 확대 중설하도록 조직 지도하며, 농촌 미화사업을 농민들 자신의 열성과 노력으로 창조하도록 적극 조직 지도하여 농민들의 락후되어 있는 생활 양식을 문명한 문화적 생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농민동맹은 각종 써클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놀도록 그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기술적 방법적 지도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문화의 혜택을 덜 입는 산간 지대에는 이동 사진, 이동 영사반, 이동 예술대를 일상적으로 순회시키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할 것이다。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농민동맹은 맹원 정치 교양사업과 농촌 문화 건설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의 위치를 깊이 인식하고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동맹의 경제 건설을 비롯한 제 과업의 달성은 반드시 농촌 문화 건설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하며, 정치 교양 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만 보다 높은 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동맹 각급단체 일꾼들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 할 문제이다。

× × ×

셋째, 이상 여러가지 중요한 기본적 임무들을 성과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농민동맹 자체의 조직을 확대 강화함에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광범한 맹원을 자기 대렬에 집결시키고 있는 농민동맹은 농민대중 속에서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충분히 놀았다고는 볼수 없다。 동맹 각급 지도기관 내에는 규률이 엄격히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사업을 중심으로 한 비판과 호상 비판 사업이 약하게 진행되며, 만사태평 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일부에 있다。 이에 따라서 동맹 내 민주주의 원칙이 엄격히 확립되지 못

하고 있는 관계로 적지 않은 하부 지도기관들이 옳바른 중앙 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통일적인 지도 하에 생활성있는 조직으로써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결과로 상급의 결정과 지시가 겨우 군위원회나 당호한 경우에 리위원장에게까지 전달될 뿐，실지 맹원 및 농민대중 속에서 구체적으로 토의되고 론의되어 생동하지 못하고 있는 례가 적지 않다。이것은 무엇보다도 농민동맹 내 일부 우리 당원들이 사상적으로 당적 립장에 튼튼히 서지、못하고，계급적 립장에 튼튼히 서지 못한 관계로 농민동맹 사업의 근본 목적을 일상 사업에서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농맹 사업을 자연 생장적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특히 하급 동맹단체 지도사업에 있어서 결정과 지시로써만 사업하려는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아직 계속하며，형식적 지도 검열사업을 반복하고 있으며，제기된 과업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동맹 일군들의 사업상 련계가 없고 유일하고 통일적인 지도 하에 농맹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는데 기인된다。또한 농민동맹 사업이 락후된 원인의 하나는 간부 료해 사업이 철저치 못하여 간부들의 사업상 능력에 따라 적절히 공작시키는 사업이 부족하며，더우기 간부를 일정한 공작에 고정화시키어 자기의 사업에 능수가 되도록 훈련하지 못하고 번번히 이동하며，하부에서는 결원된 간부들이 허다하므로 그 부서의 공작을 쉬게 되는 경우가 아직 많은데 있다。

이와 같은 제결함을 시급히 퇴치하고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농민동맹 내 우리 당원들은 우선 사상적으로 튼튼히 당적 립장에，계급적 립장에 서야 할 것이며，자기의 사업 작풍을 철저히，또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농민동맹은 하부 지도 검열사업을 정상적으로 체계있게 실시함으로써 하부 조직들이 기동적으로 생활성있게 발동되어 농민동맹 앞에 제기되는 일상적 과업과 시기적 중심 과업들을 남김없이 농민대중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지도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농민동맹은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근절하고 농맹 각급 지도기관에서 선거받은 위원들과 열성 맹원들을 동맹 실지 사업에 광범히 동원하여 그들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며，하급 동맹 단체가 자각적으로 발동되도록 조직 지도사업을 개선할 것이며，농맹 조직 확대 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리위원회의 역할을 제고시키어 하부의 실정을 정확히 상급 위원회에 반영시킴으로써 중앙 위원회 사업을 옳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동맹 각급 단체 일군들은 농민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일상적으로 군중을 교양하며，그들에게 세세한 사업 방법을 가르쳐 주며，또 그들에게서 배울 줄 아는 민주주의 사업 작풍을 철저히 배워야 할 것이다。그와 동시에 간부를 고정화하여 빈번한 이동을 금지하며，특히 하급 간부들의 지도적 력량을 높이기 위한 간부 양성사업에，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 임무를 일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농민동맹은 오늘 우리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높은 정치적 수준에로 자기 사업의 획기적인 개진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근로 농민들 속에서 자기의 위신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자기의 역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농민동맹은 오직 자기의 사업을 이렇게 전개함으로써만이 근로 농민 대중을 자기 대렬에 굳게 집결시키어 조국의 남반부를，재식민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욕을 제거하며，그의 앞잡이 「유·엔조선위원단」을 철거시키며，미제국주의의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을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국토 완정과 민주 발전을 위한 전인민적 투쟁의 길을，더욱 힘있게 전진할 것이다。

농민동맹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당원들은 당적 과업을 깊이 인식하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모범적으로，주동적으로 사업함으로써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농민 군중 속에 해석 침투시키며，우리 당의 영향을 부단히 농민 군중 속에 미치게 하여야 할 것이다。각급 당단체들은 농민동맹 사업에 백방으로 구체적 지도와 방조를 주어 농민동맹으로 하여금 농민 대중 속에서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시키도록 보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그리함으로써 근로 농민들을 우리 당과 정부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우리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신속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시켜야 할 것이다。

리승만도당은 요시다반동정부와 결탁하고 있다

리 기 석

매국노 리승만은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배반하는 죄악들을 수없이 범하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리승만은 미증유의, 악독한 테로를 감행하여 남반부에서 十만에 달하는 민수주의 활동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五十만에 가까운 애국적 형제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리승만은 전민족적 리익에 부합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고 우리 조국의 영구한 분할을 음모하고 있으며 조선인민을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적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동족을 살륙하는 흉악한 내란을 조직 도발하고 있다。

리승만은 남반부의 중요산업을 위시하여 전경제를 통채로 미국에 팔아먹고 그것도 부족하여 조선청년들을 미제국주의자들이 계획하는 새 전쟁의 대포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태평양동맹이니 병역법이니 하는 등 온갖 악랄한 흉책에 광분하고 있다。 리승만의 궁천의 대죄악은 실로 매거키 곤난하다。 그러나 그 범죄의 목적은 오직 한가지이니 곧 극소수 매국도당의 탐욕적 리익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팽창적 야망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 리승만의 일거수 일투족은 미제국주의자의 사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 없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리승만은 자기의 잔명을 오늘까지 지탱하여 온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리승만파 일본의 반동적 요시다 내각과의 사이에 조성된 관계에 대하여도 아무러한 놀라울 것이 없는 것이다。 물론 추호의 민족적 량심이라도 있다하면 누구에게든지 우리 민족의 불공대천의 원쑤인 일본군국주의적 반동분자인 요시다와의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 천부당 만부당할 것이다。 그러나 매국노 리승만에게는 민족적 량심이란 본래부터 론의도 될 수 없다。 이자에게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어떻게 하면 조선인민의 모든

리익을 더욱 철저히 더욱 란포하게 배반하며 제상전의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흉악무쌍한 매국적 계책만이 가득차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 하면 자기 상전 맥아더장군의 지시를 어긋남이 없이 여률령(如律令)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비굴무쌍한 노예적 충성만이 가득차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제패의 히틀러적 야망을 꿈꾸고 있는 미제국주의자의 동방침략 정책에 한 중요한 푸로그람은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재생시킴에 있다。 최근 중국인민들의 세기적 승리로 인하여 자기들의 주구인 반동적 국민당 도배가 전복되고 조선인민의 민주주의적 통일국가 수립의 자주적 토대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철옹성같이 공고하여짐과 아울러 남반부 인민들의 영용한 구국항쟁이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동방침략의 푸로그람은 일본군국주의 재생에 더욱 큰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일본에 대한 제정책에서 명백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일본에 대한 정책은 하나에서 열에 이르기까지 포츠담선언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추구함에 있다。 강화조약 체결에 대하여 갖은 책동으로써 그것을 지연탕해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초조와 수치에 가득찬 추태를 떼방으로 연출하면서 일본을 자기의 반동적 군사기지로 만들기에 광분하고 있다。 금년 七월 유·엔 서기국 보고에서도 지적된바 一九四八년도 일본의 공업생산 수준은 전전 수준에 비하여 겨우 三분지 一밖에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꼬스까를 위시하여 새로운 모의 대해군기지들과 수많은 대설비를 가진 항공기지들은 일본내 도처에 설립되고 있다。 맥아더의 직접 지도아래에서 전략도로 五개년계획이 강행되고 있으며 대군수공장들은 해체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미국군대의「극동에서의 비상사태에 대한 군사물자의 저축을 위하여」전부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경찰의 수는 전쟁 전보다도 훨씬 초과하는바 이것은 군대가 경찰로 이름만 바꾸어 재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완전히 붕괴된 장개석 강도배를 구원하기 위한 十만명의 의국군단 편성의 음모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군대 재편성의 계획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일본군국주의 재생의 흉책은 흉악한 전쟁범죄자—그중 특히 군벌의 거두들을 극력 옹호하는 파렴치적 책동에서 더욱 명백하게 폭로되고 있다。 이러한 군벌의 거두 속에는 중국인민의 무한한 살륙자인 전중국 파견군 총사령관 오까무라야스지(岡村寧次) 도 들어 있으며 전쟁범죄자의

최대의 두목 소위 천황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의연히 일본 인민을 억압하는 권화로서 존재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재벌 해체 같은 문제는 완전한 한개의 공문구로서 전쟁조직의 주동적 역할을 놀던 모든 재벌이 의연히 일본의 주인으로 계속하여 저들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일본에 있어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 군사기지화와 아울러 민주주의 운동에 대하여 가혹한 탄압을 더하고 있다。

一九四六년에 선포된 토지개혁은 실제에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적 개혁과는 공통성도 없는 아주 빈약한 것임에 불구하고 이것조차 미점령당국과 일본 반동분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흐지부지 되고 있다。

농민대중은 지주의 압박 밑에서 여전히 노예적 신음을 계속하고 있다。 맥아더의 강압적 지시에 의하여 수백만의 국가기업소와 국가기관의 로동자와 사무원들은 파업의 권리와 단체계약권을 박탈당하였다。 반동적 로동법령에 의하여 일본 근로자들은 공민의 기본권리까지 유린당하고 있다。 一九四九년 七월 미군 대관병식에서 행한 맥아더의 연설은 일본 로동운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바 반동적 일본정부는 맥아더의 이 포악한 선언을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그 집행에 옮기었었다。 일본정부는 그 이튿날 벌써 로동운동을 반대하는 비상조치를 심의하고 그 공격의 화살을 일본민주주의 진영의 선두에 선 일본공산당의 탄압에 집중하였었다。 일본의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법적보호 밖에 축출되었으며 반동경찰들은 민주주의 활동가들과 직업동맹 지도자들을 마음대로 체포하고 있으며 로동자의 집회 시위 파업 등을 란폭하게 공격하고 있다。

일본은 미제국주의자의 반동적 반인민적 정책에 의하여 군벌들이 옹호되며 군국주의로 재무장하고 있으며 미제국주의자의 주구들의 경찰 테로 질서 밑에서 인민들과 민주진영은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위대한 쏘베트동맹을 선두로 하여 항구한 평화와 공고한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 앞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의 야망은 도처에서 자기들의 반동적 앞잡이들의 세력이 분쇄됨과 아울러 수치스럽게 실패되고 있다。 여기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딸라와 무력을 구사하여 세계 각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며, 그 나라들의 민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반동분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뿐 아니라 나아가 우세한 민주세력 앞에서 분쇄되면서 있는 각국의 반동세력 사이의 상호 련결을 사수하여 국제 반동 그루빠들을 조작하기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동 그루빠들을 조작하는 책동은 미제국주의자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고 새

전쟁을 방화하는 음모와 깊이 공통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혹은 로골적 방법으로, 혹은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혹은 군사동맹의 형식으로, 혹은 통상간섭의 형태로, 혹은 일시적 공동행동의 형태로, 각양 각색의 형태로써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민들의 세기적 승리와 장개석 반동파의 완전한 실패는 미제국주의자의 동방침략에 있어 거대한 타격이다。 또한 조선인민들이 김일성수상 주위에 날이 갈쑤록 자기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 밑에서 통일과 완전 자주독립 쟁취를 위한 투쟁을 더욱 더욱 치렬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은 미제국주의자로 하여금 자기의 앞잡이 리승만 매국도당의 운명을 유지시키는데 거의 그 자신을 상실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독점권을 리용하여 반동적 군벌세력을 백방으로 옹호 원조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을 동방침략의 최대의 근거지로 만들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각국가의 반동분자들로 하여금 일본의 반동세력과 야합시키는 책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리승만 매국도당과 일본 반동정부와의 결탁은 조작된 것이다。 실제에 있어 일본군국주의는 조선인민의 불공대천의 원쑤인만큼 인민들의 치렬한 반대를 두려워하여 이 량자 간의 야합은 극히 기만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었다。 그러나 이 량자 간의 야합은 벌써 그 시간이 오래되었으며 이 야합이 인민들 앞에 폭로된지 벌써 오래되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리승만은 테로 위협 사기 매수 등 온갖 방법에 의하여 매국정권을 조작한 후 자기 상전들의 지시에 의하여 소위 「한미 경제원조협정」을 만들어냈다。 이 매국 「협정」은 미제국주의자의 리익에 복무하고 조선인민의 리익을 완전히 팔아먹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어니와 이 매국 「협정」은 또한 리승만 매국도당과 일본 군국주의자들과의 긴밀한 야합을 소위 통상적 방법에 의하여 성립시키는데 기본적인 조건을 지어주었다。 이 「협정」은 미제국주의자와만 통상관계에 있어 특수 조건인 소위 최혜국으로 대우한다는 조항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미군 점령지대와는 어느 국가와든지 이 특수조건인 소위 최혜국 대우 제도를 설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이 「협정」의 제六조 제五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미군 점령지대로서 서부독일 트리에스트 및 일본을 지정하였었다。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과 같이 리승만 도당이 서부독일이나 트리에스트와의 통상관계를 맺기 위하여 미군 점령지대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제도를 설정한다는 조항을 「협정」속에 포함한다는 것은 아무러한 의미도 갖지 아니

한 넌센스인 것이다。이 조항은 다만 일본을 최혜국으로 대우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일본과만 이러한 특수 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뻔뻔스러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인민들의 의사를 거슬릴까 두려워하여 일부러 서부독일이니 트리에스트니하는 지명들을 열거한 것이다。이 얼마나 야비한 기만인가? 이리하여 리승만 매국도당은 우리 민족의 불공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벌들과 소위 최혜국 대우 제도를 설정하였었고 이 량자 사이에는 긴밀한 야합의「합법적」조건을 만들어 냈었다。

그러면 이 량자 간에 맺어진 소위 최혜국 제도에 의한 통상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것은 금년 四월 一일부터 소위 효력을 발생케 된 소위 대일통상 협정에 그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즉 一九四九년 四월로부터 一九五〇년 三월까지 약 一년간에 八천만불의 상품을 상호 교역하는바 남조선으로부터는 三천만불을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는 五천만불을 수입하기로 결정되었다。곧 一년 동안에 二천만불의 부채를 짊어지게 된 것이 예정되었었다。이것을「원」으로 환산하면 일년간 一백八十억원의 빚을 남조선 인민들이 다시 일본 군벌놈들로부터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이것이 호혜제도에 의한 통상관계에서 생기는 결과이다。

그러면 남조선에서는 三천만불 중 어떠면 물품들을 일본 군벌들에게 주게 되었는가? 백미가 그 반수를 점거차지한 一천六백만불에 달하고 군수산업의 원료로 되는 각종 광물들이 四백만불에 달하고 그 외에 조선 농가 七호 평균에 一두씩 밖에 할당되지 않는 다수의 농우까지 그 수출품에 포함되어 있다。이상의 수출 내용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 같이 전 수출품 중 그 절대 다수가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위하여 절대 불가결의 물품인 백미와 광물원료가 차지하고 있다。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이 반동도배들에 의하여 완강하게 거부된 결과 남반부 농민들은 가장 심혹한 지주의 착취 밑에 신음하고 있다。이 위에 리승만 도배의 미곡 강제수탈 정책은 농민들의 생활을 이중으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생산가격을 전연 무시하고 농민들의 필요 생활량을 전연 돌보지 않고 총검으로써 량곡을 강제 수탈하는 것은 참으로 남반부 농민들을 죽음의 구렁으로 쓸어넣는 것이다。농민대중을 죽음의 구렁으로 쓸어넣으면서 강제로 빼앗아낸 백미를 일본 군국주의의 재무장을 위하여 수출하는데 리승만과 일본군벌들의 야합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런데 놈들은 이것은 오로지 외화를 획득함이 그 목적이라고 뻔뻔스럽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리승만의 기관지인 련합신문 기자들까지가 三월 二十六일 괴뢰정부 소위 상공부장

관 박충훈과의 회견의 감상으로「그러고 보면 외화를 얻기 위해서는 소위「기아수출」까지 하고 있지 아니한가?」(련합신문 三월 二十九일) 라고 불만을 토로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매국적 통상협정은 수출 수입품에 있어 제一류품 제二류품을 분류하였는데 백미와 광물원료는 함께 제一류품으로서 무슨 리유가 있든지 반드시 수출하게 꾸며져 있는 것은 또한 주목하여야 한다。그리고 우리가 이 매국노들이 수입품에 있어 반드시 수입치 아니하면 아니되도록 규정된 것이 四천三백만불로서 말하자면 책임수량이 전수출품의 一五〇%에 달하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과연 리승만은 누구를 위하여 일본놈들과 소위 최혜국 제도까지 설정하고 남조선 농민들을 죽음의 구렁으로 쓸어넣으면서、또한 남조선 전인민들을 기아 속으로 몰아넣으면서、또한 남조선 인민들의 두께 위에 막대한 빚을 짊어지우면서、또한 우리 민족의 원쑤들을 재무장시키는 범죄를 감행하면서 일본군벌놈들과 이러한 망국적인 장사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가? 매국노 리승만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여야 될 것이다。

일본놈들은 이 장사를 기회로 하여 벌써 공공연하게 자기의 침략적 앞잡이를 소위 통상관이라는 명목 하에서 다시 우리 강토 내에 들여놓고 있다。최근에 열리었던 소위「한일통상 중간회담」에는 일본정부 통상산업성 통상관 쇼용빈이란 자가 떳떳이 참가하게 된 것을 저 신문들은 보도하고 있다。리승만과 요시다의 관계는 사실에 있어 날로 친밀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수상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一차 회의에서 공화국 중앙정부의 정강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시었다。

「공화국 정부는 일본을 제국주의적 침략국가로 재생시키는 것은 우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일본을 다시 제국주의 침략국가로 재생시키려고 시도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은 전부 다 우리 민족의 원쑤로 인정할 것입니다」

三十六년 간 우리 민족을 식민지적 노예로서 갖은 잔인무도한 억압과 착취를 다하던 우리의 불공대천의 원쑤 일본제국주의의 재생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전체 의사는 실로 수상의 이 말씀 속에 남김없이 포함되어 있다。

수상께서는 당신의 정강발표 연설에서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공화국 정부는 일본을 비군국화하며 민주화함에 대한 포츠담회의의 결정을 실천할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수상의 이 말씀을 받들고 높은 경

각심과 재고된 애국심으로써 일본의「비군국화」와「민주화」를 열렬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승만 매국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수에 의하여 또는 자기들의 개인적 탐욕을 위하여 일본의 군국화를 극력 원조하고 있는 것이다。실로 리승만의 죄악은 이 한가지만 하여도 천참만륙에 해당한 것이다。

그러나 리승만과 일본군벌들의 야합은 이것에만 그치지 아니한다。더욱 더욱 로골화하며 더욱 더욱 긴밀하여진다。이것은 요시다 반동정부에서 지난 九월 八일 재일조선인련맹과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에 대하여 강압적인 해산을 감행한 사건에서 더욱 폭로되였다。

일본에 있는 조선동포 六十여만을 포옹한 재일조선인련맹과 재일민주청년동맹은 일본공산당을 중심한 일본 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민주주의 발전과 비군국화 투쟁을 위하여 용감하게 활동하여 왔다。이 두 민주단체는 우리 공화국 정강을 실천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리승만의 반동적 영향을 재일 동포 사이에 퍼치려고 백방으로 기도하는 소위 재일 거류민단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었다。요시다 반동정부는 드디어 이 두 민주단체를 강압적으로 해산시키는 비법적 포행을 감행하였다。

요시다 반동정부의 이 포행은 미제국주의자의 사수 밑에서 리승만 도당이 긴밀하게 가담한 것은 누구에게나 불명할 것이다。이것은 九월 十六일 기자단회견 석상에서한 리승만의 담화에서 명백하다。리승만은 이 두 민주단체가 일본 반동정부에 의하여 해산될 때 대하여는 전연 그 대답을 회피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껄거렸다。

「나는 일본정부가 일인공산당의 재산을 몰수하였다는 말은 여직 듣지 못한 일이며 한인어기 때문에 재산까지 몰수하였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 놈은 강도놈의 말은 조선인 민주단체들의 재산 뿐 아니라 일본공산당의 재산까지 몰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로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다。

리승만은 다시 계속하여 말하기를「재일동포 문제에 대해서는 건전한 거류민단체를 재조직」시키는 것이「일인의 정당한 일일 것이다」라고 하였다。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매국노들로 조직된 소위「거류민단」에 재일 동포들을 강제 조직시킬 목적하에 두 민주단체의 강제 해산을 요시다와 공모하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매국정부 소위 외무장관 림병직은 한걸음 더 나아가「재일 한인단체 해산에 관해서는 해단체가 미군정의 기탄을 받고 또한 민국정부의 립장으로 불적에 되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재일 한인단체의 재조직은 긴급한 문제이며 재일거류민단에서도 대책을·강구」할 것이다 라고 九

월 十四일 기자단에게 언명하였다。즉 두 민주단체가 미제국주의자의 반동적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고 일본의 비군국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니 요시다정부에서 해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로골적으로 요시다정부의 포행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리승만의 언명과 마찬가지로 반동적 거류민단에 강제 조직하기 위하여 이, 두 단체를 해산하였다는 자기 계획을 은폐치 아니하였다。

이번 만행은 이것으로써 미제국주의자의 지시 밑에서 리승만 도당과 일본 반동분자들과의 공모의 결과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리승만과 요시다 반동정부는 이번의 포행을 공모함으로써 그 야합이 더욱 긴밀하여졌다。이 야합의 뒤에는 세계제패의 히틀러 꿈을 되풀이 하는 교사자 미제국주의자가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가 제아무리 리승만과 요시다를 야합시키려고 책동할지라도 이것은 실패에 돌아가고 말 것이다。오늘날 중앙정부 주위에 강철같이 단결하여 평화적 조국통일을 쟁취하기에 거족적으로 궐기한 조선인민들과 일본공산당을 중심으로하여 단결되어가는 일본의 거대한 민주력량은 이 두 반동분자들의 불의(不義)의 야합을 각각 자기국내에서 이 반동세력들을 타도함과 함께 반드시 절단시킬 것이며 또한 이 두 탐욕적 종복들은 각기 제 상전의「은총」을 야비한 투기로서 경쟁하고 있는 까닭에 이 야합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승리는 정의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편에 있는 것이다。

전후 쏘베트문학에 있어서의 볼쉐위크의 형상

브·오제로브

「우리는 손에 손을 굳게 잡고 단단한 한덩이가 되어 험난한 길을 걸자。우리는 사면팔방으로부터 적에게 포위되어 있다。우리는 거의 항상 적들의 총화(銃火) 밑을 뚫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거의 반세기 전에 브·이·레닌은 그의 천재적인 로작「무엇을 할까?」에 이 구절을 썼다。혁명적 맑쓰주의자들은 많지 않았다。그러나 그들은 로동계급의 사업을 위하여 싸우는 불요불굴한 전사들의 영웅적 필승부대이었다。

그 후에 거대한 변동이 생기었다。볼쉐위끼당은 「단단한 한덩이」로부터 강력한 군대로 장성되었다。이 군대는 수백만 쏘베트 인민들을 공산주의에로 인도하며 전세계 근로자들의 사모와 신뢰를 받고 있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은 가장 의식적이며、가장 조직적이며、가장 선진적인 우리 인민들의 부대이다。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레닌당 볼쉐위끼당은 평화 건설시에 있어서도 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쏘베트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힘이다。어떠한 당이라도 볼쉐위끼당과 같이 인민대중 속에서 위신을 가지고 있는 당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의 힘과 위대성을 보여주는 것、또 현대의 진정한 영웅 볼쉐위크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이 과업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명예스러운 과업이 쏘베트 예술가들 앞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해결함이 없이는 쏘베트 사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본질 속에 깊이 침투할 수 없으며 또 사회발전의 주도력을 해명할 수 없을 것이다。당을 주제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주제는 없다。

쏘베트 문학은 고리끼의 창작경험에 의거하면서 볼쉐위끼를 형상화할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사회민주로동당……우리의 정신적 조국만세!」——소

설「어머니」중의 빠블·블라쏘브의 이 광영에 싸인 부르짖음은 문학 내에 새 영웅, 로동자—혁명자「당의 사람」이 출현한 것을 세계에 고한 것이다. 고리끼의 창작 속에는 로씨야 로동계급의 전기(傳記)가 반영되어 있다. 그의 창작이 만들어낸 긍정적 형의 인물들의 화랑(畫廊)은 볼쉐위끼—레닌주의자들의 화상들로써 차 있다. 「어머니」중의 니라, 회곡「원쑤들」중의 프로레타리아 혁명가들, 소설「어머니」의 빠블·블라쏘브와 그의 동료들의 형상에 뒤이어 사회주의 문학 창시자 아·므·고리끼는 볼쉐위크 쓰쩨빤·꾸뚜쏘브의 전형을 만들어 내었다(「끄림 싸긴의 생애」). 고리끼는 레닌의 훌륭한 문학적 초상화를 그리었다.

마야꼽쓰끼는 시「좋다」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찬미하며 브·이·레닌의 전형을 형상화하면서 감격적인 구절에서 볼쉐위끼당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또다시 광휘를 발하도록
하고싶다
자엄한 말—
당이」

쏘베트문학은 레닌과 쓰딸린 및 그의 전우들—당 및 국가의 우수한 활동가들의 위대한 형상을 커다란 사랑으로써 묘사하였다.

쏘베트 작가들은 고리끼와 마야꼽쓰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공산주의자들—인민적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일반화한 여러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 작가들은 정당하게도 볼쉐위끼를 쏘베트 애국자의 가장 선진적인 품질을 지닌 사람으로써 표현하였다. 볼쉐위끼는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광범한 대중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그는 또 전인민을 위한 생활과 투쟁의 모범으로 된다. 볼쉐위끼의 전형을 형상화하는 사업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새 사상적 창작적 고소(高所)에 이르게 하며 당성에 대한 레닌적 원칙—사회주의 레알리즘의 기본의 기초를 더욱 깊이 파악하는데 도움으로 되었다.

× × ×

쏘베트 주권이 존재하게 된 초기에 벌써 긍정적인 주인공에 관한 문제는 쏘베트 문학의 중심문제로 되었다. 또 쏘베트 작가들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심각히 정확히 형상화하였으며, 인민대중을 려사의 창조자로서 표현하였으며, 볼쉐위끼를—새 형태의 생활을 위한 투쟁의 조직자로서 보여주었다. 이 시기의 쏘베트 문학은 공산당원들—국내의 이미 전복된 계급들을 진압하며, 무장간섭군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방위하며, 전화 속에서

참고자료

사람들을 재교양하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전쟁의 영웅들의 훌륭한 전형들을 창조해 내었다。쏘베트 작가들은 뜨로쯔끼적 문학과 기타 볼쉐위끼당에 적대적인 문학들과의 투쟁에서 창조적 성공을 거두었다。이 문학들은 볼쉐위끼를 악의로써 비난하며 우리 당의 활동을 의곡하여 서술하였던 것이다。

우리 문학이 만들어낸 주인공들은 공산당원들이었다。공산당원들은——「특수한 기질의 인간」이며、「로동계급의 아들이며、빈궁과 투쟁의 아들이며、믿을 수없으리만한 간난의 아들이며、영웅적 로력의 아들이다」——쓰딸린동지는 볼쉐위끼를 이렇게 불렀다。드·후르마노브의「차빠예브」에는 정치위원 끄르이치꼬브는 자기 계급과 자기 당의 가장 좋은 특질과 명백한 민족적 특성 즉 혁명적인 창발력의 대담성、용감성、명석한 지혜、불요불굴성、인내성、락천주의 등을 지니고 있는 전형적 로씨야 프로레타리아이다。그는 새 생활제모를 위한 투쟁의 조직자이며、또 차빠예브를 자애롭게 길러내며 붉은군대 대중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로련한 교양자이었다。

아·파제예브는 그의 작품「궤멸」에서 사회주의 혁명시의 당의 결정적 역할을 뚜렷하게 형상화하였다。이 작품은 브·이·레닌의 표현을 빌리면「자본주의에 의하여 교양을 받았으며 자본주의에 의하여 부패 타락되었으나 그러나 그 대신 전투에서 련마된」사람들의 손으로써 사회주의사회를 창건할 수 있는 것을 확증하는 데 그、전부를 바치었다。아·파제예브는 고리끼의 전통을 계승하며 그의 작품의 주요 주인공인 메빈손(빨찌산)부대의 사령관을 사상적인 사람、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써 형상화하였으며、그의 내부 세계와 투쟁목표와 그리고 승리의 길에 대한 그의 명확한 리해를 해명하였다。

므·숄로호브의「고요한 돈」은 쏘베트문학의 우수한 작품이다。그러나 지금까지 약간의 평론가들은 므·숄로흐브의 소설 가운데에서 전개되는 새 사람들의 전형이 가지는 의의를 과소평가하였다。그러나 미하일·끄세보이는 과연 위대한 력사적 사업을 수행하는 긍정적 영웅으로서 형상화되어 있지않는가。인민을 반대하는 에제호브가 정신적으로 빈약해지며、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반면에 볼쉐위크인 끄세보이는 물샐틈 없는 정력적인 활동가로 장성하는 것이다。작가의 혁신도 또한 그가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계급투쟁과 사회투쟁의 행정에서 볼쉐위끼가 형성되는 바로 그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곳에 있다。

볼쉐위끼——국내전쟁 시기의 활동가들——를 취급한 작품들은 쏘베트 주권을 위한 근로자들의 무장투쟁

이 가지는 영웅적인 페소스(감격)와 공산당원들에게 특징적인 혁명적인 창발력의 대담성을 강조하였다。우리 문학은 볼쉐위끼 즉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자를 형상화함에 있어서 볼쉐위끼적인 실무적 수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산당원에게 고유한 창조의 페소스를 보여주었다。

소설「쎄멘트」에서 인민경제 부흥을 지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형상화한 프·그라드꼬브는 그의 다른 작품——「에네르기」——에서 국내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볼쉐위크들의 투쟁을 보이어 준다。이 소설에서 당기관은 영웅적인 로력으로써 발전소 건설자들의 전집단을 지도한다。당비서 미론·바따긴은 실천적인 활동과 대중을 조직하는 과정 속에서 표현되며、결코 혁명전 문학에서 특징적이던 것과 같이「사업을 떠난」사생활 속에서 표현되지 않았다。꼴호즈운동의 조직자 끼릴·즈다로낀은 프·빤표로브의 소설「부르쓰끼」속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표현되어 있다。프·그라드꼬브와 프·빤표로브의 소설이 가지는 거대한 혁신적 의의를 리해키 위하여서 작품들이 새 인간을 무미건조한 실무가와 기계의 부속물로 묘사하려는 약간의 작가들(유·올레쉬의 작품、아·뿔라또노브의 단편소설)、또는 어떤 금욕주의자로 묘사하려는 작가들(골두노브의「괴·에스」)의 기도에 대치되는 점을 회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볼쉐위끼의 사상적 힘과 정신적 화려한 면모는 므·숄로호브의 소설「개간된 처녀지」에서 명백히 나타난다。이 소설의 주인공인 로동자 二만五천명·중의 한사람 다비또브는 농업의 집단화를 위한 투쟁에서 당 로선을 정확히 또 부단히 실행하는 전형적인 당의 대표자이다。그는 자기 사업에 있어서 레닌과 쓰딸린의 체계적인 로작을 지침으로 삼으며 볼쉐위끼——사회주의 건설자——의 타잎을 체현하고 있었다。일개의 고립된 공산당원이 형상화된 것이 아니라 당단체 농촌당원들——다비또브、나구리노브、라스묘뜨노브、꼰드라찌끄 및 기타 모든 당원들을 포함한 전 그루빠가 처음으로 예술작품 속에 그처럼 강력한 힘으로써 형상화되었다。

다비또브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의 볼쉐위끼적 당성은 빠벨·끄르차낀(느·오쓰또롭쓰끼「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특징과 같다。끄르차낀은 국내전쟁과 인민경제 부흥기의 조건 하에서 활동하였다。당의 전사인 그는 인민의 사업을 위한 투쟁과 공산주의의 건설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았다。그에게는 사회적 외무가 주되는 것이었다。「나에게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빠벨은 구역당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나는 고독하게는 살 수 없다」공산주의적 세계

관은 끄르차낀으로 하여금 로동자의 사업을 위한 열정적인 확고부동의 투사가 되도록 만들었으며 그에게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장애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쏘베트 문학은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헌신적인 무수한 투사들의 전형들을 창조하였다。 공산당원들—즉 파시스트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쏘베트 사람들의 투쟁의 지도자들—의、전형은 이 시기 문학작품들 속에서 첫 차례를 차지한다。 브·그로쓰만의 중편소설 「인민은 죽지 않는다」와 브·고르바또브의 중편소설 「정복되자 않는 사람들」에서는 적에 대한 전 인민적 저항의 조직자이며, 또 대담성과 용감성의 표본인 당일꾼들이 묘사되어 있다。 전시의 다른 작품들도 전투 속에서 발휘하는 공산당원들의 전위대적 역할을 형상화하였다。 공산당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쏘베트·전사들로 하여금 공훈을 세우도록 고무하였다。 이것은 므·쏠로호브의 시작소설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싸웠다」에서 묘사되었다。 조국을 위한 투사들의 선봉이는 공산당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것은 아·꼬르네이츠끄의 희곡 「전선」과 끄·씨모노브의 소설 「낮과 밤」과 희곡 「로씨야 사람들」, 르·레오노브의 작품 「습래」, 「베리꼬숍쓰끄의 점령」 및 기타 작품들에서 묘사되어 있다。

쏘베트 문학은 조국전쟁의 영웅 공산당원들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그들의 생을 창조하는 애국심과 공산주의적 의식을 강조하였다。 이、사람들은 헌신적인·불요불굴한 훈련된 조직적인 사람들이었다。 불쉐위크들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쏘베트 애국심의 정신을 넣어주었다。 이 쏘베트 애국심이야말로 미증유한 대중적 영웅주의의 원천으로 되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정、사회주의의 원쑤에 대한 격정적(激情的)인 증오、당사업에 대한 확호부동한 신뢰、이러한 모든 성격은 쏘베트 문학의 우수한 작품에 나오는·주인공들 즉 볼쉐위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다。

× × ×

쏘베트 문학 발전의 현단계는 공산당원들—당 및 경제일꾼들—을 형상화하는데 커다란 성공을 거둔 점이 특히 주목할만 하다。 우수한 소설 중편소설 및 시들에 나오는, 공산당원들은 정신적으로 풍부하며, 또 쏘베트·애국자들의 가장 좋은 특질들을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성격과 의지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옳게 형상화되고 있었다。

현명한 볼쉐위끼 정책과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는 쏘베트문학의 새로운·성공을 보장하여 놓았다。 잡지 「별」과 「레닌그라드」에 관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의 결정과 드라마극장의 레파토리 및 영화 「거대한 생활」 및 브·무라제리의 오페라 「위대한 친선」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결정은 사회주의·건설의 완성된 조건 하에서 또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 쏘베트예술이 발전하여야 할 옳은 길을 가르치어 주었으며, 또 예술일꾼들이 현시대를 형상화하며 쏘베트제도의 우월성과 쏘베트사람들의 새로운 고상한 특질들을 반영시키도록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아·스다노브는 잡지 「별」 및 「레닌그라드」에 관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동지、문학 지도자나 작가가 다 같이 쏘베트제도의 존재의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정책으로서 자기의 지침으로 삼으며、청년을 무관심주의와 무사상성의 정신으로써 교양시킬 것이 아니라 쾌활한 혁명적 정신으로써 교양할 것을 요구한다」。

당은 예술에 대한 허위적 적대적 견해를 무자비하게 비판하며、또 예술가들이 우리의 발전과정의 본질 속에 침투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쏘베트인민의 생활을 옳게 그린 화면은 그의 정책이 쏘베트 제도의 사활적 기초로 되는 볼쉐위끼당의 역할을 심각하고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파제예브의 소설 「청년근위대」에 관한 당의 지적은 쏘베트 예술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유명한 작품에서는 진리가 망각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작품은 청년들을 고무 지도하는 현명하고 대담한 지하운동의 조직자인 공산당원들의 진정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까닭이다。 쁘·베로시고로의 소설 「순결한 량심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문화와 생활」지의 론문은 이 작품이 빨찌산 운동 조직에 있어서의 당의 결정적 역할을 보여주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최근、년간에 불쉐위끄들을 형상화하는 작품의 수가 일층 증대되었다。 볼쉐위크들은 많은 작품 속에서 중심인물로 되었다。 비록 공산당원이 주된 주인공이 아닌 작품일찌라도 공산당원은 사건의 발전과 기타 인물들의 운명에 대하여 비상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작품들이 또 다시 쏘베트국가 력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들을 서술하기 시작하였다。 二十년대 초에 끄·페진은 국내전쟁 시기의 볼쉐위크들의 활동을 옳게 형상화하지 못하였다。 그는 소설 「도시와 해(시대)」의 주인공을 내용없는 비활동적 인물로서 묘사하였다。 현재 당성의 레닌적 원칙으로써 무장된 작가는 새 방법으로써 력사적인 사전들을 옳게 리해케 되었다。 끄·페진은 소설 「이례(異例)

의 「여름」의 주인공인 공산당원 이스베끄브와 라고신을 장래를 위하여 싸우는 열렬한 투사로서, 또 정신적으로 풍부하고 다면적인 사람으로서 묘사하였다。작가는 그들의 활동면을 보이어 주며, 또 그들의 내면적 생활을 묘사하면서 쏘베트 애국자들의 고상한 사상과 감정을 밝히었다。그들에게는 쏘베트 조국의 운명이 무엇보다도 더 귀중하였다。그들의 천직은 ―「사회를 건설하며, 세계를 창조하며, 생활을 개조」하는 것이었다。끄·페진은 불쉐위크들의 전형 속에서 새 인간의 특질들을 강조하였다。그는「장래성 많은 사람을 그의 로동 속에서, 인민에 대한 복무 속에서…」시(詩)로 불렀다。

뜨·쏘무쉬끼나의 소설「아리쩨뜨는 산으로 갔다」는 추끄트인민의 자유로운 사회주의 생활에 참가한 로찌야 불쉐위크들의 영웅적 사업을 주제로 하였다。

불쉐위끼―쏘베트국가의 건설자―의 전형은 쏘편의 모든 인민들이 가지는 작가들의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뚜르끄멘 공화국의 작가 브·께르바바예브는 소설「결정적 일보」에서 쏘베트국가를 위한 인민적 투쟁의 조직자―공산당원에 대하여 커다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아디끼 산문작가 뜨·께라셰브의 소설「행복에의 길」에서는 불쉐위끼가 고상한 사상을 가진 광범한 대중의 교양자로서 묘사되었다。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인민들의 열복(悅服)은 라뜨비야 작가 안나·싸끄세의 소설「산 위에서」와 젊은 에쓰또니야 작가 한쓰·례뻬례흐뜨의 중편소설「끄르지의 광명」에서 나타난다。이 작품들과 기타 여러 작품들에서는 불쉐위끼당이 령도하며 인도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 창조는 현실을 개조하는 력사적 과정의 주도력량으로서 나타난다。

자본주의세계 사람들에 대한 쏘베트애국자의 무한한 사상적 및 도덕적 우월성, 공산주의 사상과 부르죠아 사상 간의 투쟁, 사람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 잔재와 타락한 코스모폴리찌즘 사상과의 투쟁에 대한 주제는 아·야꼽쏜의 솜찌있는 희곡「전선없는 투쟁」, 브·르마쇼브의「위대한 힘」, 아·쉬제인의「명예의 법칙」및 기타 작품에서 뚜드러지게 표현되었다。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당이 수행한 지도적 향도적 역할을 형상화할 과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반사적(反射的)인 영웅들을 묘사하며, 사회로부터 고립된 인간의 한구석 비인 심리의 묘사에 몰두하라고 부르짖는 코스모폴리찌스트―평론가들과는 반대로 우리 문학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선진적 사상적 투사인 불쉐위끼의 특질들을 그들의 사업을 통하여 또 광범한 대중들과의 밀접한 련계 속에서 또 대중의 조직자가 가지는 특수한 성질들 속에서 개진(開陳)하였다。

인민과의 친근성에 대한 의식과 대중을 인도하는 수완,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끄를로브(「크리미야의 지하운동」)와 아·표도로브(「지하주(州)위원회는 활동하고 있다」)의 수기 속에 있는 영웅―불쉐위크들의 능동적 목적, 의식적 성격의 주요 특질을 이루고 있다。공산당원들의 힘은 그들이 대중과 밀접한 련결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고상한「정신상태」를 가지도록 만들며, 또 그들에게 정신적 에네르기의 위력있는 탄약고를 제공하면서 대중의 선두에 서서 걸어가는데 있는 것이다。

다른 예술 작품들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또한 불쉐위끼 사상의 구현자로서 나타난다。브·뽈레브의「참다운 사람의 이야기」중에 나오는 정치위원 쎄묜·보로비요브는 쏘베트 병사를 교양하는 사업에서 성격의 가장 좋은 면을 나타낸다。그는 알렉쎄이·메레쎄브에게 구、로씨야군대의 비행사의 공훈을 이야기하여 주어 알렉쎄이의 가슴 속에 쏘베트 국민의 긍지감을 일으키어 주며, 또 메레쎄브에게 쏘베트 애국자의 위업을 상기케 함으로써 그는 알렉쎄이·메레쎄브로 하여금 전투대렬로 돌아가게 하는데 성공하였다。「그러나 당신은 쏘베트 사람이다!」―보로비요브는 이렇게 말하였다。정치위원은 죽었다。그러나 그는 메레쎄브와 그리고 불길을 뿜는듯한 불쉐위끼의 형상,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이 형상을 의식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이 소설의 다른 인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베료쯔크의「사령관의 밤」도 일견 이와 류사한 립장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보로비요브의 성격은 그의 사업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또 그들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개진되는데 반하여 그·베료쯔크의 중편소설 속에 나오는 갈등은 정신적 심리적 면에서 발전되며, 또 옳게 해결되지도 못하였다。늙은 불쉐위크 사령관 라비닌은 군사령부와 같은 복잡다단한 기구의 조직자이며 지도자로서 묘사되지 못하였다。중상을 입은 후 그는 부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작전을 지휘한다。그는 치료를 거절하고 죽음의 운명에 내맡긴다。

므·부벤노브의 소설「벗나무(白樺)」에서는 공산당원들―즉 대렬의 병사(빼뜨레이·유르긴) 사령관(소좌 오쎄로브), 정치일꾼(정치위원 야흐노)―의 훌륭한 형상들이 묘사되어 있다。공산당원들은 전투의 선두에 서서 나아가며, 자기 뒤에 광범한 대중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대담하고 로련한 전사들으다。야흐노는 정신적 요인을 승리를 거두는

결정적 조건 중의 하나로 보았다。승리를 거둔 첫 전투가 끝난 다음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지금 우리는 독일군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알았다。한번 우리가 이것을 안 다음에는 우리는 넉넉히 놈들을 조지(阻止)할 것이다!」사상적이며 의지적 인간인 야흐노는 공산당원들이 항상 적위대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어 있었던 까닭에 그는 단순히 사건의 꽁무니를 따라다닐 수 없었다。야흐노는 사령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친애하는 동무 아십니까? 나는 꽁무니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모든 사람의 꽁무니에 끌려다니는 것은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보로비요브、야흐노、및 기타 조국전쟁의 영웅들은 끄르이치끄브나 레빈쏜과 동일한 전투적 불쉐위끼 근위대이다。이와 동시에 그들은 새 특질을 갖춘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써 대중과 상호관계를 맺는 새 시대의 사람들이다。끄로이치끄브와 레빈쏜은 낡은 제도 밑에 억눌려있던 사람들을 창조적 생활에 들어서도록 높이어 주며、그들에게 사회주의「원리」를 가르치며、그리고 자기 부하들과의 상호관계를 조심성있게 조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야흐노와 보로비요브는 이와 다른 력사적 조건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그들의 주위에는 사상적으로、또 조직적으로 단결된 쏘베트 군대、병사의 집단과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의 학교를 졸업하였으며、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그러므로 당일꾼들의 과업은 인민의 힘을、통일시키며、또 사회주의 조건 하에서 자라난 쏘베트 사람을、일층 제고시키어 주는 것이다。

지도자들 자체의 형상들도 변경되었다。그들은 사회주의 국가 관리에 대하여 견실한 경험을 가진 고상한 문화정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다。우리 문학에서 형상화된 공산당원들——즉 조국전쟁의 영웅들——중에는 거물의 경제일꾼들(프・판표로브의 소설「평화를 위한 투쟁」속의 끄라블료브)、학자들(브・끄르쓰만의 소설「인민은 죽지 않는다」속의 보가료브) 및 당과 쏘베트의 간부일꾼들(아・표도로브 및 이・끄슬로브의 소설 속에) 등등이 있다。

쏘베트 작가들은 공산당이 여하히 인민으로 하여금 자본주의 사회에 비한 사회주의 사회의 무한한 우월성에 대한 자각심을 가지도록 부단히 교양하는가를 보이어 준다。쏘베트 국가 발전의 제알 국면기(局面期)의 문학이、아직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강력하고 완벽하게 사회주의사회 사람의 특질을 개진(開陳)할 수 없었던 것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현재 작가들은 쏘베트 사람의 정신

적 완벽성과 화려한 면모를 전하며 우리 사람을 자본주의 세계의 사람들과 직접 대비시키어 보여 주려고 노력한다。

아・꼰차르의 소설「기수」에서는、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 의식하며、광휘스럽고 고귀한 사상을 서방에 가져다 준、쏘베트 전사들의 사상적으로 단결된 집단을 훌륭히 형상화하였다。작자는 련대 정치부 부사령관 보론쪼브 소좌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였다。소설의 첫 두부에서、보론쪼브는 벌써 군관、및 병사들에게 쏘베트 국민의 긍지를 넣어 주는 능숙한 교양자로서 나타난다。그는 루차 쏘베트 사람의 고상한 위치를 인식하도록 일깨워 주었다。까사끄 병사에게 포로된 항가리 대위가 쏘베트 군조에게 감사를 꼭 드려야만 하겠다고 간청할 때에 보론쪼브는 이렇게 말한다。「당신을 포로로한 이 군조가 어떠한 사람인지 당신은 잘 아십니까?——보론쪼브는 거의 혼잣말로、마치도 대위에게 극비의 사실이나 이야기하듯이 중얼거렸다——돈바쓰 탄광부、쓰딸린그라드 사람!……아십니까? 구라파의 구원자、세계 문명의 구원자……과연 그는 당신의 존경을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三부작의 제一부에서는 가끔 무내용한 제스츄어적인 것이 튀어나오며、보론쪼브나 기타 인물들의 담화가 항상 생생한 생활 환경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 못된다。아・꼰차르는 현실을 묘사하는 레알리스트적 원칙을 심화하여야 할 것이다。三부작의 제三부、즉「프라가의 금」은 이러한 방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이곳에서는 보론쪼브의 교양자적 역할이 더 한층 훌륭히 나타난다。왜 그러냐 하면 이곳에서 그의 발언과 사상과 체험에 알맞는 그의 구체적 행동을 보여 준 까닭이다。우리 상층부대의 작전을 그린 극적 장면에서는 쏘베트 전사의 정신적 결을 견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불쉐위끼 당일군의 역할이 특히 일목 료연하게 나타난다。전장의 전투는 대단히 가렬하였다。그러나 보론쪼브는 전장에서 도피하려하지 않았다。그는 잘 알았다。「세계의、다른 어떠한 나라 군대의 가장 우수한 련대일찌라도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또 그 저주할 재방 위에서 견디어 낼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자기 련대——쏘벨쓰끼——는 이를 능히 지탱해 내지 않았는가、쏘벨쓰끼는 반드시 다른 척도로써 재어야 할 것이다。새 척도로」。전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 보론쪼브는 기수를 불렀다。기발의 출현은 전사들의 애국적 정신을 더 한층 앙양시키었으며、그들을 고무하며、승리의 전투에로 나서게 하였다。

보론쪼브는 그외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항상 당

조직에 의거하고 있었다。그는 결정적인 전투지대에는 반드시 공산당원들이 참가하도록 류의하였다。알프스로 진격하던 전날 밤、소좌는 공산당원과 공청원들을 소집하였다。알프스에서는 따로따로 그루빠를 짜가지고 행동을 하여야만 하였다。소좌는 「공산당원이 매개 그루빠에 반드시 끼우도록 사람들을 배치하였다。…… 바로 공산당원이야말로 이 그루빠의 원기를 돋구어 주며 항상 병사의 높은 전투심을 유지하여야 한다」보론쪼브는 진군 시에 선두 대렬 속에서 행군하며 전사들을 고무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었다。숙영 시에는、소좌는 병사들 속에 들어앉아 우리 조국과 그리고 쏘베트 병사가 외국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명에 대하여 그들과 담화를 하였다。

브라니 전야에서 영웅적 전사를 한 훌륭한 청년 포수 브란쓰끼는 소설 속에서 진정한 애국자로 묘사되였다。보론쪼브는 그의 교양자이며 선생이였다。「그는 브란쓰끼와 함께 쓰딸린그라드로부터 왔다。그는 브란쓰끼를 당에 추천하였다。보론쪼브는、마치도 자기가 난 자식과 같이 이 젊은、천품있고、열정적인 군관이 어떻게 장성하고 있는가를 주시하였다」호마・하예쓰끼도 또한 보론쪼브가 교양시키어 내었다。보론쪼브와 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탐식(貪食)하듯이 귀기울여 들은 하예쓰끼와의 사이의 기지(奇智)에 찬 회화(會話)──「토론」이 회상된다。「보론쪼브는 이 토론이 대렬의 병사들 속에 침투시키는 교양사업 중의 한 형태이라고 생각하였다。당 간부 일군인 그는 병사들의 마음 속으로 통하는 수천갈래의 길을 알고 있었다。하예쓰끼도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소좌의 사업을 원조하였다」호바와 또 그를 이미「사회주의의 아까데미」를 거쳐온 자기의 선생으로 생각하는 외국 농민과의 담화가 회상된다。

보리비요브、야호노、보론쪼브와 같은 사람들의 사상과 사업은 고상하며 고귀하다。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훌륭한 결과──즉 쏘베트 애국자들의 장성을 리해한다。그들의 전후 생활에 대한 숙망은 전 인민적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결합되어 있다。이에 관하여서는 므・부벤노브와 아・꼰차르의 소설의 주인공과 브・오베츠낀의 중편 소설「전선으로부터의 인사」속에의 주인공들이 말하여 준다。

× × ×

쏘베트작가들의 우수한 작품들 속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는 위대한 과정과 또 쏘베트 국가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점차적인 이행을 하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전후 시기의 문학은

쏘련의 사회주의 사회 내에 있는 공산주의의 특색들을 보여 준다。이 시기의 문학은 공산당원을 새 생활의 건설자、대중을 쏘베트 애국주의 정신으로써 교양시키는 교양자로서 형상화한다。

쁘・빠브렌꼬의 소설「행복」에서는 공산주의에로 향하는 인민의 운동과 또 그 참가자들에게 거대한 개인적 만족을 주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행복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선에서 받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보로빠예브대좌는 전렬(戰列)로부터 떨어져 이제까지의 생활환경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四十三세에 난 병자인 그는 무거운 다리를 끌고 괴로운 기침을 하면서 크리미야 해안에로 떠났다。「나는 비행기로부터 떨어져 나오듯이 행복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왔다。──보로빠예브는 우울하게 말하였다──모든 것은 저곳(전선)에 남아있다。영광도 동지도 그리고……또 모든 것이 모든 것이……」그는 휴식과 해안의 조그마한 집을 그리워해보았다。그러나 볼쉐위끼인 보로빠예브는 곧 속된 행복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그는「주택을 찾을 대신에 사람들을 찾았다。……문제는 그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문제로 되었다」「보로빠예브는──모든 사람을 위한 사람이다」──꼼꼬브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이 소설의 주인공의 성격을 이 이상 더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선전사업에 착수하여 공동사업에 몰두한 보로빠예브는 아픔도、괴로운 명상(瞑想)도 다 잊어버리였다。

쁘・빠브렌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수성──즉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한 집단 내에 있는 공산당원과 비당원 간의 혈연적인 친목(親睦)──을 보여준다。이 소설의 작자는 공산당원과 비당원의 화합(和合)을 묘사하면서 이에 있어서 당의 지도적 및 조직적 역할과 또 모든 인민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장성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다。

쓰딸린 동지와 보로빠예브와의 회견을 묘사한 장면은 이 소설의 사상적 중심을 이루고 있다。이 장면에서는 제 인민의 천재적인 수령──쏘베트 사람들로 하여금 영웅적 창조적 로력에 종사하도록 일깨워 놓는 쓰딸린 동지──이 창조력을 일깨워 주는 위대한 역할을 보여 준다。이 장면에서 쓰딸린 동지는 집단에 의거하며 자애롭게 쏘베트 사람들을 양육할 것을 가르친다。보로빠예브와의 담화에서 한 쓰딸린 동지의 말들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만일 이・보드네뻬쓰꼬와 같은 사람들에게……힘을 준다면──잘 발전할 것이다。……물론、이 힘을 정확히 돌린다면」

쓰딸린 동지는 일꾼들의 모든 재능을 발전시키며, 또 「매개 일꾼이 그의 개인적 자격으로써 줄 수 있는 모든 것의 최대한의 것을 우리의 공동사업에 줄 수 있도록……」 그들을 배치시킬 것을 가르친다. 쓰딸린 동지는 一九三四년에 야금학(冶金學)자들의 취급방법에 대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매개의 유능하고도 총명한 일꾼을 애끼어야 한다. 마치도 원예사(園藝師)가 사랑하는 과수를 길러내듯이 사람들을 자애롭게, 또 주의깊이 길러내야만 한다」

보로빠예브는 자상하고 자애스러운 로련한 교양자이었다. 그는 주의깊게 끌호즈원 이주민들을 자세히 살피어 그들의 능력을 밝히어 주며, 매개 끌호즈원에게 그가 가장 많은 리익을 공동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결정하여 준다. 찜발은 실험사업을 개시하였다. 비똘·오가르노브는 훌륭한 대장(隊長)으로 되었다. 유리·뽀도네베쓰끄는 강습을 필하고 보로빠예브와 교대하여 지구(地區) 선전원으로 되었다.

보로빠예브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재능을 길러내면서 전체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보로빠예브의 철저한 사상과 정신적 견고성과 그리고 근기(根氣)는 그의 주위에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들은 보로빠예브에게 그들이 가지고 싶은 기질들이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인민과의 련계야말로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쉐위끼는 인민 속으로부터 나온 인민의 아들이며, 인민을 위하여 싸우며, 또 항상 인민의 위력과 지지에 의거하고 있는 인민의 아들인 까닭이다. 보로빠예브는 자기의 운명을 전체 인민의 운명에 합류시키며 인민에게 많은 기여(寄與)를 하며, 또 자신 「생활과 인간의 원천」에 가담하면서 전체의 행복 속에서 자기의 개인적 행복을 발견하였다. 보로빠예브가 끌호즈원들로 하여금 포도원을 다시 파내는데 성공하던 날 밤부터 벌써 「그는 전선(戰線)으로부터 돌아온 이래 처음으로 돌연히 인간을 행복케 하며, 안락케 만드는 흥분과 만족과 확신을 느끼었다」 소설의 주인공은 자기의 능력을 인민에게 충분히 바치는 행복,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 로력이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공동사업에 기여됨을 깨닫고 고상한 만족을 느끼는 행복을 투쟁과 근로 속에서 얻는다.

불쉐위끼인 보로빠예브의 운명은 쓰딸린 동지의 연설 가운데에 나오는 시적(詩的) 전형을 회상시킨다. 「나는 생각컨대——쓰딸린 동지는 이렇게 말하였다——불쉐위끼는 희랍 신화의 영웅 안떼우스를 회상시킨다. 불쉐위끼는 안떼우스와 마찬가지로 자기 어머니 즉 자기를 낳고 양육하고 교양시킨 대중과 련계를 가짐으로써 강력해진다. 불쉐위끼는 그의 어머니 즉 인민과 련계를 유지하는 한 필승의 힘으로 남아있을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보로빠예브가 대중과 밀접히 련결되어 있는 사회활동가—일꾼이며 인민을 공산주의 정신으로써 교양하는 교양자인 반면에 구역당 비서 교로이또브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새 것에 대한 감각을 잃은 생활로부터 떨어진, 또 그러므로 장성하는 인민의 창발성을 지지해줄 줄 모르는 행정원으로써 묘사되었다. 그에게는 령도정신(領導精神)이 전연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의 뒤를 따르지 않고 보로빠예브의 뒤를 따랐다.

전후 시기의 문학에는 소설 「행복」의 작자의 마음을 잡아 흔드는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그것은 전후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당일군을 작품의 중심 주인공으로서 형상화할 문제이었다. 그것은——주인공의 성격을 창조적 로력과 사회적 활동 속에 개진하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불쉐위끼를, 매개 개별적 인간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자애롭게 길러내는 활동 속에서 형상화하려는 것이다

× × ×

전전 시기의 문학은 사회주의적 로동 과정에서 새 인간이 형성되는 것, 새 인간을 새 사상과 품질과 습성으로써 교양하는 것과 사람들을 개변시키는 과정에 있어서의 불쉐위끼의 결정적 역할을 묘사하였다. 현시 작품들에서는 벌써 선진 쏘베트 사람들에게 필수 생활조건으로 되어 있는 자유로운 창조적 로력이 가지는 행복이 묘사되었다. 문학이 일찌기 우리 인민의 건설적 로력의 화려한 면모와 시적 정경을 그와 같이도 힘차게 묘사한 적은 그 어느때도 없었다. 예술가들은 불쉐위끼를 로력에 대하여 공산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표본으로, 또 조국의 번영을 위한 영웅적 사업을 행하는 전형으로 본다.

쏘베트 작가들은,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로력의 사회주의적 본질을 내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쏘베트사람의 개성을 우선 로력과 집단에 대한 그의 태도 속에서 보여준다. 이러한 취급방법은 완전히 옳은 것이다. 보·므·몰로또브 동지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현대 쏘베트 사람들의 정신적 면모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적 중요사업과 쏘베트 국가 앞에서 지는 진정한 의무에 대한 자각적 태도와 함께 자기의 로력에 대한 자각적 태도 속에서 나타난다」

공산당원들——브·갈린의 스케취문 「어느한 주민구에서」의 주인공들——의 사업 작풍은 곧 그들 매개

람으로 묘사하며 공산주의 사상이 가지는 위대한 동원력을 보여준다。예고로브는 항상 배울 시간을 마련하였다」——「이것은 그의 심정의 요청이였다」야흐노와 보론쪼브는 그들의 높은 교양으로써 탁월하였다。보론쪼브는 구역당 선전원이었다。브·빠노바의 중편 소설「동행인(同行人)」중에 나오는 다니로브는「항상 사업에 몰두하여 배울 시간이 남아 있을 것같이 보이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그 무엇인가 배웠으며, 사실에 있어서 많이 알고 있었다」브·아사예브의 소설「모쓰크바로부터 먼곳」의 주인공——바뜨마노브와 살깐드는 전면적인 교양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젊은 원동(遠東) 작가 아·쁘리쉬원의 중편 소설「제이 강변에서」의 구역당 비서 불끄브는 끌호즈원에게 말한다。——「지식이 없으면 공산당원이 아니다」현대문학의 주인공들——공산당원들은 높은 리론적 수준이 전쟁전 시기의 작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다르다。전쟁전 시기 작품의 주인공들은 그처럼 단련된 당원들이었으며, 비록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써 특징적이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깊은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다。문학은 생활 속에 일어난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였다。현재 우리 당 내에는 심각한 맑쓰—레닌주의적 교양을 받은 무수한 간부 당원들이 있다。그들은 예술작품들에서 전체 쏘베트 사람들의 모범으로 묘사되었다。

끄르이또브(브·빠블렌끄의「행복」)및 우스제츠깐(브·빠노바의「끄루질리하」)의 전형은 사상적 면에서 장성치 못한 공산당원들에게 대한 중대한 경고로 된다。그들은 학식이 없고 생활로부터 뒤떨어져있는 까닭에 지도자로 될만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브·갈린의 스켓취문에 나오는 쁘리호지끄아들도 자기의 행세 즉 자기 교양의 착수를 리행치 않는 때에는 이와 같은 위험에 떨어질 것이다。

당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와 완수와 공산주의로의 점차적 이행을 위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쏘베트 사람들을 그들이 조국 앞에서 지는 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적 정신으로써 또 생을 창조하는 쏘베트 애국주의의 정신으로써 교양하여야 할 필요성을 특히 강력히 강조한다。브·몰로또브 동지는 제十八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교양적 성격의 과업,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할 과업이 전면에 나선 시대가 왔다」

브·갈린은 쏘베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불쉐위끼의 로련한 수완을 대중의 창조적 정력을 앙양시키며, 쓰따하노브 운동을 광범히 전개시키는 수단으로서 묘사하였다。구역당 선전부원 끈쓰딴찐, 빤쩰예브는 석탄채광부 레고쓰따예브이「타면(惰眠)을 깨울」목적으로서 그의 소속 대

인의 생활 작풍이다。늙은 광부 쁘리호지끄——아버지가「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의하여……그가 어느 곳에서 생활의 의의를 찾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또 감각할 수 까지도 있다」고 말한 것은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이 스켓취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의 생활에서 각자의 정치적 및 실무적 자격과 지식과 시야와 진취적 기상에 적합한 자리를 차지한다。

브·갈린이 묘사한 두 구역당 비서——예고로브와 쁘리호지끄는 당사업에서 그들의 생활의 의의를 찾았다。그러나「이 당일꾼들은 성격과 기질에 있어서, 생활현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각이하였다」예고로브는 넓은 시야와 많은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므로 그는 구역의 지도자 즉 구역당 제一비서의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었다。예고로브와 쁘리호지끄의 기본적 차이는 브·갈린은 이렇게 썼다——「바로 예고로브가 아주 조그마한 문제 속에서도 주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았으며, 심지어 그보다 몇배 적은 기술적 문제에서 까지도 정치적 핵심을 발견할 줄 알았던 곳에 있었다」예고로브——「그는 구역의 뇌수이며 정신이었다」「침착하고 끈기있고…… 탐구하며 사고하는」사람인 그는 주의깊게 생활을 연구하여 새 것을 찾으며, 또 그 힘을 빌어 비약적 발전을 성취시길 수 있는 예비력을 탐구하였다。구역당 비서는 레고쓰따예브의 혁신적 경험을 받아들이었다。석탄채광부의 보고를 구역당에서 진행한 후 락후한 탄광에서 그의 강의를 하도록 조직하였다。예고로브는 레고쓰따예브적 방법들을 선전하는 것이 제一차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다。왜 그러냐 하면 이 방법들은 탄부들에게 거대한 전망을 열어주는 까닭이다。

쁘리호지끄는 다른 타잎의 사람이었다。그것은 그의 천성이 다른 까닭이 아니라 사상적 면에서 아직도 예고로브가 도달한 견지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다。그는 시야의 넓이에 있어서 예고로브에 뒤떨어지며, 생활현상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취급의 수완에 있어서 그만 못하였다。「조잡하고 무미건조한」쁘리호지끄는 자기 구역을 사랑하며 잘 알았다。그러나 학식이 적은 그는 아무러한 넓은 전망도, 또 생활을 깊이 투시(透視)하는 습관도 가지지 못하였다。그러므로 그는 가장 복잡한 생활현상들에 대하여…… 단순한 타산으로써 접한다。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단과 성격규정도 대단히 일면적이었다。즉「우리 사람」또는「정직한 근면자(勤勉者)」이었다。

브·갈린의 스켓취문도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불쉐위크들을 훌륭히 리론을 소유한 사

원들 속에 고상한 「창조의 씨」를 소생시키며, 또 그들에게 공동적 운동의 목적과 그들의 로동이 가지는 국가적 의의를 가르치어 주었다。 례고쓰따에브는 빤셀예브와 여러 차례의 담화의 결과로서 새로운 쓰따하노브적 사업방법의 솔선자로 되었다。

「어느한 주민지구에서」의 작자는 로동생활과 생산활동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쏘베트 사람들의 성격의 특질들을 묘사하는데 성공하였다。 로동외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관계에서 공산당원들을 묘사한 것도, 대단히 류창하다。

생활의 이 방면은 브·빠노바의 소설 「끄루질리하」에서 훨씬 상세히 취급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생산운동 뿐만 아니라 작중 인물들 간의 개인적 상호 관계에 까지도 많은 관심을 돌리었다。 이 녀류작가는 매개 개별적 인간의 전진운동의 길에 관하여 각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 리쓰또빠트의 어머니는 작자의 사상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매개인은……각자 자기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 그러나 동일한 넓은 길에 나선다。 대로(大路)는 하나이다。 그러나 소로(小路)는——수백만 수천만이다。 소로는 라진쓰고 동맹 내에 있는 사람의 수만큼 있다」

공산당원——지도자들——주 공장지배인 리쓰또빠트 공장위원회 대표 우스쩨츠낀 및 당위원회, 비서 라부힌——간의 관계가 소설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리쓰또빠트에게는 사업은 그가 타고나온 자연 상태이며 완전무결하고 총명하고 행복한 생활 그 자체이였다。 결코 감상적이 아닌 리쓰또빠트는 다정스럽게 공장을 생각한다。 「……나의 임무는 지상에 있다。 나의 사랑하는 끄루질리하」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로동에 대한 창조적 태도이라고 생각하면서 브·빠노바는 성실한 사람이며 공장을 사랑하나 그와 동시에 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체된 우스쩨츠낀에 비하여 리쓰또빠트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녀류 작가는 자기의 주인공들이 더욱 장성하고 완성되기를 원하는 까닭에 그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 × ×

폭넓은 전취적 기상의 사람, 공산주의적 앞날(來日)을 갈망하며, 또 실제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줄 아는 사람, 부단히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 자각의 정신으로서 교양하는 사업을 실행하며, 또 의식 속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의 잔재와 타협없는 투쟁을 하는 사람——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현대의 영웅 공산당원들이다。 그들은 당 초급단체 위원장, 쩨므노브(느·그리바쵸브 「승리의「봄」」)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창조적 사업과 공산주의를 생각한다。 생활에 대한, 볼쉬위끼의 창조적 태도는 아·구쩨쇼브 「새로씨야」의 시에서 훌륭히 묘사되어 있다。

「공산주의자!
이러한 대답으로써
우리는 맹세를 한다
우리와 또한 그대들에게……
공산주의자——어느곳에서도 그는
편안을 찾지 않으려
뒤끓는 전투와 투쟁 속
빛나는 로동 속에 그는 있으리
찬란한 앞길은
그를 인도하나니
멀고 빛나는 곳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다 공산주의자로 되리라……」

구역당 비서 알렉세이 로고브(느·빌따의 희곡 「광폭은 우리에게 긴요한 것」)는 장래를 내다볼 줄 알았다。 그는 대단한 계획성을 가진 그리고 전국적 규모의 고찰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선견지명을 갖춘 실무적인 일군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감격적이나 그러나 실천이 적은 꼬바료브와는 달랐다。 당정책에 대한 심각한 리해, 새것에 대한 감각, 폭넓은 갈망, 실천적인 약동하는 생기——바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쓰·바바예브쓰끼의 소설 「금별(金星)」의 기사(騎士)」의 주인공 쎄르게이·뚜따리노브의 전형이 흥미롭게 한다。 그는 전국적인 규모의 견지를 취하며 오직 「자기」 꼴호즈적 규모에서 고찰하려고 하지 않았다。 쎄르게이는 린접 꼴호즈에 대한 원조를 조직하였다。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는 전구역 꼴호즈원들의 힘에 의거하였다。 그는 지방주의적 정신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 그는 공동적 리익을 위하여 살며, 일상적으로 당로선을 실천하며, 당의 정책을 위하여 투쟁하며, 그가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낡은 의식의 잔재를 극복시키며, 그들을 당의 사상으로써 고무한다。

지금까지도 지난 날과 같이 살며, 그러므로 대중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사람을 자기 「기관」의 범위를 조금치도 벗어날 줄 모르는, 그러므로 혁명적 전망을 잃은 사람들은 전진에 대한 불쉬위끼적 갈망을 상실하고 있다。

쓰·바바예브쓰끼의 소설의 구역 집행위원회 위원장 호흘라끄브는 적지 않는 공훈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당에 충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평화시기를 마치 우리의 발전이 일시 정체되는 시기, 즉 가혹하던 전쟁이 끝난 후의 휴식시기로 생각하였다。 호흘라끄브는 뚜따리노브

의 계획을 반박하고 발전소 건설을 거부하였다。「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상처를 치료치 못하였다。——그는 이렇게 말하였다。——우리는 전쟁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그때까지에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는 당장 래일에 극장、공원、발전소、그리고 각종 어류(漁類)를 달라고 한다」 호흘라꼬브에게는 자기가 그 지구의 유일한 권력자이며、주인인 것같이 느끼어지는 「자기」 지구만이 존재하였다。 그는 집단과 꼴호즈원들의 요청을 고려하려 하지 않았다。

최근의 다른 작품들도 이와 류사한 립장을 취한다。 느・빌따는 뜨벨도바의 형상(「량곡은 우리에게 긴요한 것」)을 통하여 지방주의의 해독、즉 그 소지자가 끊임없이 반사회적 분자들의 수중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정치적 시야의 결여는 꼴호즈 위원장 부벤쪼브(유・라쁘쩨브의 「려명(黎明)」)및 끄라쓰노뽀로브(예・말리쩨브의「모든 심정(心情)을 다하여」)의 결함이였다。 그들은 린접 알쩰리에 대한 원조를 거부한 까닭에 전체 꼴호즈원들의 일치한 비난을 받았다。

전국적 규모의 고찰을 하는 사람과 「지방장관적」 지도자와의 사이의 갈등은 아・쏘프로노브의 희곡 「모쓰크바 성격」에 반영되어 있다。 공장 지배인의 자리에 우쭐한 뽀따뽀브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다」 그리하여 「공장의 승리는 우리 당의 정책의 승리가 아니라 뽀따뽀브의 개인적 승리」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는 「공동적 조류로부터」 떨어져 나와 공산당원의 특색을 상실한다。 아・쏘프로노브의 희곡은 뽀따뽀브에 대한 교양사업에 있어서의 당조직 전집단의 역할을 잘 묘사하였다。——이 점이 이 작품의 강력한 면의 하나이다。 이와 반대로 동일한 작자의 실패한 새 희곡——「베께또브의 출세」——의 중대한 결함 중의 하나는 이 희곡에서는 생산 생활에 있어서와 또 자기의 출세 영달만을 생각하는 속물、베께또브를 폭로함에 있어서의 당조직 및 공장 집단의 역할을 묘사하지 않은、점에 있었다。

여러 작품들에서는 가끔 충분한 사상적 수준에 달하지 못한 약간의 지도자들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개인주의적 경향을 가진 독특한 표정이 묘사되어 있다。 부벤쪼브나 뽀따뽀브와 같은 사람은 개인적 리득이나 출세를 생각치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지도의 책임을 지고있는 공장이나 꼴호즈에 대하여——「나의」공장、「내」꼴호즈라는——낡은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공민들의 상호 원조와 장호 지지를 예상하는 사회주의 사회의 조건 하에서 공동사업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든지、다른 기관、다른 쏘베트 사

람들을 희생으로 하여 리득을 취하려는 기도는 전혀 용인할 수 없다。(남부의 꼼바인수들이 찌비리로 수확을 원조하려 려행을 하며、지진의 피해를 받은 아쉬하바뜨 사람들에게 전인민적 원조를 준 것을 회상하라)

우리 문학은 개인주의적 술책이 불가피적으로 공산당원과 대중들 사이의 옳은 상호관계를 위반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호흘라꼬브의 관료주의적 특질들은 그를 대중으로부터 격리케 하였다。 뽀따뽀브는 자기를 집단에 대립시킨다。 선로장(線路長)꼰드라찌예브(쑤로브의 「푸른거리」)는 코스모폴리트의 포로로 되어 있었다。 아・쑤로브의 다른 희곡——「모욕」——의 주인공인 구역당 비서 쩰레긴의 힘은 인민과의 밀접한 련계와 대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분자에 의거할 줄 아는 데 있었다。 이와 반대로 일시 구역당 비서의 책임을 수행한 끄쓰쮸쉬낀은 산 인간에 대한 무관심과、관료주의적인 행정처리와、대중으로부터의 고립으로 말미암아 작자의 비난을 받는다。

유・라쁘쩨브의 중편소설 「려명」은 지도자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여 준다。 일방 호흘라꼬브가 느릿느릿하게 삶에 반하여 「려명」 꼴호즈 위원장 표돌・부벤쪼브는 대담하고 의지적이며、정력적인 일꾼으로서 항상 활동하고 있으며、모든것을 사업에 바치었다。 그러나 그는 사상적으로 충분히、무장되지 못하였었다。 그는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개별적 꼴호즈들이 서로「앞을 다투어」달음질 치는 것으로 리해하였다。 즉 「어떤 꼴호즈가……더 빨리 부유해지면 그러면 공산주의에 도달한다」——이렇게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표돌은 오직 자기 꼴호즈의 행복에 대하여서만 걱정하고 린접 꼴호즈에 대한 원조를 거절한다。 그는 또 꼴호즈원들을 교양할 대신에 형식적으로 지배하며 「눈물이 나도록 꾸짖으며」 명령한다。 부벤쪼브는 꼴호즈의 「주인」으로서 자만하였다。 그는 집단의 힘을 과소평가하며、당단체 비서 또로삐친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비서 또로삐친은 이와 전혀 다른 타잎의 사람이다。 그는 부벤쪼브의 방법을 맹렬히 비난하며 꼴호즈의 민주화를 강화시키며、모든 꼴호즈원들을 적극적 활동에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쏴따로브와의 회화에서 싹튼 보리알——즉 장래의 이삭——에 비유하여 자기의 사업 방법을 말한당。「너는 폭로 비난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또로삐친은 이렇게 말한다——……나는 당을 위하여 가장 귀중한 것은 매개 사람 속에서 어떠한 좋은 줄기(莖)들이 있는가를 찾아내며 이 줄기들로부터 이삭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당단체 비서 또로프친은 끌호즈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것을 자기의 주요 과업으로 보았다.

농업일군들의 다른 전형들도 이 작품 속에서 각각 개변화되어 있다. 쇠따로브는 거만한 관리로서 묘사되었다. 그는 「훈계하고 명령하기」를 일삼았다. 그러나 자신은 일할 것을 잊어버린다. 작자는 사람들의 가장 우수한 소질을 일깨우며, 그들의 창발력을 발동시킬 줄 아는 구역당 비서 와찌리예바의 형상화에 완전히 성공하였다. 상술한 많지 않은 작품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현대 문학이 묘사한 갈등들을 명확히 엿볼 수 있다. 대개로 그것은 공무원들—즉 당 초급단체 지도자와 끌호즈 위원장, 구역당 비서와 공장 지배인—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각이한 의식수준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충돌이다. 즉 선진적 일군들과 아직도 낡은 관념을 가진, 또는 낡은 의식의 잔재가 남아 있는 사람들 사이의 충돌인 것이다.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그것은 뜨·모뜨이료브가 그의 론문 속에서 쓰·바바예브쓰끼의 소설 가운데에 그러한 갈등이 없다하여 불평을 늘어놓은 그러한 복잡하고 비극적인 갈등을 추구할 아무러한 필요도 없으며, 또, 뜨·그로모브와 브·꼬쓰쩰라네쓰가 이 소설에서 전혀 찾아 낼 수 없는 그 평판이 자자한 「극적 크라이막스」를 발명할 아무러한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 시기의 문학은 정신적—정치적으로 굳게 통일된 쏘베트 사회에서 적대적 모순이 청산되어 있는 사실을 반영한다. 현대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아직도 그들의 의식 속에서 과거 의식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 더구나 이들 중 때로 지배적 지위에 앉게 된 사람들의 반항을 극복한다.

× × ×

쏘베트 작가들은 그들의 주인공들을 의식수준과 사업에 대하여 취하는 그들의 각이한 태도에 의하여 구별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이 모두 정신적—정치적 면에 있어서 통일된 쏘베트 사회의 사람들이며, 정치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쏘베트 작가들은 애정에 찬 태도로써, 당단체를 사상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단결된, 그리고 자기 뒤에 쏘베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집단으로서 묘사한다. 당원 볼쉐위크 및 비당원 볼쉐위크들의 굳게 결속된 집단은 브·아사예브의 소설 「모쓰크바로부터 먼곳」의 주요 주인공이다.

브·아사예브는 그의 소설에서 전쟁기의 석유도관 부설을 묘사함에 있어서 전시의 특징적인 많은 특색들과, 후방과 전선의 일체 영웅적 로력이 가지는 빠소스를 보여 주었다. 작자는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 사회의 전형적 특징들을 반영하였다.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외의 아무 것도 생각치 않는 탁월한 쏘베트 애국자들이 석유도관을 부설하였다. 당과 인민이 생활 자체 내에서 불가분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브·아사예브에게는 인민에 대한 테마가 당에 대한 테마와 불가분리의 것으로 되어 있다. 바뜨마노브와 살낀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근로의 목적을 부여한다. (운전수 중의 한사람은 바뜨마노브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다만 우리들에게 길을 가리키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전진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사업의 일반 행정에 대한 볼쉐위끼적 지도를 보장하며, 건설 행정에서 엄격하게, 그리고 자상스럽게 자애롭게 매개 인간을 교양하였다. 건설사업의 운행을 말할 때는 반드시 건설본부를 회상케 한다. 이 건설본부에서 「바뜨마노브, 살낀드, 베르드쎄는 세개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 중심으로부터 마치 축전지로부터 전류가 흘러나가듯이, 전기구의 각 고리로 정력이 흘러나갔다」

쓰딸린동지는 그의 천재적인 저작 「레닌주의의 제문제」에서, 레닌주의자인 일군의 형과 또 그가 반드시 가져야 할 품질에 관하여 썼다. 몇해 후 전련맹 레닌공청동맹 제七차회의 대표자들에게 축하를 하면서 쓰딸린동지는 공청원들이 「자기의 모든 사업에서 위력있는 혁명적인 충동과 볼쉐위끼적 건설자들의 근기있는 실무성을 결합시킬 것……」을 배우도록 희망하였다.

쏘베트 문학은 짜리의 지주—자본가적 제도를 반대하여 봉기한 인민의 혁명적 충동을 반영하였다. 쏘베트 문학은 볼쉐위크들 속에 있는·로련한 조직—건설자들의 특질들을 서술하였다. 사회주의 건설과 위대한 조국전쟁의 경험에 립각하여 레닌주의자—일군을 특징짓는 이 품질들의 결합이 쏘베트 작가들 앞에 더한층 명백히 나타난다. 다른 여러 작품들의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브·아사예브의 소설에 나오는 건설책임자 바뜨마노브도 볼쉐위끼적 방법에 의하여 혁명적인 창발력의 대담성과 근기있는 실무성을 결합시킬 것을 습득한 사람으로서 묘사되어 있다. 「체계적인 사람」인 그는 명석하게 또 조직적으로 사업한다. 그와 동시에 그는 폭넓은 전망과, 창조적 용감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유도관 선로를 아둔하(河) 좌안으로 옮기자는 베리드쎄의 제안을 맨 처음으로 지지한 사람이었다. 바뜨마노브는 임의의 경제적 사건에 대하여서도 정치적인 각도에서 취급할 줄 아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는 다만 경제역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교양하는 로련한 교양자이기도 하였다.

건설사업소 당초급단체 위원장 잘깐드의 전형은 다채롭다。그와 바뜨마노브와의 상호관계는 옳게 묘사되어 있다。조기 문학에서는 경제지도자와 당일꾼 간의 상호관계가 때때로 상호 무리해한 충돌의 성격을 띠였다。례를 들면 야・일린은「커다란 콘베어」(제一차 五개년 계획에 관한 소설)에서 관료적안 그리고 당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하는 공장 지배인 이그나또브의 이야기를 하였다。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지도자는 거의 없다。

이・두루쯔에 동의할 수 없는 리유는 바로 이점에 있다。그는 중편소설『낡은 제방(堤防)옆에서』에서 공장 지배인과 당초급단체 위원장 간에 있는 이제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사소한 쟁의들 그리였다。당위원장은 생산상태를 개선시키려는 자기의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서 …「지배인의」사업에 간섭하지 말라는 단호한 성낸 요구」를 받았다。

바뜨마노브와 잘깐드와의 관계는 이와 다르다。그들의 관계는 서로 지지하며、또 그와 동시에 서로 비판하는 우의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이었다。그것은 상호보충이며、상호통제이며、또 공동사업에 대한 집단적 지도이었다。그들은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일치되는 의견을 만든다。그 다음에는 그것이 루베산쯔크에 있는 고관실(高官室)이든 혹은 보통 생산관리회의이든 간에 불관하고 도처에서 이를 단호히 토론한다。

당초급단체 위원장과 건설사업 책임자가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일치되는 까닭에 어떠한 쟁의이고 아무런 곤난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바뜨마노브가 자기의 아들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받던날 밤、그와 잘깐드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회상된다。그날 밤、그들은 많은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가 전행되었다。그러나 전혀 서로 합치를 보지 못하였다。「그들은 서로 어려워함이 없이 날카로운 말을 주고 받으면서 론쟁하고、담판하고 서로서로 눈에 떠는 결함들을 지적하였다」바뜨마노브와 잘깐드는「아무리 무자비한 로골적 비판이라도 그 우정을 손상치 않을 그러한 진정한 우정과 상호리해를」련결시키었다。그러므로 그들의 론쟁은 우의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강화시키었다。

바뜨마노브、잘깐드、배리드쎄는 사상적으로 단결된、그리고 부단히 장성하는 쏘베트집단 내에서 차지할 자기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다。그들의 정신적 생활의 완전무결성은 이로부터 생기는 것이다。젊은 공산당원 알렉쎄이・끄브쇼브의 길은 약간 더 복잡하다。그는 쏘베트 조건 하에서 장성하였으며 환희를 가지고 일하였다。그러나 그는 아직도 개인적인 동경과 희망을 사회리익과 결합시킬 줄 몰랐다。

알렉쎄이는 건설사업에서 일해야 할 필요성을 리해치 못하고 전선을 동경하였다。그를 전선으로 가게 놓아달라는 끄브쇼브의 열렬한 요청은 바뜨마노브의 거절에 봉착하였다。바뜨마노브는 일꾼의 책임과 복종문제를 강하게 내세웠다。살깐드는 알렉쎄이의 립장이 정치적으로 불건전한 것을 밝히어 주었다。로련하고 능란한 교양자인 잘깐드는 알렉쎄이에게 결코 자기를 집단으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될 것을 가르치었다。끄브쇼브의 동경(憧憬)은 끝났다。그는 더욱 안정되고 명랑하고 로동능률있는 사람으로 되었다。「그는 투쟁 속에서 자기의 임무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성격은 마치 단번에 결정(結晶)된 것 같았다」

자아비판의 습관은 끄브쇼브로 하여금 부단히 전진하도록 만들었다。「그는 자기를 욕하는 것을 기뻐하였다」―따냐・바찌리첸꼬는 이렇게 지적하였다。「그 녀자는 벌써 알렉쎄이에게 이 특질이 있는 것을 보았다。그는 공공연히 골내지 않고 대항함이 없이 비판을 받아들였다」

자아비판은 다른 여러 작품들에서도 볼쉐위끼에게 불가결한 품질로 되었다。쏘베트 작가들은 자아비판을 전인민적 특질로써 보여 주었다。쁘・빠브렌꼬는 소설「행복」중에서 첫 성공을 거둔 구역일꾼들이 사업의 총화에 관하여 침사묵고하는 것을 보여 준다。그들에게는 자기도취라고는 없었다。「지난해는 고생스러운 해이었다。승리한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기뻐하였다。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에게 가끔 있듯이 왜 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는가 하는 가슴을 에이는 듯한 회오(悔悟)의 념으로서 나타났다」자아비판은 브・갈린의 스케취문의 주인공들 간의 상호관계로 되어 있다。당은 리쯔또빠르와 부벤쪼브에게 이 품질을 가지도록 가르친다。

문학이 비판과 자아비판을 우리의 생활법칙으로서、또 당원 볼쉐위크와 비당원 볼쉐위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품질로서 묘사한 사실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다。「자아비판은 당간부와 로동계급전체를 혁명적 발전의 정신으로써 교양하는 특수한 볼쉐위끼적 방법이다」―쓰딸린동지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모쓰크바로부터 먼곳」―이 거대하고 복잡한 작품의 전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물론 없다。이 작품에도 결함이 있다。즉 약간의 장황한 점과 부분적 장(章)에 산만성이 존재한다。그러나 문제는 부분적인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젊은 작가가 많은 쏘베트 예술가들의 창조적 탐삭을 총괄하는데 성공한 것을 지적하는것은 중요한 것이다。그는 쓰딸린적 사업방식을 소유한 그리고 뚜

렷한 개성으로써 나타나는 선진적 세계관을 가진 당 및 경제일군들 즉 공산당원들을 형상화하였다。므·아사예브는 건설자 집단을 그리면서 이와 합께 공산주의를 위한 사업에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인 비당원 볼쉐위크의 화폭으로 가득찬 화랑을 세놓았다。

쏘베트문학은 공산주의사상이 광범한 대중 속에 승리적으로 파급되어 가는 것을 묘사하였다。아·꼰차르、이·에렌부르그、쁘·빠브렌꼬의 작품들 속에서는 「볼쉐위끼」란 말은 사람의 높은 사회적 가치를 승인하는 것으로 되었다。므·부벤노브의 소설 「벗나무」속에는 훌륭한 에피소드가 있다。촌락을 점령한 독일인은 정직한 쏘베트 애국자 꼴호즈원 오찌쁘·미하일로비치를 심문한다。로인은 의기양양하게 적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가슴이 뜨끔할 말을 내던졌다。「나는 오래 전부터 볼쉐위끼다」촌장이 그의 이말을 반박하고 오찌쁘·미하일로비치는 입당한 일이 결코 없다고 말하였을 때 늙은 꼴호즈원은 이렇게 말하였다。「공개적으로는 입당치 않았지만……나는 비밀히 입당하였었다…」

상술한 브·갈린의 작품은 당적 사업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인민적 사업방식으로 되어 있으며、이것은 당성의 원칙이 공산당원들 뿐만 아니라 비당원들의 운동까지도 규정하는 까닭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늙은 로동자 므리호지꼬――아버지가 「어느곳에 생활의 진수(眞髓)가 있습니까?」하고 마음설레는 탄광부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당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다하여 우리 문학에서는 공산당원들의 전형과 비당원들의 전형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전인민적 유일성의 사상은 인민의 전위대로써 걸어가는 사람들을 형상화 할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공산당원들은 사회주의사회에 의하여 생화에 옮겨진 특질들과 또 우리가 공산주의에로 전진함에 따라 더욱 발전하는 특성들은 특히 강력히 또 명백히 체현하고 있다。바로 이러한 까닭에 볼쉐위크들은 문한에 있어서 인민들의 가장 좋은 품질들의 종합체로써 또 수백만인들의 모범으로써 형상화되어 있다。작가들은 이미 공산주의적 특질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쏘베트사람들로 하여금 래일을 내다볼 수 있도록 원조한다。

볼쉐위끼적 성격을 형상화하는 이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근로자들의 선진부대인 우리 당내에는 근로자들과 혁명자들의 가장 선진적인 품질들을 체현하고 있는 인민의 가장 훌륭한 모든 성원들이 모여 있다。쓰딸린동지는 프로레타리아트출신의 영웅들 중의 한사람――그·젤리야동무――에 관한

론문에서 이 혁명가의 전형 속에 로동계급과 그의 당의 가장 좋은 품질들이 구현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사회―민주당을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짓는 모든것 즉 지식에 대한 갈망、독립성、확호불발의 정신、근기、로동애호、도덕적 힘――이 모든것이 젤리야동무에게서 결합되어 있다。젤리야는 프로레타리아의 가장 좋은 특질들을 체현하였다」(쓰딸린전집 제二권 二七페지)

× × ×

쏘베트 문학이 볼쉐위크들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거둔 성과는 위대하다。우수한 쏘베트 작품들 속에는 쏘베트의 위대한 공산당과 그의 충실한 아들들――공산주의를 위한 투사의 전형들이 중대하고 있다。그러나 현실 생활의 영웅은 가끔 문학상의 인물들 보다 더 풍부하다。쏘베트인민은 볼쉐위끼 쏘베트의 현대인의 형상을 가장 훌륭히 묘사하는 더한층 찬란한 예술적 작품들이 출현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작가들은 공산당원의、특징적인 특질들을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그러나、아직도 공산당원은、례를 들면 므·숄로호브나 또는 오쓰뜨롭쓰끼의 조기작품들에서와 같은 그러한 예술적 힘으로서、또 그의 기본적 품질들을 총화한 전형으로서 형상하되지 못하였다。

쏘베트 작가들은 자기의 솜씨를 완벽히 함과 동시에 내용없는 제스츄아와 그리고 대중과의 련결이 약하며、자기의 경험에만 파묻혀 있는 비활동적인 주인공들의 형상화를 피하여야만 한다。볼쉐위크들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단순한 일반화를 철저히 극복할 것이 필요하다。가끔 약간의 작품에서 공산당원이 지엽적 인물로서 나오며、사전 발전에 아무러한 중요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이·쎄메르제보의 스케취물「강언덕(岸邊)에서」에 나오는 구역당 비서는 심지어 그의 이름까지도 불리워지지 않았다。또 다른 경우들에서는 공산당원들의 다만 외면적 면만이 묘사되었으며、내면적 성격묘사가 없다。(쓰·끄루쉰쓰끼의 중편소설「알따이의 광곡」중의 구역당 비서 어와싸야끼모비치는 쓸데없이 허동대는 항상 분주만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으며、구역의 지도사업이나 꼴호즈원들과의 결합면을 보여주지 않았다)

현시의 생생한 립장을 밝은 그리고 벌써 오늘에는 전형적이 아닌 립장이나 갈등으로써 대치하려는 것과 더욱 투쟁할 것이 필요하다。개별적인 어떤 작가들은 당생활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고 二十년 전에나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그에게는 아직도 어떤가 당사업을 마치도 이 경우에 있어서 공산당원의 특별한 용기를 나타내 보일 장과 운동인 것 같이 생각하는

관념이 남아 있다.

약간의 작가들이 선진적 사회활동가를 개인생활의 실패자로 묘사하며, 그의 가정관계를 날카롭게 하며, 가정적 쾌락을 잃은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향은 옳지 못하다. 보로빠예브, 바뜨마노브 및 기다 문학상 주인공들이 그려하다.

우리들의 승리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인 볼쉐위크들의 위대한 역할을 형상화하며, 레닌—쓰딸린당의 영웅적인 아들들의 전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공산당원들을 특징짓는 가장 훌륭한, 또 가장 명료한 특질들을 일반화할 것이 필요하다.

쏘베트 인민은 모든 새 것과 선진적인 것을 종합하여 가지고 있는 문학상의 주인공들을 보기를 원한다. 고상한 사상성과 그리고 근로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또 사회주의적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적, 영웅적 투쟁을 하는 비길데 없이 탁월한 전형들은 레닌—쓰딸린 및 그들의 충실한 전우들—즉 볼쉐위끼당과 쏘베트정부의 지도자들—의 생활과 활동이 이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레닌주의자—볼쉐위크들, 쓰딸린 시대의 영웅적인 사람들의 특질들을 옳게 반영하며, 인류를 위하여 레닌과 쓰딸린의 형상을 영원히 기록해 놓는 것은 쏘베트 작가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기에 있어서의 계급 투쟁과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

신 열

一、이행시기에 있어서의 계급적 관계

맑쓰—레닌주의 리론은 로동계급이 부르조아지를 타도하고 주권을 장악한 이후에 국내에서의 계급 투쟁이 멈추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새로운 형태를 띠우면서 더욱 더 첨예화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타도되었으나 아직 절멸(絕滅)되지 않은 부르죠아지의 반항은 특별히 흉포(兇暴)하고 집요(執拗)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기는 기회주의자들이 상상하던 것과 같이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번생의 시기가 아니라, 「패배는 하였으나 절멸되지 않은 자본주의와 탄생은 하였으나 아직 강화되지 않은 사회주의 간의 가혹한 투쟁의 시기인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기에 있어서의 기회주의의 본질과 또한 기회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과업을 명백히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이 시기에 계급적 세력의 배치와 계급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 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로동계급은 피착취계급으로부터 지배계급으로 되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모든 근로대중과의 동맹을 공고화하고, 착취자들을 탄압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과(戰果)의 모든 력량을 국가주권, 국유화된 산업, 운수 및 은행을 리용하는 것이다.

로동계급은 다른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새로운 사회의 창건을 지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본성을 개조하고 자본주의의 고유의 잔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로동계급은 근로농민대중과 견고한 동맹을 확립하고 그들을 사회주의에로의 도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 동맹은 평화적이고 안온한 정세 밑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농과의 가혹한 계급적 투쟁의 조건 밑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개인적 소규모

의 농업을 하는 근로농민들 사이에는 로력자와 소유산자(小有産者)의 두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다。부농들은 농민의 소 유산자적 경향을 선동하고 그들의 동요를 리용하고 그들을 자기 쪽에 인입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다。로동계급은 로력자로서의 농민을 자기 편에 끌어넣고 그를 재교육시키고 그가 소 유산자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기에 있어서 농업은 대부분의 개인적 소규모적 농업이 대표하는바 소규모적 개인적 농업이 농업에 있어서의 지배적 형태로 되어 있는 조건 밑에서는 자본주의를 위한 아주 견고한 기반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뿌리는 도시와 특히 농촌의 상품생산과 소규모생산 속에 박고 있는 것이다。자본주의 요소들은 소규모 농업으로부터, 련속적으로 또 불피코 대중적으로 계속 장성하는 것이다。레닌과 쓰딸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행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의 커다란 위험은 상품류통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요소들이다。

그들이 대 사회주의 공업과 소 규모 농업 간의 중개자로 되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이 중개를 비단 자기의 부유화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로동계급과 근로농민 간의 동맹 파괴와 자본주의의 부활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서 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이러한 조건 밑에서 로동계급과 부르죠아 사이에는 근로농민” 쟁취를 위한 첨예한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다。누가 그를 끌고 가는가? 로동계급이나, 또는 자본주의의 분자들인가? 문제는 이렇게 서는 것이다。이는 유명한 레닌적 원칙인 「누가 누구를」하는 때 표현되었다。

쏘베트국가는 레닌―쓰딸린당의 지도 밑에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철저하게 수행하였고, 근로농민과 로동계급의 동맹을 강화하였고, 모든 경제를 사회주의적 원칙 위에서 계획적으로 재건하였고, 그러한 후에 승리하였던 것이다。누가 누구를 하는 문제는 로동계급에 유리하고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해결되었다。부르죠아 정권의 타도는 아직 그의 완전 적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타도된 부르죠아지의 반항은 그가 타도된 후에 十배 백배로 되는 것이다。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다년 간의 경험과 또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의 현 생활 중에서 나온 제 사실은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자기 투쟁에서의 근로자들의 공격과 정력과 열심의 장성은 곧 착취계급의 반항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분쇄는 되었으나 절멸되지 않은 착취계급들은 스스로 무대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착취계급의 완전 청산

과 그들의 존립을 위한 기반의 절멸의 시기가 절박하여 오면 올수록 자본주의 분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의 반항은 필사적으로 되는 것이다。국제 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분쇄되었으나 절멸되지 않은 그 나라의 부르죠아지의 편을 드는 것이다。

인민주권의 원쑤들은 이러한 외부 세력의 방조를 리용하면서 온갖 간계(奸計)를 꾸며내고 태공파 해독행위를 획책하고 봉기, 음모 및 살인을 준비하는 것이다。그들은 해독스러운 민족주의와 배타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가장 광신적(狂信的)이고 추악한 투쟁 방법을 쓰고 국가적 반역이라는 것도 돌보지 않고 오직 정권에 복귀(復歸)하여 다시금 인민들을 착취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리익에 배반하는 갖은 행위를 다 하려는 것이다。

부르죠아지들은 이러한 투쟁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흉악한 원쑤인 우익 사회당원들의 방조를 받고 있다。로동계급이 정권을 쟁취할 때 까지 우익사회당원들은 갖은 수단을 다하여 로동계급을 투쟁으로부터 억제하고,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지배를 강화하고, 로동계급이 그들의 의사와는 달리 지주 및 자본가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부르죠아를 승리하며, 정권을 쟁취할 때는 우익 사회당원들은 내놓고 부르죠아 진영으로 넘어간다。그들과 함께 그의 돌격대로써 인민정권을 청산하고 착취자들의 지배를 부흥하려고 애쓰는 것이다。쏘베트인민의 원쑤들이 쏘베트정권을 전복시키고,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정권을 부흥하려고 몇번이나 계획하였다는 것은 쏘베트국가의 력사에서 주지하는 사실이다。이 투쟁에 있어서 어떠한 의지의 박약성(薄弱性)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이미 타도는 되었으나 절멸되지 않은 착취계급과의 투쟁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경각성과 결단성과 무자비성을 발휘할 것을 레닌과 쓰딸린은 호소하였던 것이다。쏘베트인민의 투쟁사(鬪爭史)로부터 나온 이 결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특히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방조에 의하여 인민민주주의 정체를 전복하고 자본주의 기구를 부흥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착취분자들이 아직 적지 않게 있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二、착취자들의 반항에 대한 진압

쏘베르동맹의 경험은 가혹한 계급투쟁과 그의 직접적 반영인 당내부에 있어서의 레닌주의의 원쑤들 즉 확실히 적은 분자, 기회주의자 및 반역자들과의 날카로운 투쟁이 착취계급의 청산과 사회주의의 건설에 선행(先行)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

고 있다。볼쉐위끼당이 지도하는 쏘베트국가는 소규모의 농업과 일정한 자유상업이 우세한 조건 밑에서는 자본주의 요소의 장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자본주의 요소들과 항상 철저한 투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쏘베트국가는 립법적 및 경제적 시책의 전 기구를 가지고 그의 장성을 제한하였고 그들을 상품류통 부면으로부터、후에는 생산부면으로부터 구축하였던 것이다。

자본주의 요소의 제한 및 구축 정책의 철저한 수행은 그의 완전한 숙청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고 필수적인 단계이다。 그후 쏘베트동맹에서는 자본주의 요소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전제 조건이 조성되기 전까지 그의 제한 및 구축 정책이 실시되었던 것이다。이러한 전제 조건들은 꼴호즈와 쏩호즈들이 부농생산에 교대할 수 있고 근로농민들이 집단화의 궤도에로 이행되게 준비되었을 때에 생겼던 것이다。쏘베트국가는 이때부터 전면적 집단화에 의거하여、계급으로서의 부농청산 정책에 이행하였던 것이다。이·브·쏘딸린은 국내에서、사회주의 요소들이 장성하고、자본주의 요소들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으로써 안심하면 안된다고 쏘베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도리어 그때문에 자본주의 요소들의 반항은 더욱 더 첨예화되는 것이다。이·브·쏘딸린는 一九二九년 四월에 전동맹 공산당(볼-위끼)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이렇게 말슴하였다。사회주의는 성과있게 자본주의 요소들을 공격하고 있다。사회주의의 놈 자본주의의 요소보다 더 급속히 장성하는 것이다。이때문에 자본주의 요소의 비중은 저하되며 또 바로 자본주의 요소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요소들은 치명적 위협성을 예감하고 자기들의 반항을 강화하는 것이다。그들이 가능성을 아직 가지고 있는한 자기들의 반항을 강화하는 것은 비단 세계 자본주의가 그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만 아니라 그들의 비중이 저락되고 사회주의의 장성과 대비한 상대적 장성이 저하됨에도、불구하고 자본주의 분자들의 절대적 장성이 역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에게 사회주의의 장성에 대항하기 위한 힘을 축적할 일정한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에 의거하여 이 발전계단과 세력의 호상관계의 조건 밑에서 계급적 투쟁의 첨예화와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 요소의 반항의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분쇄된 착취계급의 잔재와 외국 제국주의 국가들은 쏘베트동맹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에 대하여 절망적 반항을 하면서 공산당 내에 뜨로쯔끼분자、부하린분자 및 민족주의-우익편향자(右翼偏向者)들을 자기들의 앞잡이로 가지

고 있었다。이러한 자들은 레닌과 쏘딸린을 반대하고 볼쉐위끼당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쏘베트인민의 흉악한 원쑤로 되어 있었고 갖은 수단을 다하여 내부로부터 쏘베트동맹의 위력을 파렬(破裂)시키고 전쟁시에는 제국주의 국가를 위하여 유리한 정세를 조성시키려고 하는 외국 간첩들의 비렬한 고용자로 되어 있었다。뜨로쯔끼분자、부하린분자 및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사상적 및 조직적 분쇄가 없이 또 그들의 절멸이 없이는 승리적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하여 대중들을 동원할 수 없는 것이다。레닌적 사업의 위대한 계승자인 이·브·쏘딸린의 지도 밑에 승리적으로 수행되었던 볼쉐위끼당의 이 투쟁은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왜냐 하면 이 투쟁은 제공산당과 제로동당이 기회주의와 민족주의와 모든 사회주의의 원쑤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견결하고 비타협적인 정책을 수행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뜨로쯔끼분자、부하린분자 및 기타의 당내부의 레닌주의의 원쑤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혹은 혁명적인 대언장어(大言壯語)의 병풍 밑에서 혹은 로골적으로 부농정신으로 행동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들과의 로동계급의 투쟁을 파탄시키려고 애썼던 것이다。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내의 간첩、살인자 및 해독자 도당으로 전화된 기회주의 분자들은 공산당을 분렬시키고、공산당 내의 규률을 동요시키고、쏘베트국가를 파괴하고、로동자 및 농민의 동맹을 붕괴시키고、농업 집단화 계획의 수행을 파탄시키고、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내부로부터 파멸시키려고 애썼다。

부농의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변생에 대한 부하린적 리론은 이러한 반역적 투항주의적 지향(志向)의 사상적 산제물이었었다。부르죠아지의 고용자로서의 부하린분자들은 자본가들을 건드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의거하여 사회주의의를 건설할 것을 제의하였다。그들은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계급적 원쑤들의 반항이 더욱 더 날카로운 형태를 취한다는 계급투쟁에 대한 레닌-쏘딸린적 리론을 거부하면서 계급적 적대의 화해를 찬성하였다。이 모든 사상과 또는 그에 흡사한 사상들은 쏘베트국가에 자본주의를 부흥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였다。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의 경험은 온갖 투항주의자들과 그들의 리론을 분쇄하지 않고는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볼쉐위끼당은 온갖 종류의 기회주의 분자들과 철저하고 무자비한 투쟁을 수행하였다。그들이 자기들의 반역적 본질을 어떠한 문구(文句)로 감추었다 할찌라도 부농분자들의 장성과 세력을 과대평가하면서

모험주의에 빠지고 중농을 부농의 포옹 속에 떠밀어 넣었던 뜨로쯔끼분자들을 불쉐위끼당은 폭로하였었다。 반면에 자본주의 요소의 장성을 과소평가하고 이럼으로써 그 요소와의 투쟁에 있어서 당을 무장해제시키려고 애썼고 부농의 발전에 여러가지의 중대한 리해(利害)를 걸고 있었던 부하린분자들을 당은 분쇄하였다。 부하린분자들의 정책은 자본주의의 재흥에 통하는 것이다。 불쉐위끼당이 뜨로쯔끼적—부하린적 투항주의자들과 자본주의의 재흥주의자들을 분쇄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이 결론은 인민민주주의 기구의 강화를 위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조건의 준비를 위한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공산당과 로동당의 투쟁의 실천에 의하여서도 완전히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약간의 인민민주주의 국가에는 전동맹공산당(불쉐위끼)의 세계—력사적 경험이 증명한 계급투쟁에 대한 맑쓰—레닌적 리론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업을 배반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력사의 쓰레기통에서 자기의 부활주의적(復活主義的) 목적을 위하여 리용하려고 벌써 불쉐위끼가 폭로하였던 계급투쟁의 소멸에 대한 「리론」을 끌어 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죠아지의 앞잡이들은 그들이 어떻게 가장은 하였다 할찌라도 계급적 원수들을 반대하고 각양각색의 기회주의가들을 반대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의 풍부한 투쟁경험에 의거하고 있는 형제적 공산당 및 로동당에 의하여 폭로되고 있다。 인민 민주주의 제국에서의 공산당과 로동당 대렬 속에 있는 기회주의적 요소들은 계급적 투쟁에 대한 맑쓰주의적 리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계급의 협조와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발생의 궤도 위에 미끌어 내려가고 있다。

작년도에 파란로동당은 당을 부농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억제하고、 부농과 친하게 하고、 따라서 대중들 사이에 자기의 유해한 영향을 강화하고 파급시킬 가능성을 부농에게 주려고 애썼던 고물까(웨스라브)가 명도하는 우익 기회주의적 민족주의적 편향(偏向)을 폭로하였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부농적 편향은 유기적으로 민족주의와 련결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는 자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의 민족주의는 부농들 사이에 가장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얼마 전에 불가리야공산당이 트라이초·꼬스또브의 민족주의적 편향을 폭로하였던 실례에서 이를 보았던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배반과 맑쓰—레닌주의적 계급투쟁 리론에 대한 배반이

어데로 통하는가는 유고슬라비야의 정형이 보여주고 있다。 비렬한 부르죠아—민족주의적 찌또도배는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의 건설에 관한 혁명적 대언장어의 병풍 밑에서 사실은 진짜 부농정책 꼼유고슬라비야를 보통 부르죠아 공화국으로 전화시키고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화시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찌또도배는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영 미 제국주의의 선봉대로 되었다。 세계의 모든 공산당들은 다 같이 반역적 찌또도배에게 비난의 락인을 찍었다。 찌또도배의 실례로써 정치에 있어서의 모험주의가 반혁명적 실천과 로동계급에 대한 배반과 또는 제국주의 진영에로의 이행과 어떻게 련결되어 있는가가 명백하여졌다。 ●

三、근로농민의 사회주의적 재교양을 위한 투쟁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기에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내에서는 근로농민의 사회주의적 교양문제에 관한 레닌주의의 원쑤들과의 가혹한 투쟁이 전개되었었다。

로동자 및 근로농민의 동맹은 쏘베트국가의 기반이다。 쏘베트동맹에서의 레닌주의의 원쑤들은 농촌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정책을 의곡하고 근로농민들을 그들의 형제인 로동자들과 적대(敵對)시키고 그들 사이의 동맹을 파탄시키고 이럼으로써 자본주의의 부활을 도와주려고 미친듯이 날뛰었다。 이에 있어서 그들 중의 하나인 뜨로쯔끼분자들은 선동적 목적 하에 근로농민들을 자본주의 진영에 관계시키고、 그들을 로동계급으로부터 리탈시키려 하였고、 다른 자인 부하린 분자들은 농민의 이중적(二重的) 본질을 무시하여버리고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의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기만하였던 것이다。 여러가지 경우에 있어서 레닌주의의 원쑤들은 로동계급과 근로농민의 동맹 정책을 반대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반을 반대하여 출연하였다。

불쉐위끼당은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사상들을 분쇄하여버렸다。 불쉐위끼당은 우익 기회주의 리론의 모든 해독과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의 무계획적인 자연발생운동을 밝혔고、 무계획적인、자연발생운동이란 근로농민 대중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의 약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불쉐위끼당은 로동계급에게 지도적 역할이 달려 있고、 근로농민의 사회주의적 재교육을 위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있어서 계급의 절멸을 가져오는 그러한 동맹을 위하여 싸웠다。 ●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과 쏘베트국가의 근로농민에 대한 정책은 그의 리익에 대한 심대하고

전면적인 고려에 의거하고 있다。근로농민의 근본적 리익은 부농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되고、자기생활의 전기구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고、자기의 로동을 경이하게 하고、문화적 및 부유한 생활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학기술과 농업과학의 최신업적(最新業績)을 리용하는 데 있다。

볼쉐위끼당은 령세농들이 뜨락또르、꼼바인 및 기타와 같은 현대의 대 기계기술을 광범히 적용하는 대 집단 농업의 궤도에 넘어가지 않는 한(限) 곤궁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꾸준히 설명하였던 것이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의 정책은 농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여 집단 농업의 정당성과 유익성을 확신하고 농업생산의 사회적 형태로 자원 하에 이행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볼쉐위끼당은 이러한 레닌—쓰딸린적 제원칙을 위반하는 자들을 준렬히 비판하고 농촌에서의 당의 정책의 의곡을 수정하였다。

농업의 사회주의에로의 전이(轉移)가 없이는 그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공고화하고 자본주의 부활의 가능성을 청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기의 조건 밑에서는 자본주의 부활의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먼저 소규모 농업에 뿌리박고 있는바 오직 그의 사회주의의 궤도에로의 이행만이 국내에서의 자본주의 부활을 위한 최후의 운하들을 봉쇄하는 것이다。

쏘베트국가는 근로농민들을 사회주의 도정에로 끌고 가면서 국내에 광범한 소비조합상업、판매공급 및 생산 협동조합망을 조직하였고、그 속에 근로농민들을 인입하였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의 정책은 행정적 압박없이 시종일관하게、계획적으로 설득과 실례의 힘으로써 근로농민들을 아주 단순한 협동조합 형태로부터 높은 생산 형태에로 이동시키는 데 있었다。

뜨로쯔끼분자들과 부하린분자들은 갖은 수단을 다하여 레닌의 사상을 의곡하면서 레닌—쓰딸린적 협동조합계획의 실현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하였다。그들은 당과 정부가 협동조합과、그 후에는 꼴호즈에서 부농분자들을 청산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부농들은 쏘베트정권과의 공개적 투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자기들의 탐욕적 목적을 위하여 리용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협동조합、꼴호즈 및 농촌쏘베트에 침입하게 되었던 것이다。레닌주의의 원쑤들은 대중 속에서의 당의 교양사업을 파탄시키며고 근로농민들 사이에서 소유산자적 부면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은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을 계급적 원쑤들의 모든 음모에 대한 투쟁에 궐기시키고、광범한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꼴호즈운동의 원쑤들을 무찔렀던 공산당의 견결한 정책에 의하여 완전히 실패되었다。레닌—쓰딸린적 협동조합계획은 쏘련에서 승리적으로 실현되었다。쏘베트농민들은 집단화의 궤도 위에 넘어와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대 공학기술을 리용할 수 있었다。

집단화의 성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볼쉐위끼당과 레닌 및 쓰딸린의 배려에 의하여 국내에 대 사회주의 공업이 창건되고 또 온갖 수단을 다하여 발전되었다는 일이다。뜨로쯔끼—부하린적 파시즘의 고용자들은 이·브·쓰딸린이 작성한 력사적 공업화 계획의 실현을 파탄시키려고 애썼다。이 계획은 국가의 기술—경제적 독립을 보장하고、방위의 강력한 물질적 기초를 창건하고、전 인민경제의 기술적 재건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뜨로쯔끼—부하린적 반역자들과의 가혹한 투쟁에 있어서 수행된 국가 공업화 정책은 벌써 꼴호즈에서의 농민들의 대중적 진출의 첫 시기에 현실적으로 현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쏘베트 공업화 방법의 특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촌의 착취와 농민 대중의 빈궁화에 의거하여 발전된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련휴(聯携)와 도시 및 농촌 근로자들의 행복의 제고에 의거하여 발전되었다는 점에 있다。쏘베트동맹의 공업화는 농업의 기술적 재무장을 위한 것이다。

쏘베트국가는 로동계급과 근로농민 대중과의 동맹강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빈농에 대한 사업이 훌륭히 제기되면 될수록 로동계급과 모든 근로농민 대중과의 동맹이 더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빈농에 대한 커다란 정치적 사업을 수행하였고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뜨로쯔끼분자들과 부하린분자들은 련속적으로 빈농에 대한 원조를 파탄시키고 이럼으로써 농촌에서의 공산당의 영향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시도들은 볼쉐위끼에 의하여 폭로되고 분쇄되었다。

볼쉐위끼당은 빈농에 의거하고 중농과 견고한 동맹을 맺고 부농과 부단히 투쟁하는 정책을 꾸준히 수행하였다。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공산당과 로동당들은 커다란 주의로써 농민들의 사회주의적 재교육에 관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의 사업경험을 연구하고、근로농민들의 집단적 궤도에로의 이행을 위한 꾸준하고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준비를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에게서 배우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은 쏘베트국가의 실례에 따라 협동조합에서 부농들을 숙청하고、빈농에게 필요한 원조를 주고、근로농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경험에 의

하여 협동조합적 궤도에로의 이행의 유익성과 득책(得策)을 확신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당들은 농촌의 모든 발전을 자연발생 운동에 맡기고 멸망하여 가는 부농들의 압박을 반영하면서 대중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기회주의자들을 폭로하고 있다。

四、새로운 사회적 로동규률의 교육、

로동계급이 락후된 근로대중을 재교육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면서 자기의 본성을 자신이 개조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지적된 바이다。 부르죠아지와 그의 앞잡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로동계급이 국가와、 경제를 지도하기에 준비되지 않았고、 로동계급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문화를 제고시켜야 된다는 비렬한 반역적 명제를 내세웠었고 또 내세우고 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자기 로작에서 이러한 증오스러운 편견을 폭로하였고 로동계급은 부르죠아지의 정권을 타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도 부르죠아지가 없이 국가를 지도하고 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현대 사회의 가장 진보적 계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는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세계-력사적 경험에 의하여 완전히 또 그대로 증명되었던 것이다。 공산당이 령도하는 로동계급만이 자본주의 요소들을 반대하는 계급적 투쟁을 령도하고、 이를 끝까지 수행하고、 도시와 농촌의 근로대중을 조직하고、 재교육하고 이들을 사회주의 도정에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뜨로쯔끼-부하린적 투항주의자들과 자본주의의 부활주의자들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懷疑)의 유독(有毒)한 씨앗을 뿌리고 로동계급이 근로농민을 사회주의 도정에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면서 근로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적 영향을 반대하여 분노와 적의로써 싸웠던 것이다。 레닌주의의 원쑤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국내의 전근로자들과 로동계급의 의사를 방해하고、 그리하여 국가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한 레닌 및 쓰딸린의 천재적 계획의 실현을 좌절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브·쓰딸린의 위대한 력사적 공적이란 그가 레닌주의의 원쑤들과의 가혹한 투쟁에 있어서 개별적 국가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레닌적 교의를 옹호하고 발전시키고 또한 위대한 창조적 사업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의사를 동원하였다는 점에 있다。 쏘련의 로동계급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자기의 력사적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품 속에서 나오고、 또 자본주의적 잔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로동계급은 착취사회에서 유전된 습관을 반대하여 자기 대렬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승리한 로동계급은 예속된 인간의 견지에서 로동방법과 생산수단을 보는 낡은 습관을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새로운 규률의 교육과 로동 및 사회적 소유에 대한 새로운 태도의 교육은 승리한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적 투쟁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레닌은 一九一八년에 「우리 신문의 특징에 관하여」라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기의 계급투쟁은 사실 자본주의의 전통과 습관을 완강히 가지고 있고、 계속하여 쏘베트국가를 이전과 같이 보고 있는 즉 국가에 보다 적고、 보다 가치없는 일을 주고 국가로부터 많은 돈을 수탈하는、 로동자계층 중의 한 줌도 못되는 그루빠로부터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있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로동계급은 농촌에서 나와서 로동계급의 대렬을 보충하는 소 상품생산자들로 되는 많은 대중과 늘 한편이 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부르죠아지의 자연 발생성은 불피코 로동계급에 압력을 가하고 가장 견고하지 못한 로동자 계층들을 타락시키고 그들 사이에 소부르죠아적 무정견(無定見)、 분산성(分散性) 및 개인주의의 재현(再現)을 초래시킨다。 공산당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프로레타리아적 규률、 조직성、 사회주의적 자각、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선전을 대립시키고 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봄철의 범람(汎濫)과 같이 쏟아져 흐르는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와 로동시에 있어서의 강철과 같은 규률과 지도자 한사람의 의사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연구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위대한 창조적 발의와 새로운 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의 교육을 련결시키는 사회주의 경쟁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사상은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레닌주의의 원쑤들은 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가 국내의 공업화를 전개하며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며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경향을 선동하면서 로동계급의 락후된 분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쟁의 커다란 장성과 이 운동에로의 수백만 근로자들의 인입은 쏘련사람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의 장성과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쏘베트인민들의 가장 커다란 충직성에 대한 훌륭한 지표(指標)로 된다。

사회주의의 경쟁의 발전과 새로운 사회적 규률과 로동 및 사회적 소유에 대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계의 창전을 위한 볼쉐위끼당의 투쟁은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을 위하여 커

다만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기에 모든 전선에 걸친 사회주의적 공세의 전개를 위한 점차적이고 부단한 힘의 축적은 진행되는 것이다。이·브·쓰딸린은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六차 대회에서의 보고에서 쏘베트국가의 경험을 개괄하면서 볼쉐위끼적 공세의 본질에 대하여 천재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우리들의 현조건 밑에서의 볼쉐위끼적 공세의 본질은 어데 있는가? 볼쉐위끼적 공세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 요소들을 반대하여 대중들의 계급적 경각성과 혁명적 적극성을 동원하고 또한 우리들의 기구(機構) 속에 있는 막대한 예비를 은밀히 가지고 있으나 그를 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기관과 단체들의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대중들의 창의와 독자적 활동성을 동원하고 로동생산성의 제고와 사회주의적 건설의 발전을 위한 대중들의 경쟁과 로동앙양을 조직하는 데 있는 것이다。실제로 볼쉐위끼적 공세의 본질은 재전기의 요구에 적응하게 직맹, 협동조합, 쏘베트기관 및 기타 온갖 대중단체의 모든 실천사업의 재편성을 조직하고, 기회주의적, 트레드·유니온 주의적, 관료주의적 분자들을 구축하고 고립시키면서 이러한 단체 속에 가장 열성적인 혁명적 일군들로써 핵심을 만들고 이색분자들과 변색분자들을 이러한 단체로부터 구축하고 하부로부터의 새로운 일군들을 등용하는 데 있다。다음에 볼쉐위끼적 공세의 본질은 우리들의 공업에 대한 융자(融資)와 쏩호즈 및 꼴호즈에 대한 융자를 위하여 최대한도의 자금을 동원하고 이 모든 일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의 우수한 사람들을 내보내는 데 있다。최후로 볼쉐위끼적 공세의 본질은 공세의 모든 일을 조직하기 위하여 당 자체를 동원하고 관료주의 및 변생분자들을 그로부터 내쫓으면서 당을 강화하고 련마하며 우익적 및 극좌적 편향의 표현자들을 레닌적 로선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구축하고 참말로 견결한 레닌주의자들을 첫 계획에 내세우는 일이다」

전세계 근로자의 위대한 령도자인 이·브·쓰딸린의 이 말씀은 사회주의 도정에로 나아가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하여 거대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경험은 레닌과 쓰딸린의 로작에 과학적으로 개괄되었다。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공산당과 로동당은 쏘련의 경험을 고려하고 사회주의에 적대하는 모든 력량의 대항을 극복하면서 자기 나라의 근로대중을 사회주의에로의 도정으로 성과있게 끌고 가고 있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 (二十七)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볼쉐위끼당

이·이노젬쩨브

一九四一—一九四五년의 위대한 조국전쟁은 쏘련이 지나온 과거 그 어느 때의 전쟁보다도 가장 혹심하고 곤난한 전쟁이였다。동시에 그것은 인민의 모든 력량의 시련과 검열의 위대한 학교이였다。

「전쟁은 우리의 쏘베트체도, 우리의 국가, 우리의 정부, 우리의 공산당에게 일종의 시험을 치운 것이였으며 그 사업을 총결산하였다。……」(이·쓰딸린)

전쟁은 전세계와 쏘베트사람들에게 레닌—쓰딸린 당의 가장 위대한 역할과 력사적 사명을 일층 명백하게 표시하였다。

一、

一九四一년 六월 二十二일 히틀러 독일은 불가침조약을 무법하게 위반하고 쏘베트 조국에 배신적으로 침공하였다。종속국가들의 군대의 지원을 받아 잇발까지 무장한 수백만의 독일 파씨스트 군대는 쏘베트동맹의 강토로 돌입하였다。쏘베트국가에서는 평화건설 시기가 종결되였다。독일 파씨스트 강점자를 반대하는 쏘베트인민의 해방적 조국전쟁의 시기가 시작되였다。

당시 가장 침략적인 제국주의 국가인 히틀러 독일은 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여 자기의 공업을 미리 군사방면으로 재전하였으며, 八개국으로 되는 블럭을 규합하였으며, 거의 전부의 서구라파의 공업원료 및 식량을 전쟁목적에 리용하였다。히틀러 독일은 자기의 군대를 완전히 동

원시키었으며 수천대의 땅크와 비행기를 포함한 一백七十개 사단의 독일군은 돌연히 쏘베트국가를 반대해서 침입했던 것이다.

쏘베트국가의 무력—평화애호적 사회주의국가의 력량은 전쟁 첫 시기에 불리한 상태에 있었다. 국경지방으로 더욱 동원되고 이동되어 있어야 하였다. 불의의 침공의 우세를 리용하는 숫자적으로 우세한 적의 력량의 압력 하에서 쏘베트 군대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국가의 중심부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의 첫번 十일 동안에 히틀러 군대는 리로바의 대부분, 백로씨야의 서쪽 부분, 서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강점하는데 성공하였다. 쏘베트 조국은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一九四一년 七월 三일 쓰딸린동무는 라디오를 통하여 연설하였는데 그 연설에서 이번 전쟁이 독일 파씨스트도배들 측으로 보면 강점적 략탈적 전쟁이며 쏘베트인민 측으로 말하면 정의적 조국전쟁이라고, 전쟁의 특성을 규정하였다. 쓰딸린동무는 쏘베트 조국이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 위험은 쏘베트국가의 생사에 관한 문제이며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모든 전취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었다.

적들이 목적하는 것은 짜리제도, 지주와 자본가의 정권의 복구이며 쏘련 제민족의 민족문화와 민족국가를 파멸시키려는 것이라는 것을 쓰딸린동무는 지적하였다. 쓰딸린동무는 파씨스트 독일과의 전쟁은 비단 두개 군대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독일 파씨스트 군대를 반대하는 전체 쏘베트인민의 위대한 전쟁이라는데 관한 결론을 지었다. 쓰딸린동무는 독일 파씨스트 군대의 무적성에 관한 신화를 폭로하고 히틀러 독일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였다.

쓰딸린적 전쟁 수행계획은 력량의 배치관계의 고려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우선 쏘베트 군대의 기본적 력량을 동원 전개하고 전쟁행정을 쏘베트동맹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인민경제를 군사방면으로 재전하기 위한 시간을 얻을 것을 예견하였다. 독일의 전격전 계획에 대해서 당과 쓰딸린동무는 적극적 방어계획으로 대치하였다.

쓰딸린동무는 쏘베트군대에게 자기들의 도시와 농촌을, 위해서 최후의 피한방울까지 바치어 싸울 것을 호소하였으며, 쏘베트강토의 한치의 땅까지도 완강히 방어하며, 전력을 다해서 적을 쇠약케 하며, 그의 유생(有生) 력량과 기재를 구축할 것을 호소하였다. 쓰딸린동무는 동시에 쏘베트사람들에게 적의 후방에서 유격전을 일으키며 점령자들이 견디어내지 못할 조건을 조성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쏘베트인민 앞에 쏘베트군대에 대한 방조를 백방으로 조직하고 그 대렬에 강력한 보충을 보장하고 모든 필요되는 것의 공급을 보장할 과업을 내세웠다. 당은 광대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쓰딸린동무가 설정한 과업을 더욱 우수하고 더욱 민속하게 실현하는데로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을 궐기시켰다.

전쟁 첫 시기에 쓰딸린동무를 선두로 하는 국방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에 있어서의 모든 권리를 자기 수중에 집중하였으며 후방의 전체 사업과 전선에서의 전투활동을 병행시키며 지도하였다. 쏘베트 군대 무장의 중요 기재 생산의 직접지도와 또한 철도운수 지도는 쓰딸린동무의 가장 친근한 전우이며, 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의 저명한 활동가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인 몰로또브, 베리, 말렌꼬브, 미꼬얀, 까가노위츠 및 기타 동무들에게 부과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독일 파씨스트 강점자들의 침공은 파씨스트 독일이, 제二차 세계대전을 도발했던 그 당시에 전세계 자유애호 제민족에게 닥쳐왔던 위협성을 일층 심하게 하였다. 이 민족들은 쏘베트동맹에게 백방으로 방조를 강화할 것과 파씨즘과의 결정적 투쟁을 강화할 것을 자기들의 정부에 요구하였다.

一九四一년 七월 十二일에 쏘련과 영국정부 사이에 독일을 반대하는 전쟁에서의 공동적 활동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년 七월 十八일 쏘련은 체코슬로바끼야공화국과 히틀러 독일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상호방조와 지원에 관한 및 쏘련령토에서 체코슬로바끼야의 민족군대를 건설할데 관한 협정에 비준하였다. 七월 三十일에는 그와 같은 협정이 파란과 체결되었다. 八월 二일 쏘베트동맹과 미국 간의 통상협정 연기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당시 미국정부는 특별 각서로써 미국 측으로부터 쏘베트동맹에 대한 경제적 협조에 관한 성명을 하였다. 그러나 그 협조는 영 미 지배층의 반동적 활동가들이 중지시키고 말았다. 그들은 쏘련과 독일이 서로서로 전쟁에서 력량을 소모해버림으로써 영국과 미국이 세계제패를 달성하기 용이하도록 되기에 힘썼다. 영국대신 무르·브라바존과 미국의 현 대통령인 상원의원 트루맨은 그 사상을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그는 一九四一년 六월에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즉 「만일 독일이 승리하는 것같이 보이면 우리는 로씨야를 방조해야 하며, 만일 로씨야가 승리할 것같으면 우리는 독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더욱 많이 살륙하게 할 것이다.

미국, 영국 및 파씨스트의 침공을 당한 국가들

의 반동도배들은 자기들의 협소한 계급적 제국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파씨스트 독일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결정적 투쟁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리익은 현재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선두로 하는 반동적 정부들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의 토대로 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은 파씨즘을 부흥 장성시키며 평화와 민주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억압하는 데로 향해지고 있다.

「쏘베트동맹의 전쟁 참가는 제二차 세계대전의 반파씨스트적 해방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모든 나라의 근로자들은 쏘베트동맹을 평화를 위하며 미증유의 불행으로써 인류를 위협하는 파씨즘을 반대하는 가장 철저하고 가장 견결한 투사로 생각하였다.

× × ×

볼쉐위끼당과 위대한 쓰딸린에 의하여 고무되고 지도되는 쏘베트군대는 북방양으로부터 흑해에 이르는 광대한 전선에서 적을 쇠퇴케 하였다. 독일군은 앞으로 이동할 때마다 반드시 큰 손실을 당하였던 것이다. 一九四一년에 있어서 쏘베트국가의 형편은 더 일층 곤난해졌다. 적은 우크라이나, 백로씨야, 몰다비야, 리트바, 라트비야, 에쓰또니야 및 기타 다수의 주의 대부분을 강점하였다. 레닌그라드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이 닥쳐 왔다. 독일군은 모쓰크바주위 령역 내로 돌입하였으며 쏘베트조국의 수도—모쓰크바에 대한 타격을 노리고 있었다.

포위상태에 있다고 공포된 수도 모쓰크바에서는 가까운 곳에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一九四一년 十一월 六일 모쓰크바 근로자대의원 쏘베트의 전통적인 경축대회가 개최되었다. 그 대회에서 쓰딸린동무는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 二十四주년 기념에 관한 보고를 진술하였다.

「四개월 간의 전쟁을 총결하면서 쓰딸린동무는 독일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군대의 멸망은 피치못할 것이라는데 대한 완전한 자신을 피력하였다.

모쓰크바에 대한 공격에 실패한 후 독일군은 十一월 十六일에 쏘베트수도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쓰딸린동무가 친히 지도하는 모쓰크바의 방위를 독일군의 힘으로써는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기진맥진하였다. 쓰딸린동무는 모쓰크바 부근에서 독일군의 격멸로써 완성된 결정적 순간을 반격의 시기로 택하였다.

모쓰크바 부근에서의 독일 파씨스트 군대의 격멸은 전쟁 제一년의 결정적 군사적 사변이었으며 제二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독일군의 최초의 패배이었다. 이 격멸은 히틀러도배가 만들어 놓은 독일군대의 무적성에 관한 전설을 영원히 일소하여버리었다. 쏘베트군대의 훌륭한 승리는 쏘베트군대가 다만 독일 파씨스트군대를 제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 전투에서 그들을 격파할 능력이 있는 거대한 력량으로 장성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모쓰크바 부근에서의 승리는 쏘베트군대가 一九四一—一九四二년 동기에 전개한 반격의 시초로 되었다. 쏘베트군대의 동기공격은 독일군이 배신적이고 돌연적인 침공의 결과로 소유하였던 그들의 일시적인 군사적 우월성을 완전히 격멸시켜버리었다.

一九四二년 二월 二十三일부 제五十五호 명령에서 쓰딸린동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제 와서는 전쟁의 운명이 돌연성의 인소(因素)와 같은 그러한 우연한 인소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항상 작용하는 동인(動因) 즉 후방의 견고성, 군대의 도덕 상의 기개, 사단의 수효와 그 질(質), 군대의 무장, 군대지휘관 성원의 조직자적 수완으로 결정될 것이다」

쓰딸린동무와 당은 독일 파씨스트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쏘베트인민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자만과 안심을 경고하였다. 一九四二년 五월 一일 자기의 명령에서 쓰딸린동무는 쏘베트군대가 적을 승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다만 한가지 조국이 자기 무력로게 준 가장 훌륭한 기재를 적을 반대하여 리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에 쓰딸린동무는 전체 쏘베트 군인들 앞에 군사학을 공부하고, 자기 무기를 완전히 정통하고, 적에 대하여 정확히 타격을 줄 것을 배워야 한다는 과업을 내세웠다. 쏘베트군대는 쓰딸린동무의 이 요구를 성과있게 완수하였다.

그 후에 발생된 사건들은 당과 수령의 이 지시에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표시하였다.

一九四二년 여름에 독일군과 그들의 동맹자들은 구라파에 제二전선이 없는 것을 리용해서 자기들의 모든 예비대를 집결하여, 쏘 독전선의 서남방면으로 거대한 우세를 조성하였으며 그곳에서 전선을 돌파하고 보로네즈, 쓰딸린그라드, 노보체쓰끄, 빠찌고르쓰끄, 모즈도끄 지역으로 결전하였다. 그것은 쓰딸린그라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쏘베트전선을 파렬시키고 볼가강에 따라서 북으로 이동하면서 모쓰크바를 동으로부터 우회하여 그곳을 점령함으로써 전쟁의 결과를 자기들께 유리하게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전쟁력사에서 가장 거대한 전투가 쓰딸린그라드 부근에서 벌어졌다. 쏘베트조국의 생활에서 가장 엄중한 이 시기에 있어서 쓰딸린동무는 인민들에게 더욱 헌신적으로 일하고 강점자들을 반드시 급진적으로 격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호소하였다. 一九四二년 十一월 六일 모쓰크바 쏘베

트 경축대회에서 진술한 쓰딸린동무의 보고는 쏘베트동맹의 승리에 대한 깊은 자신심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후방에 있어서의 당과 쏘베트정부의 거대한 조직사업에 관해서 쓰딸린동무는 전쟁시기에 공업을 동부지방으로 이전할데 대해서와 기업소의 사업을 전선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재전하고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비상히 곤난하고 복잡한 조직사업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一九四二년 十一월 十九일에 시작된 쓰딸린그라드 부근 지역에서의 쏘베트군대의 공격은 쓰딸린그라드지방에서 三十만의 독일군대를 포위하고 그를 섬멸 또는 포로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것은 전쟁력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승리였으며, 군사기술의 왕관(王冠)이었으며, 선진적 쏘베트군사과학의 완전성의 모범이었다.

쓰딸린동무의 평가에 의하면 「쓰딸린그라드는 독일 파씨스트 군대의 락일이었다. 쓰딸린그라드 대격전 후에는 다 아는 바와 같이 독일군이 다시는 기력을 회복할 수 없었다」

쓰딸린그라드 격전은 위대한 조국전쟁 과정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표시하였다. 그후 전쟁의 주도성은 쏘베트군대의 수중에로 넘어왔다. 공격을 계속하면서 쏘베트군대는 쏘베트국가로부터 적을 대중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쉬위끼당은 자신과 인민을 용이한 승리에 대한 희망으로 유혹하지 않았다. 독일 파씨스트 강점자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쏘베트군대의 성과와 쏘베트사람들의 영웅적 행위를 강조하면서 쓰딸린동무는 一九四三년 二월 二十三일부 명령에서 위대한 레닌의 유훈을 확고히 기억할 것을 호소하였다.

「첫째로는 승리에 유혹되지 말고 또 자만하지 말 것이며, 둘째로는 승리를 자체에 고착시킬 것이며, 셋째로는 적을 끝까지 박멸할 것이다」

쏘베트군대의 새로운 위력한 공격은 一九四三년 여름에 꾸르쓰끄 부근 전투로써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독일군은 오룔과 뻴고로드 지방으로부터 쏘베트군대를 꾸르쓰끄에서 포위 섬멸하고 그 후에 모쓰크바로 공격하려고 시도하였다.

쏘베트군대의 영웅적 저항으로써 이 공격을 격파하였으며 그 다음에 파씨스트 정예사단을 기진맥질케 한 후 적의 전선을 돌파하여 공격으로 넘어갔다. 一九四三년 八월 五일 쏘베트군대는 오룔과 뻴고로드를 해방시켰다.

그 후 전개된 쏘베트군대의 위력한 공격은 一九四三년 十一월까지 사이에 일시적으로 적에게 강점되었던 쏘베트강토의 三분지二를 해방하는 데로 이르게 하였다.

모쓰크바 쏘베트경축대회에서 진술한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 二十六주년 기념 보고에서 쓰딸린동무는 一九四三년을 조국전쟁에 있어서의 전환의 해이라고 불렀다.

그는 말하기를 이 해는 세계전쟁 전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전환의 해이라고 하였다. 「붉은군대 승리의 결과와 영향은 쏘독전선의 범위를 멀리 벗어나서 세계전쟁의 앞으로의 모든 동향을 변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막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一九四四년은 쏘베트군대가 독일 파씨스트 군대에 많은 대타격을 준 해이었다. 그 해는 쏘베트군대의 결정적 승리의 해이었다. 모쓰크바 쏘베트경축대회에서 진술한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 二十七주년에 관한 보고에서 쓰딸린동무는 이렇게 특징지었다. 쓰딸린동무의 천재적 전략계획에 따라 적에게 十대타격을 주면서 불쉬위크들로써 공고화된 쏘베트무력은 일시적으로 점령당했던 지역을 독일 파씨스트 강점자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으며, 적을 쏘베트강토로부터 추방하였으며, 군사행동을 독일과 그의 공모자들의 령토로 옮기어갔다.

독일 파씨스트 군대에 대한 쏘베트군대의 위력한 타격은 이전의 히틀러 독일의 동맹자이었던 루마니야, 휜란지야, 불가리야 등이 무기를 거두고 독일을 반대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데로 이르게 하였다.

웬그리야는 항복의 전야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히틀러 독일 고립화의 완성을 의미하였다. 쏘베트군대는 독일군을 구축하는 사업에서 동맹자인 유고슬라비야에 방조를 주었으며, 뻴그라드를 해방시켰으며, 파씨스트 예속으로부터 체코슬로바끼야와 파란인민들의 해방을 도와주었으며, 동맹자인 노르웨이의 령역으로 진출하였다. 쏘베트국가와 그의 무력의 위력이 더욱 장성하여가는 그러한 정세 하에서 쏘베트동맹은 동맹자의 원조없이 홀로 자기의 력량으로써 전 독일을 점령하고 불란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그것은 그때까지 구라파에서 제二전선을 열것을 반대하였던 당시 영국의 총리대신인 처칠이 서구라파로 침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히틀러 독일은 두개 전선 사이에서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二전선 개시 이후에도 쏘베트군대는 히틀러 력량과 전투하는 기본적인 곤난성을 계속 감당하였다. 독일군은 쏘베트동맹과 그의 무력을 자기들에 대한 주요한 위험으로 생각했으며 쏘베트군대의 공격을 제지시키려고 시도하면서 그들의 전력량을 동부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쏘베트군대는

적의 이러한 타산을 타파하여 버리었다。어떠한 력사의 위조자도 히틀러 독일과 그의 동맹자들의 기본적 력량이 쏘베트무력에 의하여 섬멸되었으며、이 사업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그 사실을 은폐할 수 없는 것이다。어떠한 력사의 위조자도 독일군이 서부전선 아르젠나호로 공격하였을 때에 쏘베트군대가 영 미군대를 파멸에서 구원하였다는 그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는 것이다。

一九四五년 一월에 시작된 발띡크해로부터 까르빠뜨에 이르는 쏘베트군대의 대공격은 서부에 대한 독일군의 공격을 격파하였으며 동맹자들을 제二의 단께르끄로부터 구원하였다。

一九四五년에 쏘베트군대는 더한층 장성된 력량으로써 적군을 격파하였다。

적에 대한 쏘베트군대의 위력한 타격은 파란과 체코슬로바끼야령토의 대부분을 완전 해방하였다。독일의 최후 동맹자이던 웬그리야도 전쟁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동시에 쏘베트군대는 동부 쁘로시야와 뽀메라니야에 있어서 독일군의 방어를 분쇄하였으며 그곳을 점령하였다。철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쏘베트군대는 백림 린접지까지 나왔으며、적군의 백림집단을 포위하였으며、가렬한 돌격전 후에 독일의 수도를 점령하였다。一九四五년 五월 八일 독일 무혜지도자들은 무조건 항복에 서명하였다。구라파에서의 전쟁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제二차 세계대전은 아직 계속되었으며 전쟁의 제二의 근원지인 제국주의 일본은 아직 존속하였다。일본은 무조건 항복에 관한 미국 영국 및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자기의 동맹자적 의무에 충실한 쏘베트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였다。두주일 동안에 쏘베트군대는 일본의 정예군대인 관동군을 격파하고 만주、북조선、남화태 및 꾸릴쓰끼렬도를 해방하고 제국주의 일본이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一九四一—一九四五년의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쏘베트인민과 그의 무력의 승리가 전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비단 진보적 인류의 선봉대인 쏘베트조국의 명예、자유 및 독립을 고수하였기 때문만이 아닌 것이다。전쟁에 있어서 쏘베트인민과 그의 무력의 승리가 가지는 전세계사적 의의는 또한 히틀러 독일과 그의 종복들의 군대를 가렬한 단독적 결투에서 격멸하고、제국주의 일본을 분쇄하였으며、쏘베트무력이 구라파와 아세아의 다수민족을 파씨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키었으며、전체 인류를 파씨스트적 압제로부터 구원한데 있는 것이다。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국제무대에서의 쏘베트동맹의 역할과 위신은 그 어느때보

다도 장성되었다。쏘베트동맹의 승리의 결과로 중、동남구라파의 여러나라들은 제국주의 체계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력량은 장성되었다。

二、

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쏘베트인민과 그의 무력의 전세계사적 승리의 원인은 무엇인가?

「쏘베트동맹과 그의 무력의 력량과 위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되는 것은 쏘베트 사회주의 제도이다。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모쓰크바시 쓰딸린선거구 선거전 선거자회의에서 진술한 연설에서 쓰딸린동무는 「우리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쏘베트사회제도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쏘베트제도는 쏘베트인민과 그의 군대에게 위대하고 극복할 수 없는 력량을 주었으며 공산당의 정책의 결과로 히틀러 독일이 침공한 때에 적을 승리하는데 필요되는 모든 물질적 가능성、위력한 사회주의공업과 선진적 사회주의농업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경제적 토대를 조성할 가능성을 주었다。다만 쏘베트사회 제도의 조건에서만 국가를 락후한 나라로부터 진보된 나라로 인도하며、농업국으로부터 선진적 공업 강국으로 변하게 하였으며、생산력 발전에 있어서의 말할 수 없으리만한 비약적 발전을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쏘베트동맹이 강유력한 국가로 된 것은 쏘베트국가에 있어서 공산당과 쏘베트정부의 정책의 결과로 사회주의가 승리한 때문인 것이다。

쏘베트동맹의 군사적 위력의 원천으로 된 것은 쏘베트 국가제도이다。「우리의 승리는 둘째로 우리 쏘베트 국가제도가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쓰딸린동무는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에 말하였다。

히틀러도배들은 쏘베트군대의 첫번 실패에 의해서 로동자와 농민 간에 혼란이 시작되며 제민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쏘베트국가는 와해되리라고 타산하였다。전쟁은 적의 이러한 타산을 전복하였으며 쏘베트사회의 확고한 도덕적 정치적 통일성을 표시하였다。그것은 착취계급의 숙청과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쏘베트동맹의 모든 민족들의 친선이 확고치 못하다고 생각한 히틀러 도배들의 타산은 실패되었다。쏘베트동맹은 사회주의의 다민족국가로써 전쟁의 모든 준엄한 시련을 극복하였다。전쟁은 민족문제와 민족협조의 문제가 어떠한 다른 다민족국가에 있어서 보다도 쏘베트동맹에 있어서 더욱 훌륭히 해결된다는 것을 표시하였다。그것은 다민족국가인 쏘베트국가가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인 것이다。진실로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서 레닌—쓰딸

민적 민족정책의 결과로 쏘베트국가에는 제민족의 친근하고 유일한 가족이 이루어졌으며 제민족의 친선은 쏘베트사회의 위력한 추진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조국전쟁은 지도적 민족으로서 로씨야민족을 선두로한 쏘베트국가 제민족의 친선을 일층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서 전쟁은 쏘베트제도가 비단 평화건설 시기와 적극 방어 준비기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적 및 문화적 앙양으로 조직하는 우수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전선에 있어서도 적을 저항하는 인민의 전력량을 동원하는 우수한 형태이라는 것을 표시하였다. 당은 이러한 목적에서 쏘베트제도의 우월성을 가장 성과있게 리용할 수 있었었다.

비상히 곤난한 조건 하에서 당은 쓰딸린동무의 령도 하에 一九四一년 후반년으로부터 一九四二년 상반년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쏘베트국가의 인민경제를 군사방면으로 재전하였다. 이 재전에 있어서 사회주의 생산력 로동자 및 기술간부를 조국전쟁에 동원하는 것, 농촌경제의 물질적 원료와 끌호즈농민의 로동을 쏘베트군대와 또한 군사기재를 전선에 공급하는 도시들의 요구를 보장하는 데로 동원하는 것, 운수를 동원하고 군사적으로 재전하는 것, 전설간부와 기계를 군수공장 및 그와 관련된 기업소 전설에 동원하는 것, 로동력을 동원하고 공업로동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쏘베트군대에 징모된 사람들을 교대할 새로운 간부를 준비하는 것, 국가의 식량예비와 도시에 대한 끊임없는 공급을 위하여 동원하는 것, 인민의 자금과 인민경제의 재원(財源)을 조국전쟁 재정에 동원하는 것, 조국전쟁의 필요에 따라 총력량의 동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재전하는 것 등이 핵심이 되었다. 이 재전은 군사경제 계획을 토대로 실현되었다. 전시의 첫번 계획인 一九四一년 三·四분기에 대한 「인민경제 동원계획」은 조국전쟁 시작 후 일주일 후에 채택되었다. 一九四一년 八월 十六일 쓰딸린동무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된 一九四一년 四·四분기와 一九四二년에 대한 볼가강 연안지방, 우랄, 서부 씨비리야, 까자크 및 중앙아세아 지역에 대한 「군사경제 계획」이 채택되었는바 그것은 쏘련 동부지방으로 공업을 이동시키며 그 지방에 군사생산을 형성할 것이 예견된 것이었다.

당과 정부의 령도 하에서 쏘베트인민의 영웅적 노력에 의한 이 계획의 실현은 생산력을 국가의 동부로 이전시키었다. 一九四一년 三개월 간에 一、三六〇개 이상의 대기업소가 동부지방으로 후송되었다. 그 결과 적은 이 기업소들을 리용할 가능성을 상실하였다. 우랄, 볼가, 씨비리야에는 조국전쟁 수행을 위한 위력한 생산토대가 창설되었다.

우랄에서는 군사생산이 一九四三년에는 一九四〇년에 비해서 六배나 증가하였으며 서부씨비리야지방에서는 三十四배, 볼가연안지방에서는 十一배로 증대되었다.

당과 정부는 이밖에도 공업재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책을 수행하였다. 공업기업소들은 군수산품을 생산하도록 개편되었으며 군수산업기업소는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을 희생하고 강화되었다. 고급압연판(壓延板), 항공용 휘발유, 군대에 대한 피복 및 식량공급의 생산이 제고되었다. 재료, 원료 및 생산에 대해서 필요되는 제반 물자의 분배와 표준화가 엄격히 중앙집권화되었다. 새로운 기업소의 건설이 촉진되었으며 첼랴빈쓰끄, 체바르꿀, 우즈베크공화국에는 금속공장이 건립되고, 마그니뜨고르쓰끄, 따길, 추쏘바에 새로운 용광로가 건립되고, 쓰딸린쓰끄에는 알미늄공장이 설립되어 각각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첼랴빈쓰끄, 끄라쓰노고르쓰끄 및 기타의 새로운 대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생산과정을 완성하는 데 대한 광범한 공작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대책과 로동계급 농민 및 쏘베트인테리의 력사에서 볼 수 없을만한 로동영웅성의 결과로 군수산업의 모든 부문은 급속히 장성하였다. 一九四二년 전반년에 벌써 쏘련의 군수산업은 상실하였던 위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롱가하였다. 군수생산품의 생산은 一九四二년 三월에 국가의 동부지역에서만 하더라도 조국전쟁 개시기에 쏘련 전체 령토가 가지고 있던 수준에 도달하였다.

군수산업의 끊임없이 나날이 증대되어가는 장성의 결과로 후방의 로력자들은 전쟁 초에 당과 쓰딸린동무에 의하여 제기된 과업을 성과있게 완수하였다. 즉 땅크와 비행기의 수효에 있어서 적의 일시적 우월성을 없애버리었다. 一九四四년 말에 비행기, 땅크, 대포, 탄약 및 기타의 군수물자의 산출은 수배나 장성된 결과 쏘베트군대에게, 충분한 수효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예비품을 소유하며 무장에 있어서 적을 롱가하는 가능성을 주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전쟁의 마지막 三년 동안에는 쏘베트군대는 매년 평균 三만대 이상의 땅크, 자행포(自行砲), 장갑차, 四만대까지의 비행기, 十二만문까지의 각종 대포, 四十五만문까지의 경기관총과 중기관총, 三백만자루 이상의 장총, 약 二백만자루의 자동총, 十만문까지의 박격포를 받았다. 조국전쟁 시기에 쏘베트군대의 대포 수효는 五배 이상으로 증대되었으며 현대형 땅크의 수효는 十五배로 증대되었다.

전쟁시기에 당은 전선과 후방에 식량을 보장하고 공업에 원료를 보장하는 문제를 성과있게 해

결하였다。이것은 첫째로 높은 상품화률과 높은 수확고를 보장한 꼴호즈제도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며、둘째로 상품곡물의 기본량이 식량을 분배하고 정당한 계산을 조직하는 국가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이요 (혁명전 로씨야에서는 총상품 곡물의 七二%가 지주와 부농의 수중에 있었다)、셋째로 국가의 곡물생산을 새로이 배치한 결과 쏘련동부 지역의 담당량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전시의 곤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은 농촌경제 방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실현하였다。

一、꼴호즈제도에서 가장 중대한 생산수단은 뜨락또르지정소에 있다。력량과 로동하는 사람의 감소와 아울러 파종면적 확장에 대한 새로운 과업을 고려해서 국가는 계획적 질서에 의하여 뜨락또르지정소를 통해서 국가의 각지역과 꼴호즈에 기계뜨락또르 차고(車庫)를 배치하였다。산업기업소들은 뜨락또르지정소의 기계수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파견하였다。

二、농촌경제에 대한 자격있는 간부를 계획적으로、훈련하고 배치하였다。계절에 따라、농업작업 형태에 따라 로동력을 계획적으로 분배하였다。

三、뜨락또르지정소의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업기계에 관련해서 작업하고 있는 꼴호즈원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농작물 수확을 제고한데 대해서 현물 또는 금전으로 보추적 로동보수가 실시되었으며 지도적인 뜨락또르지정소 공작원의 할당몫을 높이었으며 농업기계 수리에 있어서 계획을 초과완수하는데 대해서 사례금이 제정되었다。

四、꼴호즈에서 로동규률이 강화되었으며 경작 꼴호즈원의 일당 최소 로동량이 증대되었다。농촌경제에 있어서 사회주의경쟁이 광범히 확장되었다。

五、육류와 양모의 납입기준여 제고되었으며 쏘베트군대의 예비물로서 곡물과 육류의 보추적 납부가 실시되었다。

六、공업기업소에 있어서는 부업경제가 조직되었으며 또한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개인적인 야채재배가 조직되었다。

꼴호즈 로동규률 강화에 대한 당과 정부에 의하여 실시된 방책의 결과로 로동 능력있는 한 꼴호즈원의 로동일에 대한 일할적 생산고가 一九四○년도의 一二五四로부터 一九四二년에는 三五二로 제고되었다。한 수의 지방에서는 로동능력있는 꼴호즈원으로서 로동일에 대한 제정된 최소량을 생산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되였다。

전쟁을 당하지 않은 쏘련 각지방에 있어서는 꼴호즈의 총파종면적이 축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二년 동안에 약 四백만 헥따르나 증대되였다。파종면적 확장과 수확고 제고의 결과로 一九四四년에는 一九四三년보다 十一여 푸드의 곡물을 더욱 많이 생산하였다。一九四四년은 축산부문에 있어서도 전환의 해이었다。가축두수의 축소는 이해에 정지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서 다대한 곤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전쟁시기에 사회주의 농촌경제가 자기의 과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꼴호즈농민은 당의 령도 하에서 조국에 대한 자기의 애국적 의무를 완수하였다。

당의 령도 하에서 국가는 군사경제의 가장 곤난한 문제인 로동간부 재생산 문제를 성과있게 수행하였다。로동력의 조직적인 훈련 및 배치제도로 인해서 군사경제는 로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아무러한 중대한 곤난도 당하지 않았다。

쏘베트녀성들과 청년들도 영웅적 로동위훈을 완수하였다。국가 인민경제에 있어서 로동자와 사무원 간에서 녀성의 비중은 一九四○년의 三八%로부터 一九四二년에는 五三%에 까지 증가되었으며 뜨락또르지정소의 뜨락또르운전수 중에서는 四%로부터 四五%로 증가하였다。

쏘베트사람들의 헌신적 로동의 결과로 사업에 있어서 로동생산성은 一九四二년에 一九% 장성되었고 一九四三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七%나 더 증가되었다。

불쉐위끼당의 지도적 역할과 쏘베트제도의 위력은 해방된 점령지방에 있어서 인민경제를 전쟁과정에서 복구하는데 대한 쏘베트동맹 인민들의 영웅적 위훈에서 또한 구현되었다。국가의 인민경제와 주민에게 대해서 독일군에 의하여 야기된 총손실액은 전쟁전 국가가격으로 해서 六천七백九십억 루블이였다。독일파쑈스트 강점자들은 一、七一○개소의 도시와 七만 이상의 촌락과 농촌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소각하였으며、三만一천八백五십개소의 공업가업소를 파괴하였으며、九만八천의 꼴호즈와 一、八七六의 국영농장과 二、八九六개소의 뜨락또르지정소들을 략탈하였다。

독일 파쑈스트 강점자들을 파멸하는 강렬한 격전이 한참 심하던 一九四三년도 쏘베트군대의 하기 공세에 있어서 八월 二十二일에 「독일 점령으로부터 해방된 지역에 있어서 경제복구에 대한 긴급대책에 대하여」라는 쏘련 인민위원쏘베트와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의 역사적인 결정이 공포되었다。

一九四四년 一월 一일에는 벌써 쏘련 인민위원쏘베트와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완전히 완수되었다。전에 후송되였던 꼴호즈의 가축들이 해방된 다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一九四三년에만 하여도 로써야사회

주의 련방쏘베트공화국의 해방된 지역에 있는 끌호즈에는 七十四만四천두의 소, 八十一만 八천두의 양과 산양, 五만五천두의 돼지, 六만五천두의 말이 들어오게 되었다. 一九四四년도에 춘가과종을 하기 위해서 해방된 지방으로 十二만톤 이상의 추기과종 작물 종자가 공급되었다. 一九四四년 초에는 그 시기까지 완전히 해방된 주에서는 뜨락또로지정소망(網)이 전쟁전 수준에 까지 회복되었다. 一九四三년과 一九四四년 동안에 쏘련의 전체 해방지역에서는 八十三만九천의 농촌가옥과 도시에 있어서 一천二백七十七만七천 평방메타의 주택지가 복구되었으며 새로이 건설되었다. 그 주택에서 약 五백四十一만八천명의 사람이 살게 되었다.

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쏘베트인민은 군사적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재원을 리용하여 경제적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동맹자들에 의한 공업상품 산출은 비참한 것이었으며 자국생산에 대해서 단지 四%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레닌—쓰딸린당에 의하여 창건된 쏘베트국가의 경제적 로대가 적국의 경제보다 비할 수 없었으리만큼 더욱 생활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쏘베트경제의 사회주의적 특성과 이로부터 나오는 계획적 로대의 지배는 쏘련 인민경제의 급속한 군사적 재전을 보장하였다」(엔·워즈비쎈쓰끼「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쏘련의 군사경제」四四페지)

볼쉐위끼당은 이 과업의 성과적인 해결에서 쏘베트인민을 고무하였으며 조직하였다. 인민유격 전투는 쏘베트사회주의 제도의 력량과 위력의 표현이였다. 레닌—쓰딸린당은 그 전투의 중심적 조직자였다. 쓰딸린동무의 지시를 완수하면서 볼쉐위크들에게 령도되는 빨찌산들은 적과 그의 종복에게 견딜 수 없는 조건을 지어 주었으며, 독일 파쑈스트 강점자들을 숙청하였으며, 그들의 시책을 좌절시키었다.

그들은 적과 적의 후방에 대해서, 통신로에 대해서, 참모부, 군용렬차, 련락선에 대해서, 유생력량과 기재에 대해서 위력한 타격을 주었다. 그들은 끄로빠끄의 지휘하에 쁘지블리로부터 까르빠뜨 까지의 우크라이나 빨찌산 습격과 비슷한 전설적인 습격을 적의 후방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전쟁의 첫 二개년 동안에 빨찌산들은 三十만 이상의 점령자들을 숙청하였으며 약 三천명의 적군병사와 장교를 포로로 하였다. 一九四二년—一九四三년에 빨찌산들은 적군의 군용렬차를 三천이나 파괴하였으며, 三천 이상의 교량을 폭발시키었으며, 약 一만五천대의 자동차와 천대 이상의 땅크를 박멸하였다. 점령자의 후방에서 빨찌산운동을 전개하여 그들에게 대손실을

가하면서 공산당원들은 일시적으로 적의 발 밑에 유린된 쏘베트사람들의 력량을 궐기시켰으며, 그들의 도덕적 정신을 강화하였으며, 독일 파쑈스트 강점자들을 반대해서 결정적인 투쟁을 하도록 그들을 고무하였다. 쏘베트제도의 조건 하에서만 적에 대한 승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 그와 같은 광범한 빨찌산투쟁이 전개될 수 있었다. 「로동자와 농민의 대부분이 그들이 자기의 쏘베트정권—근로자의 정권을 고수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감각하였으며, 또한 깨달은 그러한 인민은 결코 정복되지 않는다……」라고 한 브·이·레닌의 말이 또다시 빛나는 확인을 얻은 것이다.

「우리의 승리는, 셋째로 쏘베트무력이 승리하였으며 우리의 붉은군대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쓰딸린동무는 말하였다. 전쟁시기에 있어서, 볼쉐위끼당 활동의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쏘베트군대를 정규적 가장 훌륭한 군대로 화하게 한 것이다. 당과 쓰딸린동무의 령도 하에 전쟁시기에 있어서 군대내부에 거대한 개혁사업이 수행되었다. 그 사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군대의 도덕적 정신의 앞으로의 강화에 지향되었다. 쓰딸린동무의 연설과 명령은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었다. 당과 쓰딸린동무는 우리 군대를 애국정신과 대중적인 영웅성과 적에 대한 증오의 정신으로 교양주었으며 그를 볼쉐위끼당의 훌륭한 전통과 풍부한 경험으로, 위대한 레닌의, 위훈으로 교양주었다. 쏘베트전사들을 쏘베트적 군사적 의무와 쏘베트적 군사적 명예로 교양주는 데 많은 주의를 돌렸다. 이 목적으로 군관등급, 칭호가 실시되었으며, 붉은기의 새로운 모형이 설정되었으며, 전장 군무자의 새로운 부장형식 등의 새로운 표지가 실시되었으며, 기타 많은 대책이 실행되었다.

당과 쓰딸린동무는 군대의 전투적 완성과 군대의 질서와 규률을 앞으로 강화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전쟁의 전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쏘베트군인에게 부단히 전투기술을 완성하고 적을 승리하는 지식과 기술을 정통하며 규률과 질서를 제고하라는 요구를 제시하였다.

전쟁은 쏘베트군대에 있어서 유일 책임제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전쟁과정에서 지휘자의 기본성원은 정치지도자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으며 군사위원들은 구분대의 지도를 배웠다. 그러므로 조국전쟁 초기에 실시된 군사위원제도는 一九四二년 十월에 폐지되었다. 이것은 정치 교양사업에 종사하는 정치공작원들에게 더욱 광범한 가능성을 주었다. 군대 내에서 전쟁시기에 당사업을 전사들과 군관들에게 더욱 접근시킬 목적으로 당과 공청조직 기구가 변경되었다.

一九四二년 十一월 九일 쓰딸린동무는 현대전의 경험을 구현시킨 새로운 보병전투규정을 승인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쓰딸린동무의 령도 하에서 포병、철갑땅크력 및 항공대의 실천적 적용의 새로운 원칙을 작성하고 고착시키었다。 이 모든 거대한、사업의 결과로 이미 一九四三년 二월에는 쓰딸린동무가 九十五호 명령에서 쓰베트군대가 전쟁과정에서 간부군대로 되었으며 적을 확실히 타파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후 쓰딸린동무는 一九四五년 五월 一일부 자기의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전취한 빛나는 승리는 붉은군대의 무사적 기개와 그의 고상한 군사상 기술을 보이었다。 쓰베트조국은 전쟁행정에서 쓰베트인민의 위대한 사회주의적 전취를 능히 고수할 수 있으며 쏘련의 국가적 리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一등급의 간부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된 것은 아직 전쟁의 승리적 결과에 관한 문제의、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군사과학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진행함이 필요하다。 위대한 조국전쟁은 쓰딸린적 군사과학이 가장 선진적 군사과학이며 쓰베트동맹의 군사적 위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표시하였다。

쓰베트 군사과학의 력량과 부르죠아 과학에 대한 그의 우월성은 그것이、전술、작전기술 및 전략을 포함한 군사기술에 국한되지 않은、점에 있는 것이다。 쓰딸린동무가 그 창조자로 되어 있는 쓰베트 군사과학은 국가의 경제적 및 도덕적 가능성、전쟁목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다。 원래부터 부르죠아 전략가들인 독일 군사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군사계획을 경제적 및 도덕적 가능성과 분리해서 군사적 계획의 의의만을 특별히 과중히 하여 작성한다。 부르죠아 특히 독일 군사리론의 본질적 결함의 하나는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전 쏘련무력상 쓰베트 동맹원수 엔・아・불가닌은 쏘련무력 三十주년에 관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사과학을 인식한다는 것은 다만 전쟁수행 방법 즉 군사기술만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또한 적국의 경제적 및 도덕적 가능성을 알며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쓰베트 군사과학의 힘은 력량과 가능성을 발전과 호상작용에서 관찰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당하고 전면적인 계산 위에 기초한 점에 있는 것이다。 진실로 이 실제적 계산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항상 작용하는 요인에 관한 쓰딸린적 명제에 포함되어 있다。

쓰베트 군사기술은 군사과학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역시 전쟁과정에서 적의 군사기술에 대한 완전한 우월성을 시위하였다。 방어와 공격의 관계에 관한、전쟁의 진지 및 기동형태에 관한、각 병종 군대 간의 관계에 관한 등의 문제에 있어서 기타 다수의 근본문제에 대해서와 같이 쓰베트적 쓰딸린적 견해는 완전히 실현되었다。 쓰베트 군사기술을 백방으로 완성하면서 당은 일찌기 一九二三년에 쓰딸린동무가 내린 지시로부터 출발한다。 그 지시는 다음과 같다。 「당의 과업은 투쟁의 모든 형태를 정통하며、전투마당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결합하며、그 당시의 정세에 특히 적절한 형태로 투쟁을 능숙하게 집중하는 데 있다」 (「이・쓰딸린 전집」 五권 一六九페지)

쓰베트국가의 력량의 원천이요、위대한 조국전쟁에서의 그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된 것은 레닌—쓰딸린당의 령도적 및 지도적 역할이다。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볼쉐위끼당은 독일 파씨스트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 투쟁의 고무자이며 조직자이었다。 레닌—쓰딸린당의 령도 하에 쓰베트 사회주의국가는 준엄한 시련을 명예롭게 견디어 냈으며 전쟁을 통해서 일층 견고하고 강력하고 확고하여졌다。

당기관과 공산당원들은 전선에서、후방에서、할꺼 산 대열에서 투쟁의 선봉대이었다。 공산당원의 五○% [illegible] 전쟁 [illegible] 군대로 나아갔다。 이것은 공민전쟁 기간에 볼쉐위끼들이 말한바 전통의 계속이었다。 레닌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전쟁에서 곤난한 시기 [illegible] 언제나 당은 공산당원들을 동원하였으며 그들은、첫 대렬에서 제일 선두에서 전사하였다。 그들은 유제니츠와 꼴차크 전선에서 수천명이나 전사하였다。 로동계급의 우수한 인물들이 전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사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대를 구원하며 수천 수만의 로동자와 농민을 구원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였다」 (전집 二十五권 一五四페지)

쓰베트동맹에 대해서 또다시 위험이 닥쳐왔을 때 레닌—쓰딸린당의 수백 수천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전선으로 나아갔다。 레닌그라드시 공산당원의 六○% 이상이 조국방위에 나섰으며 그 중에는 一、一四二명의 초급당 비서가 [illegible]였다。 공청조직은 자기 성원의 九○%를 전선으로 [illegible]냈다。 [illegible]에 있어서도 그러하였으며 쓰베트동맹의 기타의 도시에서도 그러하였다。 [illegible]

공산당원들은 쓰베트군대[illegible]에서、강철같은 규율과 조직성의 [illegible]이었으며 안내자이었다。 그들은 군대를 [illegible] 하였으며 그들을 혹일 파씨스트 강점자들과의 투쟁으로 이끌었다。 당기

관과 공산당원들은 군인들을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의 정신으로, 영웅성과 과감성의 정신으로 교양주었다。

볼쉐위끼당 기관과 공산당원들은 영웅들의 도시 방위에 위대한 역할을 놀았다。레닌그라드에서는 봉쇄시에 공산당원들의 十一차의 동원이 있었다。도시의 볼쉐위끼기관은 위력한 요새를 구축하는 데로 주민들을 조직하였으며 주민들이 봉쇄의 믿을 수 없으리만한 곤난성을 용감하게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군인들의 도덕적 전투정신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쏘베트군대의 전투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중대한 역할이 쏘베트군대의 정치기관에 속한다。정치기관, 당 및 공청기관은 지휘관들과 함께 쓰딸린동무에 의하여 전쟁의 가장 초기에 제기된 과업을 완수하는데 대해서 완강히 사업하였다。즉 그 과업은 十년 동안 당이 자기 대렬을 교양주었던 그 특성 즉 용감성, 과감성, 투쟁에서의 대담성, 최후의 피한방울까지 바치어 쏘베트조국의 적과 싸울 각오 등을 쏘베트인민의 일반적인 소유로 만드는 것이였다。

전쟁시기에 쏘베트인민은 더일층 볼쉐위끼당 주위에 단결되었으며 당은 더일층 인민과 친근해졌다。볼쉐위끼당에 대한 인민의 심오한 신뢰와 헌신성과 사랑, 인민대중과 당과의 련계의 견고성의 표현으로 된 것은 전선과 후방의 우수한 인사들로써 당의 대렬이 장성한 그것이었다。전쟁시기에 三백만 이상의 사람이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대렬에 들어왔다。당에 입당청원이 가장 많은 때는 전쟁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와 일치되었다는 것은 특징적인 것이다。그래서 례를 들면 一九四二년 九월에 쓰딸린그라드로 적이 접근하였을 때 十一만五천명의 쏘베트군인이 입당하였다。전국적으로 말하면 그 시기에 一백三十四만명이 당에 접수되였다。당의 대렬은 일시적으로 독일군대에게 점령당했던 지역에서도 보충되었다。

볼쉐위끼당이 전쟁시기에 인민 속에서 거대한 선동적 대중정치 공작을 한 것은 그의 가장 위대한 위훈이다。쏘베트국가의, 정책가 어떻게 곤난하든지간에 사회발전법칙의 깊은 지식으로 무장된 당은 쏘베트인민의 정의로운 사업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적은 격파되어 승리는 자기들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승리에 대한 이 신념을 당은 전체 쏘베트사람들의 심장 속에 불질러 놓았던 것이다。레닌주의자들은 후방에서, 전선에서 적을 무한히 증오하며 그를 격파하는 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쏘베트사람들에게 가르쳤었다。

볼쉐위크들에게 고무되고 지도되며 그의 모범을

따라 로동자, 꼴호즈원, 쏘베트 인테리들은 시간을 헤아리지 않고, 전쟁정세의 곤난한 조건도 해아리지 않고 제작소와 공장에서, 꼴호즈와 쏩호즈에서, 연구소와 기관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였다。다만 볼쉐위끼당만이 자기의 현명한 지도와 자기의 열렬하고 열성적인 말로써 쏘베트동맹의 인민들이 전쟁의 곤난한 시련기에 나타낸 것과 같은 인류력사에서 일찌기 보지 못하던 그러한 애국적인 제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또한 사실로 달성한 것이다。다만 볼쉐위끼당만이 쏘베트사람들을 조국의 이름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적에 대한 승리의 이름으로 전선에서와 후방에서 군중적인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양줄 수 있으며 또한 사실로 교양주었던 것이다。

볼쉐위끼당은 쏘베트사람들에게 열렬한 쏘베트적 애국심의 감정과 쏘베트적 민족적 긍지와 조국의 운명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교양주는 데 대해서 거대한 사업을 하였다。쏘베트사람들의 눈 앞에는 항상 쏘베트인민의 위대한 수령인 브·이·레닌과 이·브·쓰딸린이 조국에 복무하는 감격적인 모범이 있었으며 당이 고무하는 모범이 있었었다。그의 전력사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이였다。쏘베트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어떻게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을 방위하며, 조국의 적을 분쇄해야 하는가를 배웠다。근로자들을 쏘베트적 애국정신으로 성과있게 교양주면서 당은 쏘베트조국의 승리를 촉진하는 데로 지향된 구체적인 사업에서 그 애국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치었다。

군사적 시련의 불 속에서 레닌—쓰딸린의 당은 더욱 단련되고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굳게 하고 인민의 더욱 거대한 사랑과 신망을 쟁취하게 되었다。전선에서의 위훈으로, 후방에서의 로동적 용감성으로, 일시적으로 점령된 지역에서의 영웅적 투쟁으로, 거대한 전투적 및 조직자적 사업으로써 볼쉐위크들은 레닌—쓰딸린당의 위대한 영광을 일층 빛내었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의 위대한 력사에는 새로운 영원불멸의 장(章)이 첨가되었다。

전선에서나 후방에서의 볼쉐위끼당의 모든 거대한 지도적 조직적 활동은 당과 쏘베트인민의 수령인 위대한 쓰딸린이 지도하였다。그는 자기 스스로 국가의 운명에 대한 전적 책임을 담당하였다。

쓰딸린동무는 전쟁시기에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 총비서, 인민쏘베트위원장, 국방위원부위원장 및 쏘베트동맹 무력 최고 총사령관이였다。쓰딸린동무는 전체 쏘베트인민의 로력을 적을 격파하기 위해서 결합시키었다。그는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그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로력을 적을 격파하고 승리를 달성하는 데로 향

하게 하는 것을 공산당원들에게 가르치었다. 쓰딸린동무는 가장 선진적인 군사과학을 창조하였으며, 탁월한 쏘베트장군들을 선출하고 교양주고 등용하였으며, 장령 군관 및 전체 군인들에게 적을 승리하는 기술을 가르치었다. 쓰딸린동무의 직접적 령도 하에 쏘베트무력은 히틀러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군대를 격파하였으며 그들이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쓰딸린동무는 독일 파쑈스트 강점자들을 격파하는데서 탁월한 역할을 논 유격전을 적의 후방에서 고무하였으며 조직하였다.

쓰딸린동무는 선진적 쏘베트 군사과학을 더욱 발전시키었다. 그는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항상 작용하는 요인에 관한, 적극방어와 반격 및 공격의 법칙에 관한, 전쟁의 현대적 조건 하에서 각 병종 군대와 전투기재의 협동동작에 관한, 현대전에 있어서 다수의 땅크와 비행기의 역할에 관한, 가장 위력한 병종으로서의 포병에 관한 명제를 연구하였다. 쓰딸린동무가 쏘베트군대를 지도한 전투에서는 군사작전 기술의 탁월한 모범이 구현되었다.

군사행동과 후방에서의 공작을 지도하면서 쓰딸린동무는 전쟁시기에 맑쓰—레닌주의 과학을 계속 연구하고 추진시키었다. 쓰딸린동무는 볼쉐위끼당, 쏘베트제도, 쏘베트국가 제민족의 친선과 쏘베트동맹의 극복할 수 없는 력량의 원천으로서의 쏘베트사람들의 애국정신의 위대한 의의를 표시하였다. 그는 쏘베트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적국의 경제와 비교해서 일층 높은 생활능력이 있게 하는데 관한 새로운 결론을 내리었으며 보편화하였다. 쓰딸린동무는 인류력사에서 쏘베트인민의 위대한 력사적 위훈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이루었다.

현명한 쓰딸린적 외교정책은 전쟁시기에 쏘베트국가를 위해서 필요되는 국제적 조건을 보장하였다. 쓰딸린동무는 국제적 관계와 쏘련의 대외정책의 제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결의 모범을 보이었다.

조국에 대한 그리고 전인류에 대한 쓰딸린동무의 거대한 위훈은 전인민의 인지하는 바가 되었다. 쓰딸린동무는 전쟁시기에 수차나 정부의 고급 보상 특히 이중으로 「승리」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최고의 군인등급 칭호인 쏘베트동맹 대원수의 칭호를 받았다.

쓰딸린동무는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자기의 선거 전 연설에서 전쟁에 있어서 쏘베트인민의 력사적 승리의 위대한 광경과 쏘베트국가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강령을 전개하였다. 그는 볼쉐위끼당이 인민을 인도하여 이룬 그 승리의 의의를 규정하였다. 쓰딸린동무는 쏘베트인민에게 전후 五개년계획을 성과있게 완수할 과업을 내세웠으며 쏘베트국가의 인민경제와 과학

의 장래의 새로운 앙양에 대한 계획을 강조하였다.

× × ×

전후시기에 있어서 쓰딸린동무, 볼쉐위끼당은 무력 앞에 가장 중대한 과업을 설정하였다. 즉 그 과업은 쟁취한 평화와 쏘베트인민의 창조적 로력을 주의깊게 보존하며 쏘베트국가의 국경을 공고히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전체 쏘베트군인들이 일상적으로 자기의 군사기술과 정치지식을 완성하며, 군사경험을 연구하며, 그것을 유능하게 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군관들이 군인을 학습시키고 그들을 애국적 정신에서의 쏘베트적 민족적 및 군사적 긍지의 정신으로 교양주는 사업에서 부단히 자기의 능력을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레닌—쓰딸린당의 령도 하에서 쏘베트인민은 조국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당과 쓰딸린동무의 령도 하에서 쏘베트인민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장악하고 있다. (「쓰딸린쓰끼 보인」 一九四八년도 二一三、二一五、二一六호에서)

당생활경험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준비사업을 위한 평양시당단체의 협조

북조선로동당
평양시당부 부위원장 송 원 석

평양시당단체는 공화국 교육문화 발전을 위한 인민정권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협조 보장하여 공화국 헌법과 정부 정강으로 제시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의 기본조건으로 되는 각급 학교망을 확충 강화하였다.

특히 一九五〇년도부터에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一九四九년도의 준비사업에 관한 내각 결정의 실천을 협조 보장하기 위하여 一월 十二일 시당 상무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상급당의 결정서를 평양시의 실정에 비추어 신중히 접수 토의하고 구체적 과업들을 결정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선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 되는 학령아동 조사 사업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내 열성당원들을 비롯한 각급학교 교원들과 각 대학생 一、五〇〇명을 동원하여 一월중에 기본상 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학구역 결정, 교사 신증축 및 소요자재 비품시설 등에 대한 일체 계획을 정확히 수립케 한 후 그의 실천에 당의 조직적 력량을 총동원하였다.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는 부강조국 창건에 있어서 국가 소요의 민주간부 육성을 위한 절실한 국가적 중요사업의 하나이며 우리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는 동시에 그의 실천은 오로지 우리 당의 조직적 력량과 전체 인민들의 애국적 열성과 훈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평양시당단체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하여 이에 대한 정치적 의의와 중요성을 광범한 당내외 군중 속에 널리 해석 선전하여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왔다.

시당 및 구역당들에서는 인민정권기관을 협조하여 리론적으로 준비된 당강사 연 三二九명을 동원하여 가두, 농촌, 직장 및 학교들에서 광범한 군중강연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당열성자들과 사회단체 열성멤버들을 선전원으로 연 四、七二八회에 걸쳐 조직 동원하여 군중들 속에서 해설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 왔다.

특히 一九四八년도 입학년도 준비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살리어 농촌, 가두, 직장들에 학생연예대들을 파견하여 선전사업을 방조하는 동시에 벽보 표어 등 직관선전물,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애국적 미거들을 제때에 소개 선전함으로써 군중들의 애국적 교육열성과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였다.

이와 같이 광범한 선전사업에 따라 점차로 앙양되는 인민들의 끓어넘치는 애국열의는 우선 의무교육제 실시의

물질적 보장을 위한 기금 및 출자헌납운동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서평양철도공장 로동자들이 공장당부의 지도 밑에 폐차수리를 위한 애국로동의 대가를 의무교육 준비기금으로 헌납한 사실을 위시하여, 평양기구제작소, 평양견직공장, 농민신문사 기타 시내 대다수 직장 로동자 사무원들이 의무교육 준비기금을 보장하기 위한 애국로동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농촌에서는 농촌당단체와 당원들의 핵심적 역할로써 농민들의 애국미 헌납은 실로 九九二、六〇五원에 달하였다. 이에 시민, 상인, 기업주들도 애국적 열성으로 호응하였다.

다음으로 시당단체는 의무교육 준비와 一九四九년도 신학년도 준비사업에 따르는 학교신증축사업에 전적인 협조를 하여 왔다. 특히 八월말까지 七개 교사를 신축하여야 할 긴급한 과업에 대하여 시구역 당부들의 당지도실이 부족하였던 결과 신축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형편이 초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비추어 시당부에서는 七월 중순에 당간부 및 열성당원들을 공사현지에 파견하여 지도검열케 하여 七월 二十八일 시당상무위원회에서 명정한 당적 비판으로써 당원인 책임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이 사업을 기한내에 완수케 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토의 결정하였다.

계속하여 각구역당들에서는 하부당단체들의 각성과 관심을 높이어 적극적인 당적 협조사업을 강화하게 하였다.

이 사업에 있어서 시구역당들에서는 우선 건재확보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현장간부 배치 및 로력동원에 당적 지도와 협조를 주었다. 그리하여 능력있는 열성당원들로 보충하는 동시에 로력조직을 개편하여 유상로력을 축소하였다.

또한 하부 당단체들을 발동하여 사회적 로력동원을 적극 협조 보장하였다. 이 사업에서 나타난 몇가지 실례를 든다면 남구역당부에서는 가장 공사가 락후하였던 제二녀자고급중학교 건설사무소에 열성당원 二四명을 파견하는 한편 기능공과 시민 로력동원에 당적 협조를 강화한 결과 면화리, 류성리 기타 가두당원들이 솔선하여 로력을 제공함으로써 로력동원에 시민들의 자각적 열성을 높이었으며, 서구역당단체들에서는 시당 및 구역당 결정을 실천하기에 노력한 결과 공사완수를 제때에 보장하였다.

로력동원을 당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학교내 당단체들을 추동하여 선전원들과 학생가창대, 음악연예대들을 공사현지에 파견하여 동원된 시민들을 위안 선동함으로써 그들의 자각적 로동능률을 제고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기본건설사업에 당적 협조사업을 강화한 결과, 무상 로력동원이 연 一二三、一〇三명으로써 계획의 二배를 초과하였고 그와 반면에 유상로력은 계획보다 연 二四、七〇〇명을 절약케 하였으며 一三인민학교, 三九인민학교 및 六인민학교를 제외한 신축공사는 九월 一일 전으로 완전히 준공되어 충분한 조건 하에서 신입생 입학과 교수사업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새학년도 준비사업으로 예견하였던 전체 학교들의 신증축공사를 완필하였다.

이렇듯 시당단체는 기본건설 사업에만 협조한 것이 아니라 당원인 교육간부들이 다수 경우에 있어서 학교신증축에만 치중하고 책상, 결상, 교구, 교편물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 내부시설에 대한 준비사업을 등한히 하고 있음을 제[illegible]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기한 내에 기본장 완료케 하였고、난로 연료 등 월동준비도 완전히 보장하게 하였다.

또한 새학년 개학을 앞두고 학령아동을 재조사하는 사업에 당적 각성이 부족하여 제一차 조사 수에 비하여 一、三○○여명의 누락을 보게된 엄중한 사실에 대하여 시당부로부터 엄격히 지적하고 제九인민학교、녀자사범전문 부속인민학교들에서 수행한 학령아동 조사사업의 모범적 실례를 살리어 당열성자들을 다수로 동원하여 八월 二十일부터 다시 조사케 한 결과 一九四九년도 학령아동 一五、九一三명을 一○○%로 취학시켰을 뿐만 아니라 만 九—一一세의 아동 五七三명까지 수용하게 하였고、만十二세 이상의 소년들은 성인학교에 입학시키게 하였다.

시당단체는 이상 학교시설과 학령아동 조사 등 사업에만 당적 협조를 한 것이 아니라、의무교육실시 준비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학교 교원 양성 보충사업과 그들의 교수실력 및 정치사상의식 제고를 위한 당적 협조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지나간 一년 동안에 평양시에서 새로 양성 배치한 교원 수는 一七六여이며 그밖에도 교육간부로서 수다한 당열성자들을 파견 보충함으로써 학교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영향을 급속히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교수실력이 부족한 교원들을 재교양하기 위하여 시인민위원회를 적극 협조하여 三개월 단기훈련을 조직실시한 결과 三五六여의 교원을 재교육하였으며 청년간부들을 용감히 등용배치함으로써 작년도에 비하여 二六七명의 교원이 새로 증가되었다.

특히 시당 및 각구역당들에서는 교원들의 정치교양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매월 三일간 정치강습회를 정기적으로 실시케 하는 동시에 하기휴가를 리용하여 八十시간 단기강습회를 조직실시하여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당사와 세계적지리도、해방후 조선、기타 국내외 정치시사문제들과 교육학들을 강습하였다.

시당단체는 교원교양사업과 아울러 교원들의 이동을 방지하며 그들의 사업열성을 높이기에 당적 방조를 주었다.

그 결과 작년에는 매월 교원 이동률이 평균 七—八%였다면 금년에는 평균 이동률이 ○·二%로 감소되었으며 평양시 학동 교육방법연구회 사업의 향상과 함께 제九인민학교 제二녀자중학교 등 다수학교들에서 교재연구사업이 점차로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며 교수내용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평양시당단체는 이상과 같은 제성과들을 쟁취한 기초 위에서 금번 최고인민회의 제四차 회의에서 채택한 一九五○년도부터의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법령의 실천을 보장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一九五○년도에 해당한 학령아동(一一、一三七명을 예산하고 있음)을 한명도 빠짐없이 수용할 것과 현재 교사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 二부제 실시의 폐단을 급속히 해결하며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일 것 등을 예견한 기초 위에서 새로 소요되는 교실 증축은 평양시 전체로 인민학교 二五교실、초급중학교 一六교실、고급중학교 二五교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교원 학생 기숙사 건설 및 교원보충 등 각부면에 걸쳐 아직도 방대한 사업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망의 량적 확장과 함께 학생들의 민주주의사상 교양을 일층 높이며 교육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사상 정치교양과 그들의 교수실력제고가 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과업들을 앞두고 평양시당단체는 최고인민회의 제四차 회의에서 채택한 一九五○년도부터의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을 군중 속에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애국적열성을 일층 앙양시키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九월 二十四일에 열리었던 평양시 교육관계자회의는 무한한 감격 속에서 그 법령을 환영 지지하며 공화국 정책의 정당성을 일층 높이 찬양하는 동시에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공화국 남반부의 반동교육정책을 여실히 폭로하여 반동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일층 높임으로써 본법령의 완전한 실시를 인민들의 애국적 단결력으로 반드시 보장할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뒤이어 시내 전체 학교들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학부형회의들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또한 각구역당들에서는 당열성자회의들을 소집함으로써 법령이 가지는 정치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체 당원들과 비당원군중들 속에 일층 깊이 침투시킬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완전한 실천을 보장하기 위한 당적 협조사업들을 열렬히 토의하였다.

각 구역당 열성자회의들에서는 지나간 수개월 동안에 있어서의 의무교육 실시 준비사업에서 나타난 결점들과 현재 학교 교육사업에 존재하는 결점들을 강력히 비판하였고 의무교육법령의 완전한 실시는 자연생장적으로 실현될 것이 아니라、앞으로 가일층 높은 투쟁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물질적 혹은 형식면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교육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현하 복잡 첨예화한 정치정세하에서 본법령의 실천은 다만 교육부문의 일군에게만 부과된 과업인 것이 아니라、전 인민적 과업으로 되며 특히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 완수를 위한 투쟁 기타 모든 정치적 투쟁과 긴밀히 련계되어 있으니 앞으로 본법령의 실시는 공화국 전 지역에 걸쳐 반드시 승리적으로 실천하고야 말 것을 결의하고、지금 시내 전체 당단체와 당원들을 이 사업에 총궐기시키고 있다.

국재보도

인테리겐챠들 속에서의 교양사업

두마니야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요시프·끼지네브쓰끼

두마니야가 해방된 후 두마니야 공산당은 낡은 인테리겐챠를 재교육하며, 로동계급과 긴밀하게 련결된 새로운 근로인테리겐챠를 만드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렸었다. 두마니야공산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을 우리들의 문화혁명의 가장 긴요한 부분으로서 간주하였었다.

새로운 형태의 인테리겐챠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들을 도와주었으며 또 도와주고 있는 것은 문화혁명수행에 있어서의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의 거대한 경험이며 파시즘에 대한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군사적 승리이다. 그런데 이 승리는 동시에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체계의 승리이며, 쏘베트 민주주의와 이데올로기의 승리이며, 쏘련의 사회주의 문화의 승리인 것이다. 쏘베트동맹의 승리는 인테리겐챠의 대다수의 눈 속에 있는 부르죠아지의 위신, 그의 문화 및 그의 이데올로기의 위신을 뒤집어 엎었다. 그러므로 자기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두마니야 로동계급은 낡은 인테리겐챠의 대다수의 대표자들을 부르죠아지의 영향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으며 그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넣을 수가 있었다.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이며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인 새로운 문화의 생성(生成)과, 인민과 사회주의 사업에 헌신하는 새로운 인테리겐챠의 형성은 문화 및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첨예화한 계급투쟁의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작년 二월에 있었던 두마니야로동당대회에서 두마니야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그·게오르기—제즈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해한 영향이 이데올로기, 문학, 예술 및 과학의 분야에 은페되어 있기 쉬운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데올로기 전선에 있어서의 제국주의 영향을 반대하는, 자본주의 제국가의 부패한 문화 앞에서의 굴종을 반대하는 적극적 투쟁의 계속은 우리 당의 극히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 인테리겐챠의 약간의 부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하며 적대적인 경향은 민족주의이다. 정권으로부터 쫓겨났으며 자기의 이전 경제적 지반을 상실한 부르죠아지들은 낡은 인테리겐챠 간부들과의 련결을 리용하면서 로동계급의 국제주의적 세계관을 반대하는 추악한·비방의 방법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립장으로의 이 간부들의 이행을 방해하며 하고 있으며 두마니야 인테리겐챠와

기타 민족의 인테리겐챠 간의 협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부르죠아적 및 기타 반동적, 그루빠 및 그룹의 앞잡이들은 추악한 비방적 허구 날조의 기본적 근원이며 배외애국주의(쑈비니즘)적, 반공산주의적 및 반쏘적 기분을 가진 인테리겐챠들의 지지를 받는 영미 선전의 나발통이다. 미제국주의가 민족적 반목을 조장하기 위하여 리용하고 있는 시오니즘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

각종 형태의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우리 당는 동시에 부르죠아—지주제도 하에서 부르죠아적 인테리겐챠를 제국주의의 차륜에 결박시키는 그런 정신적 예속의 위험한 잔재인 꼬스모뽀리티즘에 대하여서도 더욱 더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약간의 『과학적』출판물 지상에서 유해한 사상을 『진보적』이라는 가면 밑에서 보급시키며는 꼬스모뽀리티즘적 인테리겐챠의 약간의 대표자들의 기도는 당으로부터 무자비한 타격을 받았다. 잡지 『언어학회보』에 표현된 언어학에 있어서의 꼬스모뽀리티즘적 경향(부언하여 말한다면 두마니야어의 제문제가 토의되고 있는 이 회보는 불란서어로서만 출판되었다) 두마니야로동당 중앙위원회 리론 및 정치기관지 『루푸다 제 크라사(계급투쟁)』에 의하여 철저하게 폭로되었다. 잡지 『메비쵸타 제 오호타리몰로드제(안과학—眼科學—통보)』에 게재되었던 의학서적에 있어서의 꼬스모뽀리티즘적 경향은 두마니야 인민공화국 과학 아까데미 상임위원회의 특별 결정의 대상이였다. 그런데 이 결정은 과학에 있어서 꼬스모뽀리티즘을 반대하는 투쟁의 전투적 강령으로 되었다. 최근 두마니야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발기에 의하여 문학 평론에 있어서 꼬스모뽀리티즘을 제거하는 더욱 더 결정적인 사업이 전개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테리겐챠들에게 거대한 교양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와 같이 쏘베트동맹에 있어서의 문화건설의 경험을 일상적으로 리용하면서 인민민주주의 제도는 우리 국가의 문화전선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한결음 한결음 쟁취하였다.

× × ×

낡은 인테리겐챠를 사상적으로 재무장시키며 새로운 간부들을 진보적 이데올로기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과업은 우리 인테리겐챠의 계급성분 변경을 매 현히 현하게 하였다. 인테리겐챠의 대렬에는 이 몇년 동안에 당일군, 고급장교, 기업소 지배인, 학교 교장, 국가기관의 책임적 일군 및 기타로 된 당에 의하여 교양되었으며 또 등용된 수천의 로동자들이 들어갔다. 이 새로운 인테리겐챠의 사상수준을 제고함에 있어 당학교들은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一九四九년에 一、二一五명이 당학교와 특별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九三三명이 공부하고 있다. 스제반·게오르기의 명칭을 가진 당대학, 아·아·스다노브의 명칭을 가진 중앙당학교 및 항가리어로 교수하는 중앙당학교에서는 요 열마전까지의 로동자 및 농민들이면 수백명이 배우고 있다.

우리 인테리겐챠의 계급성분 변경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논 것은 당결정에 의하여 금년 가을에 조직된 二년제 특별중학교(로동자 농민을 위한 대학 예비학교)일 것이다. 거기에서는 [illegible] 공부를 계속할 로동자들이 [illegible] 것이다. [illegible]공화국에 있어서의 인민교육 개혁에 관한 법령는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하였다. 인민교육의 새로운 제도

는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자들 앞에 제기되는 요구에 만족을 주는 간부들의 양성은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학교는 사회주의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과 긴밀하게 련결된 새로운 인테리겐차、정치적 및 문화적 시야가 넓은 숙련된 기능자들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새로운 학교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는 프로레타리아트당의 세계관 즉 맑쓰—레닌주의 교의이다。반동적 철학은 그의 구현자들과 함께 대학으로부터 추방되었다。

과학적 기초 위에서의 교수의 재조직과 병행하여 맑쓰—레닌주의기본、정치경제학、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의 강좌가 최고학부들에 설치되었다。一九四八—四九년의 한기년도에 이 강좌들은 약 三만명의 대학생들을 망라하였고 대다수의 학부(學部)들에서 진행되었다。이 강좌의 조직은 미래의 인테리겐차의 광범한 대중들로 하여금 맑쓰—레닌주의 리론에 정통케 하며 그의 도움으로 국제 및 국내정책의 제문제를 옳게 판정할 수 있게 한다。

학습의 성격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계급적 성분도 변경되었다。인민교육개혁은 근로자들의 자제들에게 학교의 문을 광범히 열었다。따라서 우리 인테리겐차의 간부는 더욱더 일신될 것이다。

문화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인민교육성은 우리 당의 호소에 의하여 모든 부분의 선생을 재교육하는 강습소들을 조직하였다。작년에 이 강습소들에서는 三三、一九三명의 중등 및 초등학교의 선생들이 공부하였다。금년 여름에는 약 四五、〇〇〇명이 그곳에서 공부하였다。

一九四八—四九 한년도에 국가출판소는 로동계급의 이데올로기의 기초 위에서 편찬된 새로운 교과서 六三〇만부를 출판하였다。이 교과서들은 학생들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선생들을 위하여서도 옳은 방향을 정하게 하는 중요한 방조로 되었다。

이와 같은 기초 위에 과학기관의 재조직이 진행되었다。쏘련 과학아까데미의 모범을 따라 재조직된 루마니야 인민공화국 과학아까데미는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는 과학활동의 참모본부로 되는 커다란 걸음을 내어디디고 있다。

많은 우리들의 아까데미크와 기타과학활동가들은 당의 지지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그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고 국가의 자연 부원 획득、공업의 가일층의 발전과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재건、국가계획에 의하여 제기되는 과업의 수행 및 기타와 관련되는 제문제들을 강구하면서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에서 성과있는 과학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인테리겐차들의 이데올로기적 및 과학적 수준을 가일층 제고시키기 위한 광범한 전망은 우리 당의 발기에 의하여 국내 각지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과학협회들의 설립과 관련하여 열려지고 있다。그런데 이 과학협회들이란 례를 들면 력사 철학 과학 및 민속(民俗)문학협회 수물학협회、의료과학협회、기술일군들의 과학협회、자연과학 및 지리학협회、법률가협회이다。

우리 국가의 인테리겐차들은 맑쓰—레닌주의로 교양함을 촉진시킴에 있어 거대한 요소로 되는 것은 쏘베트동맹과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사상적 방조이었다。우리 당을 위한、우리 국가의 과학 문학 및 예술의 모든 활동가들을 위한 귀중한 지도는 이데올로기문제들에 대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의 결정、이 문제에 대한 아·아·즈다노브의 연설、우리들에게서 있었던 바와 같은 고도의 사상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과학 및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의 토론이었다。인테리겐차들과 인민대중들 간에서의 상기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 결정의 광범한 보편화、우리 국가의 조건에서의 실천에의 그의 적용、풍부한 교훈들의 섭취는 우리들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었으며 이의 도움을 얻어 우리들은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심대한 변혁을 수행하였다。

우리의 과학일꾼들은 가장 선진적인 쏘베트 과학을 광범히 연구하고 있으며、또 소유하고 있다。루마니야과학아까데미 총재 트라얀·자브레스크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생물학에 있어서의 미츄린 학설은 우리의 생물학자들의 활동에 있어서 지침으로 되고 있다。

쏘베트과학과 문학의 업적 그의 개념 및 방법을 더욱더 광범히 보급하기 위하여 一九四七년에 우리 당의 발기에 의하여 루마니야、쏘베트과학연구소가 설치되었었다。二년 동안에 쏘베트 잡지들 및 과학적 로작들로부터 二、四〇〇편의 론문이 루마니야어로 번역되었으며、각종의 과학적 테마로 되는 三、〇〇〇의 참고자료 및 보고들이 작성되었다。최근에『미츄린학설은 쏘베트 생물학의 승리이다』와『쏘베트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 민주주의의 기초이다』라는 제목을 가진 두개의 과학회의가 연구소 주최로 진행되었다。연구소 회의들에는 금년 五월에만도 인테리겐차들 가운데서 七、〇〇〇명이 참가하였다。

쏘베트과학과 문화의 방조로 우리 인테리겐차들을 교양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노는 것은 알류스(쏘베트동맹과의 친선적 관계 강화의 루마니야협회)이다。알류스는 특히 농촌인테리겐차들 속에서 거대한 문화교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거의 五十六만의 인테리겐차 대표자들이 알류스의 회원이다。알류스의 주간지『비야크 노』는 一〇만부를 발간하고 있다。

『루마니야、쏘베트친선의 집』도 역시 성과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쏘베트문학은 국내에서 더욱더 광범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거기에서 모든 우리들의 인테리겐차들이、모든 독자들이 교양을 받고 있다。우리들의 작가 및 예술가들은 쏘베트문학가와 예술가들에게서、당성과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으로서 침투된 작품의 창작을 배우고 있다。이와 같은 방면에 있어서의 귀중한 공헌은 쏘베트 예술인 대표단 즉 웨릐 무히노이、알렉싼드로브、오이스트라흐、오보린、바르쏘보이、레뻬신쓰끼이 및 기타의 루마니야 방문이었으며 또한 알렉싼드로브、모이세브、두나예브쓰끼의 지휘 하에 있는 유명한 안삼부레와 비야드니츠끼의 명칭을 가진 합창대의 순회공연이었다。

인테리겐차를 교양하는 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맑쓰—레닌주의리론을 보급함에 있어서의 루마니야로동당의 사업이다。루마니야로동당출판사는 총부수 二천만부의 맑쓰—레닌주의서적을 출판하였다。그런데 이 중 四백만부는 맑쓰—레닌주의의 대가들의 로작인 것이다。

자립적으로 혹은 당단체들의 직접적인 감시 밑에서 진행되는 수천의 쿠르쇼크 및 그루빠들에서、가장 광범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은 쓰딸린동지의 천재적 로작인『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독본』이다。이 서적은 루

마니야에 있어서 六二만五천부나 출판되었다. 『간략독본』을 연구하는 꾸르쇼크 및 그루빠들의 대다수는 인떼리겐챠의 대표자들로 되어 있다.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들의 출판물은 인떼리겐챠를 맑쓰—레닌주의적으로 교양함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놀고 있다. 『스크인치이야』(이스크라)—당중앙위원회기관지—는 맑쓰—레닌주의의 제문제에 관한 론문들을 계통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루마니야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리론 및 정치잡지인 『루쁘라제 크라사』는 四만부 발간되고 있다. 잡지는 과학, 문학, 예술 및 인민교육에 많은 주의를 돌리고 있으며, 발표된 작품들에 대한 평론을 게재하고 있다. 인떼리겐챠들 간에 있어서는 주간지 『곤쳄뽀라누르』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예술과 문학으로부터 계급적 원쑤들을 추방하며 박멸하기 위한 투쟁은 극히 가혹한 성격을 띄고 있다. 로동계급의 정치적 및 경제적 립장이 강화됨에 따라 이 방면은 원쑤가 자기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많지 않은 것 중의 하나이였다. 반동분자들은 이곳에서 아주 교묘하며 그리고 폭로하기가 대단히 곤난한 그런 방법들을 리용하였던 것이다.

당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돈주머니』의 후견으로부터, 예술에 의한 장사꾼들의 폐로로부터 벗어나게끔 도와주었으며, 또 그들이 부르죠아적인 퇴폐적 예술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게끔 도와주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알게 하며, 로동계급의 세계관을 해득케 하며, 그리고 그들의 창작을 당성이 침투된 예술의 높은 수준에로 제고케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방면에서 루마니야로동당은 중앙위원회의 직접적 지도 밑에서 견결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에만도 당중앙위원회는 음악창작과 문학평론의 제문제에 관하여 예술 및 문학활동가들과 二차의 회합을 가졌었다.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의 맑쓰주의 이데올로기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의 강력한 무기는 우리들의 당출판물이다. 『스꾼제이야』 신문은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 및 문학의 영향을 반대하여 부르죠아적 꼬스모뽈리티즘을 반대하여 계통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내 이데올로기 전선에 있어서의 계급적 원쑤의 출격(出撃)을 폭로하였으며, 과학, 문학 및 예술의 선진적 활동가들의 론문들을 게재하였으며, 문화전선의 일군들을 우리 민족문화의 과거에 있어서의 진보적 면에 대한 사랑의 정신으로 교양하였으며, 형식주의와 투쟁하였으며, 예술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건설의 리익과 련결된 재로운 과제들을 가르쳤었다. 중앙당보에 게재되었으며 기타 신문들에 의하여 주해된 수다한 론문들은 우리 인떼리겐챠 대렬 속에서 생기있는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업에 있어서의 지도였었다. 출판물에는 최근 二년 동안에 열린 미술전람회들에 대한 비판적인 평이 광범히 전개되었었다.

당의 지도 밑에서 진행된 사업은 자기의 결실을 가져오고 있다. 근로자들의 리익과 우리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하는 문학과 예술을 위한 투쟁에는 많은 시인들, 작가들, 희곡가들, 작곡가들, 예술가들 및 조각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아직도 낡은 이데올로기적 립장에 서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현실에서 창작적 고무의 모든 기대한 풍부성과 기대한 원천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당의 지도 밑에서 진행되는 재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영웅적 투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작가 및 예술가들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작품은 아무 내용도 없는 무실화(無實花)이며 말작난에 지나지 않는다.

당이 수행한 투쟁의 결과로 과거에 있어서는 서방 데까단 주의에 빠지고 있던 우리 극장의 상연은 완전히 변경되었다. 지금 극장들에서는 쏘베트희곡이 상연되고 있다. 로동계급의 생활과 투쟁을 주제로한 희곡도 무대 위에 나타났었다. 즉 『탄광』 및 『선거』는 대성과를 거두었다.

영화—과거에 있어서 꼬스모뽈리티즘의 가장 유독한 무기의 하나—도 역시 사회적 현실을 의곡한 영향으로부터, 주로 미국 영국에 의하여 제작되는 정적 및 범죄적 페마의 영화로부터 해방되었다. 현재 우리의 영화관들에서는 대중교양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쏘베트영화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들의 과학 활동가들과 우리들의 인떼리겐챠들에게 있어 특별한 인상을 주었던 것은 쏘베트영화 『영예의 재판』이였다.

작가들 및 예술가들의 교양을 위한 사업에 있어 아직도 약간의 엄중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당의 지도 밑에서 우리들의 예술과 문학이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의 정신으로 가일층 발전함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가지는 광범한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당성으로 침투된 문학평론가 및 예술제문제에 관한 평론가들의 간부들을 충분한 정도로 아직도 양성하지 못하였다.

× × ×

인떼리겐챠를 교육하며 재교육하는 당의 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업은 민족주의의 모든 흔적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침투이며, 조국에 대한 즉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루마니야인민공화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의 침투이며, 로력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입의 침투이다.

인떼리겐챠들과 과학 및 예술의 록별한 활동가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침투케 하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영웅적 로력을 알게 하며, 고귀한 물질의 생산자들 및 창시자들과 더욱더 가깝게 알게 하며, 부르조아지에게 대하여서는 멸시로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들은 시초에 제작소, 공장, 탄광 및 농촌들의 방문을 조직하였었다. 그 후 과학 및 예술의 활동가들은 로동자들의 중심지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미 유람자들로서가 아니였다. 제작소 및 농촌문화회관들에서는 문학의 밤들이 진행되였으며, 또 진행되고 있으며, 문학꾸르쏘크와 예술적 출현이 조직되고 있다.

당의 호소에 의하여 작가들과 시인들은 공장 탄광 및 인민건설장으로 우리 국가에 있어서의 재로운 생활의 광경을 문학에서 반영하기 위한 재로운 고무의 원천들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 례를 들면 와랴 지우푸이는 탄광부들 속에서의 오랜 생활의 결과로서 『탄광부 다비도르그』라는 희곡을 내게 되였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정신으로 인테리겐챠들 교양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는 과거에 있어서 루마니아 문화가 선진적이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어서 우리들의 로력인민이 전투적이였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 투쟁과 우리 당의 영웅한 투사들의 생활의 에피쏘드에 의하여 고무된 새로운 문학작품 희곡작품 및 시들이 적지 않게 있다。미술부문에 있어서의 무수한 사업은 一八四八년의 혁명、一九〇七년의 농민폭동、一九三三년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투쟁력사에서 취한 테마들에 바쳐지고 있다。루마니아 민속(民俗)문학의 풍부한 보고(寶庫)에 의하여 고무된 새로운 음악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형태의 도움을 받아 우리 당은 인테리겐챠들을 애국주의의 정신으로 교양하고 있으며、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창작에 있어서、또는 일상적인 사업에 있어서、애국주의의 사상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상과 잘 결합시킬 것을 가르치고 있다。애국주의 교양을 국제주의 교양과 련결시키면서 우리 당은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이며 내용에 있어 사회주의적인 문화를 위한 즉 쓰딸린적 원칙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이 위대한 쓰딸린적 원칙을 우리 인테리겐챠들은 성공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 × ×

평화옹호를 위한 문학활동가들의 운동은 루마니야 인테리겐챠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금년 三월에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였던 전국인테리겐챠 대표 八〇〇명 이상이 참가한 평화옹호 문화인대회는 공화국의 문화생활에 있어서의 우수한 사변이며、동시에 위대한 쏘베트동맹에 의하여 지도되는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전선에 루마니야 인테리겐챠들이 참가하였다는 명백한 시위였었다。대회는『과학 및 문화보급협회』설치에 관한 수도 로동자들의 제의에 찬성하였다。이 협회는 최근에 설치되였다。낡은 인테리겐챠를 재교육하며、근로자들로부터 새로운 간부들을 만드는 방면에 있어서 우리 당이 더욱더 많이 일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우리들은 달성된 성과들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며 또 이데올로기전선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어떤 다른 부문보다도 더욱 경각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당의 쏘베트사회주의 문화 건설의 현저한 실례를 따라 또는 풍부한 혁명적인 쏘베트적 경험에 기초하면서 인민과 련결되며、인민에게 복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테리겐챠를 형성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결정적 성과들을 달성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레닌—쓰딸린의 천재적 학설의 광명한 광선 밑에서、루마니야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루마니야로동당의 지도 밑에서 이와 같은 인테리겐챠를 만들고 있다。이 인테리겐챠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들의 로력인민의 투쟁의 더욱더 적극적인 참가자들이며、또한 인민들의 천재적 수령이시며、과학의 위대한 대가이신 요시프・위싸리오노비츠・쓰딸린의 령도 밑에서 위대한 쏘베트동맹이 선두에 서고 있는 평화진영 강화의 적극적 참가자들이다。

(『항구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지 二〇호에서)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산당들

제二차 세계대전 후 인도인민들의 반제국주의 운동은 더욱 맹렬히 전개되였다。이 운동은 전후에 있어서의 식민지 및 예속국 제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일반적 혁명적 앙양의 불가분리한 구성부분이다。이 운동은 인도에서의 혁명투쟁의 일체 선행단계로부터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들에 의하여 성격지어진다。가장 중요한 새 특징은 인도로동계급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인민적 투쟁 즉 국내의 결정적 민주주의적 개혁을 위한 투쟁의 지도적 력량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의 인민해방운동의 지도부가 로동계급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은 인도의 력사적 사회경제적 발전의 전과정에 의하여 예정된 바이다。영국 식민지경영자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지시킬 수는 없었던 인도의 자본주의적 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자기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인도로동대중의 투쟁을 지도하여 이 투쟁을 끝까지 이끌고 갈 사명을 가진 로동계급이 발전 강화되였다。인도로동계급은 인민적 민족해방운동의 선두에 서서 이 운동에서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서 현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이렇게 된 것은 우선 인도에서 량차의 대전 간에 인도인민의 광범한 대중의 기대와 희망의 진정한 표현자가 된 로동계급의 당、공산당이 장성 강화되였기 때문이다。이것은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는 공산당에 의하여서만이 준비되고 실시될 수 있으니만큼 더우기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제二차 세계대전 전에는 인도공산당은 그리 크지 않은 단체였었다。공산당은 그 당원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년간에 걸쳐서 봄베이、갈캇타 및 기타 도시와 같은 대산업중심지의 로동자 간에 상당한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그리하여 공산당원들의 지도 밑에서 대중의 수다한 대파업들과 반제국주의적 출격들이 진행되었던 것이다。이에 관하여서는 인도로동운동사의 빛나는 페지에 들어간 一九二八—一九二九년의 봄베이 방적공들의 영웅적 총파업과 기타 많은 로동자들의 진출을 회상하면 충분할 것이다。

전쟁기간과 전후 시기에 인도공산당은 급격히 장성하여 국내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단체의 하나로 되었다。공산당원들은 로동계급과 농민과 도시 소부르죠아지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을 상당히 강화하였다。이것은 인도동맹에서나 인도 또미니온(자치령)의 공산당

파 형제적 련결을 가지고 있는 자주적 공산당이 一九四八년부터 존재하는 파키스탄에서나 매일반이다.

인도에서는 로동계급의 가장 대중적인 단체인 전인도직맹 평의회가 공산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동평의회는 약 八十만명의 맹원을 망라하고 로동자들의 상당히 광범한 층에 자기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 공산당원들은 가장 큰 단체인 전국농민동맹 련합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몇몇 주, 이를테면 마드라쓰주에서는 공산당원들이 다른 당들과 비교하여 가장 큰 영향을 농민 간에 가지고 있다. 공산당은 인테리계차의 광범한 층을 전취하는 투쟁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즉 진보적 청년학생의 상당한 층을 망라하고 있는 전인도 학생련맹에서와 많은 청년단체 녀성단체에서와 진보적 작가협회에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이다. 공산당은 파키스탄에서도 자기의 세력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파키스탄은 특히 락후한 농업국가,로서 제조소 공장 프로레타리아트의 수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원들은 파키스탄 직업련맹과 농민동맹 련합회에서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물론, 파키스탄에서는 공산당원들이 대중에 의하여 수다한 지방 로동자 농민 학생단체의 지도기관에 피선되었다.

위에 인용한 사실들은 최근 수년 간에 인도공산당은 대중적 단체로 되었다는 것, 국내 근로대중에 대한 그의 영향은 현저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적 억압을 반대하고 근로대중의 생활형편의 개선을 위한 투쟁에 관한 기본적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이 인도인민의 가장 광범한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는 자체의 강령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언제나 자기들의 경제적 요구와 국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서 싸우는 대중의 선두에 서서 나아간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공산당과 다른 민주주의적 단체들은 전쟁 후 로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악화시킨 자본가들의 혹독한 압박 착취를 반대하고 수천만 인도농민대중에 대한 강화된 봉건적 자본주의적 착취를 반대하고 인도부르조아지의 영제국주의자들과의 음모를 반대하여 단호하게 나섰던 것이다. 공산당은 국내의 반동의 음모를 결정적으로 폭로하고 대중에게 호소하여 그들의 경제형편의 개선과 국가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결정적인 투쟁에로 궐기시키고 있다.

전후 인도 로동계급의 파업운동은 미증유의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一九四七년에 인도 도미니온에서만도 경제적 요구를 내세운 파업에 二백二十五만명의 로동자가 참가하였다. 이런 종류의 파업의 결과로 약 一천六백만 로동일을 상실하였다. 공산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로동계급은 그와 동시에 대중의 반제국주의적 진출의 저격병들이였다. 一九四五년 十一월과 一九四六년 二월에 칼캇타에서 대중적 반제국주의적 동맹이 일어났을 때와 一九四六년 一월 二월에 봄베이에서 류혈적 충돌과 바리케트 전투가 있었을 때에와 기타 수많은 도시들에서 대중적 반제국주의적 진출이 있을 때에도 바로 로동계급이 광범한 대중을 지도하였고 바로 로동계급의 열성으로만이 이 진출들은 전투적 혁명적 성격을 띠였던 것이다. 로동계급의 적극적 투쟁의 영향을 받아서 농민운동도 전쟁 후에 날로 광범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민운동은 비록 아직 체형이 잡히지 않은 점이 많았고 전인도적 성격은 띠지 않았다 할지라도 몇몇 지구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하이다라바드 왕국의 텔렝간 지구에서는 전후에 농민운동이 본질적으로 무장폭동 및 농업혁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곳에는 봉건적 착취를 반대하는 농민의 투쟁이 로동계급의 투쟁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전개되었으며 공산당을 선두로 하고 있었다.

인도가 분할되고 인도의 대부르조아지가 반동과 제국주의의 진영으로 최종적으로 넘어간 후에는 인도의 대중운동은 더욱 앙양되고 있다. 로동계급의 적극성은 늘어가고 있다. 두 도미니온 특히 인도에서는 로동자와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통치층과 자본가들의 공세를 반대하는 광범한 파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인도 도미니온에서는 一九四八년 一년간에 경제적 요구를 내세운 파업만도 一, 六三四건이 있었다. 인도의 국민회의파의 정부와 파키스탄의 무슬만교도련맹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정치적 파업과 대중적 진출은 커다란 규모를 띠게 되었다. 七十만 봄베이 로동자들은 一九四七년 十二월에 국민회의파 정부가 물가통제를 폐지한 것을 반대하는 항의의 표식으로써 一일간 총파업을 감행하였다. 十만 칼캇타 로동자들은 一九四八년 一월 주 립법회의가 국민회의파의 벵갈정부에 비상 전권을 허여하는 법률을 채택한 것을 반대하는 항의의 표식으로써 파업을 일으켰다. 각 주의 국민회의파 정부의 반로동 립법을 반대하는 항의의 표식으로써는 一九四八년에 중앙 제주와 베라르주의 二十만 로동자와 칼캇타의 五만의 로동자가 파업을 감행하였다. 인도 프로레타리아트의 늘어가는 정치적 진출은 그들이 비단 자기들의 경제적 리익을 옹호해서 진출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 인도의 대부르조아지와 지주들과의 반동적 뽈럭을 반대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인도 프로레타리아트는 이렇게 함으로써 실지에 있어서 자기를 전민족적 투쟁의 지도자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인도가 분할된 후에 농민운동은 물론, 파키스탄에서도 장성하고 있다. 텔렝간의, 영웅적 농민들은 네루과 정부가 파송한 징벌대들의 야만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텔렝간 농민들의 투쟁은 가단없이 빨찌잔 전쟁으로 변하여 린접 지방 특히 마드라쓰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주의 억압을 반대하는 농민폭동은 국내의 다른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산당에 지도되는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대중은 인도 부르조아지와 영제국주의와의 협정과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자본가 지주의 우심해 가는 공격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산당들은 대중 앞에서 량 도미니온 정부들의 반인민적 대외정책을 폭로하는 데 막대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통치층은 자기네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영 미제국주의 뽈럭의 관리인들의 지령을 추종하고 있다. 그들은 인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두 도미니온을 앞으로도 영제국의 체계 내에 남겨둘 의도가 있다는 것을 파렴치하게 피력하였다. 그들은 동남 아세아 제국의 동맹을 결성하는 데 창의를 발휘하고 현재 태평양조약을 작성하는 데 관한 협상에도 또한 열성적으로 참가하

고 있다.

인도 공산당은 인도를 앞으로도 영제국의 체계 내에 남겨둘데 관한 소위 런던협정을 단호히 반대하여 나섰다. 그리고 이 협정을 인도를 영 미제국주의 뿔럭의 종속국으로 만드는 길로의 일보전진이라고 성격지었다. 즉 공산당은 동남아세아 제국의 동맹이나 태평양조약은 영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의하여 작정된 침략적 북대서양조약의 보충이며, 동남아세아 제국에서의 장성하는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도구이며, 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 동방의 침략 근거지에 틀림없다는 것을 대중속에 해명하였다. 인도공산당은 인도 근로대중이 쏘베트동맹을 세계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지도력량으로 보고 있으며 쏘베트동맹을 선두로 하는 민주진영에 단호하게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강조해야 할 것은 로동계급과 그의 당은 대중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중대한 곤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우선 로동계급 자체 대렬 내에 단결이 없다. 반동적 국민회의과의 지도부와 사회당의 지도부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인도 직맹운동은 분열되였다. 가장 대중적인 직맹중심기관인 전인도직맹평의회 이외에도 인도에는 현재 세개의 직맹중심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내무상 파텔이 조직한 전국직맹 평의회도 있는데 이는 경찰적 파괴적 성격을 띤 단체이다. 그러나 이 개량주의적 지도자들의 파괴적 분렬주의적 활동도 로동계급의 대렬을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이에 대한 뚜렷한 례로서는 사회당 지도부가 八十만 철도종업원의 총파업을 파괴한 사실이 있다. 그때 인도에 존재하는 철도종업원 직맹의 맹원 九五%가 이 파업을 찬성 투표하였고 이 파업은 一九四九년 三월에 개시될 예정이였었다.

인도 로동계급의 통일이 없는 것은 아직 상당한 층에서 어느 정도 민족개량주의적 부르죠아지 사상의 영향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르죠아적 민족개량주의는 인도에서 반동적인 간디주의의 면모와 「좌익적」 가면(사회당 및 기타 「좌익」 정당)을 쓰고 나서고 있다. 현재 로동운동에 있어서의 아주 큰 위협은 「좌익」 민족개량주의이다. 이 주의는 외국과 「민족적」 자본의 리익에 대한 자기의 공손과 그 운동에 대한 아유를 선동적 구호로써 감플라쥐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뚜렷한 실례는 인도사회당의 지도부 정책이다. 민족개량주의는 그의 형태와 구조의 특징에 의하여 아직 상당한 로동자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도로동자의 상당한 층 특히 지방에 있는 층들은 아직 농촌과 긴밀히 련결되어 있지 않는 때가 적지 않다. 얼마 전에 그들 가운데의 많은 로동자들은 해고되였고 상당한 부분의 로동자는 아직 소부르죠아적 심리상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로동계급과 공산당은 농민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중대한 곤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민 사이에는 아직도 반동적 간디주의의 영향이 강하다. 국민회의는 자기 지도부의 변절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농민대중에 영향을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나 주들에서나 국민회의과의 정부들의 반동정책은 대중 사이에 더욱더 많은 불만을 일으키고 국민회의에 대한 환상을 시급히 소멸하는데 이바지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강조할 것은 공산당은 가장 가혹한 탄압 속에서 대중을 위한 투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정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통치층은 민주주의 요소에 대하여 가장 야수적인 제재방법을 쓰고 있다. 그들은 진보적 력량 특히 공산당을 반대하는 자기의 투쟁에 있어서 로골적으로 파시스트적 방법을 쓰고 있다. 인도의 수만명의 민주활동가 특히 공산당원이 루옥되어 있다. 공산당은 사실상 비합법적 형편에 처하여 있다. 공산당 출판물은 정간당하고 있다. 민주주의 요소들에게 지도되는 직맹과 농민단체들은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 파업로동자들, 농민폭동 참가자들, 심지어는 평화적인 시위행진에 대하여 사격을 한다는 소식은 도처에서 돌고 있다. 그러나 탄압도 혁명투쟁의 발전을 정지시키지는 못한다. 공산당에 대한 박해의 대답으로써 많은 농촌지방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광범한 군중대회와 시위행진이 파급되였다. 이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경찰의 탄압을 비난하고 공산당의 정책을 완전히 지지한다는 것을 성명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산당의 세력이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뚜렷한 지표로 되는 것이다.

비단 공산당의 생활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치생활에서의 중대한 단계로 되는 것은 一九四八년 二월말과 三월초에 열렸던 제二차당대회였다. 동대회는 공산당의 사상적 정치적 및 조직적인 대장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던 것이다. 동대회의 구성부터가 특징적이였다.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의 활동가들을 다수로 하는 동대회 대표들의 감옥생활 총연년수는 합계 一、五○○년이였다. 동대회는 제一차 대회 후의 五년 간에 거둔 중요한 업적들과 성과들을 검증(檢證)하였다. 동시에 동대회는 볼쉐위끼적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함으로써 동요와 과오와 개량주의적 편향의 발로로써 공산당의 낡은 지도부의 정책은 근로대중을 자기 쪽으로 보다 많이 전취하기 위한 투쟁을 제동(制動)하였다는 것을 단호하게 폭로하고 론난하였다. 당의 전일의 지도자들은 인도분할에 관한 마운트빳텐계획에 대하여 처음에는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평가를 하였던 것이다. 즉 그들은 그것이 인도인민에 대한 제국주의의 새로운 공격형태가 아니고 『일보전진』이라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개량주의적 편향은 영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인도 부르죠아지의 역할과 가능성을 과대평가한데에도 나타났다. 바로 이런 결함있는 견지는 당의 전일의 지도인물들이 인도 분할 직후 네루 정부 지지와 『간디에서 공산당원에 이르는』 통일전선에 관하여 제기한 그릇된 구호들의 기초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동대회는 걸어온 길의 총화를 지으면서 당의 구 지도부의 과오들을 폭로하고 비판하며 동시에 국내에 조성된 구체적 정세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단계에서의 투쟁강령을 작성하였다.

대회는 우선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무조건적으로 보존하는 로동계급 농민 및 도시 소부르죠아지의 동맹의 구현(具現)이어야 할 인도인민민주주의 전선의 결성을 위한 투쟁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인도공산당 제二차 대회는、 인도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현단계에서의 인민민주주의전선의 중심 구호로서 수다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완전한、 민족적 독립、 영제국과 영 미뿔럭과의 결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제국가 우선 쏘베트동맹과의 긴밀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계의 설정이다.

이런 요구를 제출한 것은 완전히 알

만한 것이다。인도 부르조아지와 지주와 영제국주의와의 협정인 마운트밧텐 계획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자유를 가져오지 않았다。인도반동들은 영제국주의로부터의 그들의 예속을 앞으로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그와 동시에 현재 인도 반동은 미국 식민지 경영자들을 양 도미니온에 불러들이는 데 열중하고 있다。그리하여 미국식민지 경영자들은 이 양 도미니온에서 자기들의 진지를 급속히 확충시키고 있다。때문에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제국주의적 지배의 일체 잔재를 반대하고 진정한 독립을 위한 투쟁은 현단계에 있어서는 인민민주주의 전선의 중요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나아가서 공산당 제二차 대회는 지주의 토지소유를 무상몰수할 것과 땅을 밭갈이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에 관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현단계에서 이 요구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운동의 현단계는 인민대중이 제국주의적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그것 없이는 자유를 꿈도 못 꿀 결정적 민주주의적 국내의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으로써 특징지어진다。

국내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광범한 농민대중은 우선 지주의 토지소유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지주의 토지소유는 현재 인도농촌에서 압도적 압박형태로 되어 있는 봉건적 잔재의 주요한 기초로 되는 것이다。농업혁명에 관한 문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현단계에 있어서의 인민해방투쟁의 축(軸)으로 되고 있다。

지주의 토지소유를 반대하는 농민대중의 투쟁은 물론 제국주의와 공모를 한·인도의 대부르조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왜냐 하면 그런 봉건 잔재를 지지하고 보존하는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함이 없이는 그 봉건잔재를 숙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공산당 제二차 대회는 인민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하는 기지와 현단계에서의 행동강령으로서의 기타 수다한 요구들도 제기하였다。

대회는 인도의 결정적 민주화와 봉건적 왕국의 청산과 민족자결원칙에 의거하여 인도를 민족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동맹으로 만드는 것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대회는 중요 산업부문의 국유화와 외국—첫 차례로 영국 기업소의 몰수와 로동자들의 형편의 결정적 개선에 관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공산당은 인도동맹과 파키스탄에서의 민주운동의 통일의 설정을 중요·과업으로 내세우면서 이 통일이야말로 제국주의적 압박으로부터 양 도미니온을 해방시키는 필요조건으로 되는 것이며 인도의 두부분을 민주화하기 위한 성공적 투쟁의 중요한 전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인민해방투쟁의 현단계에 있어서 공산당에 지도되는 인도 근로자들은 비단 제국주의적 압박을 전복하고 지주의 토지소유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중요 산업부문의 국유화와 국가의 결정적 민주주의적 개혁에 관한 요구를 제출하고 있다。현대의 력사적 제조건과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식민지제도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조건 하에서는 공산당에 지도되는 광범한 로동계급만이 민족해방운동의 명수로서 나설 수 있으며、로동계급의 지도 밑에서만이 식민지들에서의 진정한 혁명의 승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여지기 시작하였다。

최 진 일

애급농민들의 비참한 형편

애급의 농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압박받는 주민의 하나이다。때문에 동부 아라비야에서는 『애급농민과 같은 빈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애급농민들의 빈곤한 원인의 하나는 전농촌 주민의 七〇·七%가 전애급 총경지면적의 겨우 一二·四%밖에 소유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〇·五%밖에 안되는 대토지소유자들은 전경작지의 三七·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례를 들면 왕자 마호멧드·알리는 八三、〇〇〇페단(一페단은 〇·四二헥탈)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 정부로부터 막대한 금전 봉급을 받고 있다。이와 같은 대지주와 애급왕자와 또 토이기로부터의 이주민들은 수다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三一명의 애급의 대지주들은 一五〇만명의 빈농보다 三배나 더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一〇〇만명 이상의 농업로동자들은 대체로 토지와 항구적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그들은 림시적 직업을 얻기 위하여 국내를 방랑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주로 계절적인 농업시기에 애급의 지주들의 대령지(大領地)에서 일을 얻는다。

三〇〇만명 이상의 농민들이 또 자기의 토지를 못가지며 가장 노예적인 조건 하에서 대지주의 토지를 소작한다。그들의 가족과 합하여 애급에 토지없는 농민들은 약 一、三〇〇만명이나 된다。이 수효는 애급의 전주민의 거의 三분지二나 된다。이러한 애급의 조건 하에서는 二—三명의 농업 고용자들이 한페단의 지주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례를 들면 二〇、〇〇〇페단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를 위하여서는 六〇、〇〇〇명의 농민들이 일하고 있다。이 六〇、〇〇〇명의 농민은 완전한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는바 그들의 투표는 정해놓은 것과 같이 그 지주의 찬성투표수를 보장하는 것이다。

애급의 농민들은 그들이 소유산자(小有産者)이든、소소작인(小小作人)이든、또는 고용자이든 불문하고 비인간적 조건 밑에서 생활하고 또 일하고 있다。

그들은 몇푼 안되는 임금을 받고 면화、벼 및·옥수수 경작지에서 온종일 일한다。고용 농사군들의 평균 로동임금은 하루에 三·五피아스들인바 이 금액은 가족들의 의복이나 식량 구매에 관하여서는 말할 여지조차 없고 자신의 호구나 겨우 된다。

례컨대 북부 애급의 제주(諸州)에서는 대지주 또는 중지주들이 고용인들에게 대체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머슴들은 자기들의 로동에 대하여 一년 동안에 이른바、『고루비』라고 하는 기다란 상의(上衣) 한벌과 기아를 면하기 위한 얼마 안되는 식량을 받는다。

애급농민들에게 대한 착취는 가장 비인간적이다。대지주 또는 중류 지주들인 토지소유자들은 소작농에게 자주 토지에 대한 현물지불을 요구한다。이는 수확의 절반 또는 四분의三(토지면적에 의하여)을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농민들은 빈곤으로 말미암아 봄철이면 지주에게서 종자 또는 소(小)농구를 얻어오게 된다。농구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지불이 설정되어 있고 종자부채는 二배내지 三배로 돌려주어야 한다。지주에게 부채를 갚고난 후 소작인 농

가에 무었이 나는가는 상상하기 렵어지않다。뿐만 아니라 인적한 시기에、농민들과 그의 가족들은 주인농가에서 무상으로 일하고 비료를 운반하고 가축을 돌보아주고 길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된다。

농민들은 생활을 위한、장리쌀을 얻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자나 소상인、세금감독관 및 승려들에게 예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개시설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상회에까지 예속되어 있는 로지소유농민의 형편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지주나 또는 지방 토지관리인들에 대한 조그마한 반항행위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농촌에서 추방당하며 영국 군사야영지나 스에즈운하 지대의 곤난한 토공(土工)작업에로 내몰리운다。

농촌은 어떤 주(州)에서나 비참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혹심한 곤궁과 비위생 조건과 보건시설의 절무(絶無)로 애급에서의 사망률(死亡率)은 해마다 증가되며 사망률 높기로 유명한 인도의 상태를 릉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기아와 각종 질병과 전염병은 애급주민 특히 수백만명의 농민들을 상시적으로 엄습한다。

一九四七년도에 코레라 전염병은 애급 농촌에서 수만명의 인명을 빼앗아갔다。주민들은 마라리야、트라호—므 및 기타 질환으로 신음하고 있다。공적、자료에 의하면 八〇%의 애급주민들은 두가지 혹은 세가지의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다。애급사람들의 수명은 몹씨 짧다。남성은 二四년이며 녀성은 二七년이다。최근 수년동안에 소집년령(召集年令)에 있는 청년들의 一一%만이 의료위원회에 의하여 군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고 천명의 산아(産兒)에 대한 아동사망률은 二〇〇명에까지 달하고 있다。

지배계급들은 애급농민들이 문자를 해득하고 그의 아동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일에 대하여 관심두지 않고 있다。

애급에서의 교육은 저명한 고관이나 장군들의 자제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되고 있다。통계자료에 의하면 애급의 二〇%의 남성과 四%의 녀성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그러나 이 숫자도 주로 도시주민들에게 관계되는 것이다。최근에 신문『알·아호람』은 문맹은 현존하는 사회기구와 그의 지주(支柱)의 산물이다』라고 쓰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계급들은 대중들의 문맹(文盲)이 현존하는 제도의 가장 커다란 자산(資産)이라는 것을 대단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모(某) 애급 상원 의원은 자기 나라가 문맹에 있어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렸던 것이다。

애급농민들의 비참한 운명은 애급에서의 영국 식민지 관리자들과 각종의 과거의 외국인 모험자들의 압박으로서 악화되고 있다。一八八二년도에 영국군은 애급해안에 상륙하고 그의 령토를 점령하였던 것이다。애급은 벌써 그때 영국식민지로 전화되었던 것이다。

영국 침략자들은 나이르하(河)의 데르타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이내 탈취하고 이를 자기들의 국민에게 아낌없이 분배하고 개인적 외국회사 및 상회에 분매(分賣)하였다。

一九三六년도에 영국은 민족해방운동의 세력에 못이겨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 동맹에 관한 쌍방적 조약을 애급과 체결함으로써 애급으로 하여금 외국에 대한 예속과 식민지적 압박을 조금도 면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六、〇〇〇명 이상의 영국 불란서 및 이태리 지주들은 五〇만페단 이상의 옥토를 애급 농민들로부터 빼앗았다。따

때한 로지가 관개시설과 재수지들가 적고 있는 여러가지 영국 상회에 속하여 있는 것이다。

그들은 농업의 일면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고 주로 영국 면직공업을 위한 면화원료품을 생산하면서 곡물 및 식물성 작물의 과중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키고 있다。

애급은 오랫동안 전근동아세아에 있어서의 곡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곡물이나 기타 많은 식료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들이는 형편이다。

제二차 세계전쟁 후 애급에서는 미국의 팽창이 강화되었다。미국은 애급의 유전(油田)과 함께 애급의 농업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되었다。미제국주의자들은 애급 농업성에 파(葱)에 관한 문제의 전문가로부터 쥐를 퇴치하는데 관한 지도관에 이르기까지 이미 수많은 자기들의 고문관을 끌어넣을 수 있었다。미국의 독점단체와 상사들은 애급경제의 모든 부문에 침입하고 더욱더 영국 불란서 상품 및 주요한 국산품들을 지방시장으로부터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로착산업 생산을 감축되고 민족기업소는 폐쇄되고 실업과 생활필수품 물가는 계속 등귀하고 있다。외국상품의 수입과 특히 면화의 수출축소는 농업경제에 파멸적 영향을 주고 있다。외국의 압박으로 애급에서의 곡물과 면화의 생산은 축소되고 전전 수준보다 낮다。

미국 식민지 경영자들은 새로운 유전과 우라뉴므광(鑛)의 탐색을 위하여 막대한 로지를 애급 귀족들로부터 구입하고 있다。이 로지로부터 농민들을 추방하고 이들을 불모(不毛)의 공지(空地)에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년 三월에 가이로에서는 미국은 애급에 농업발전을 포함한 경제부흥을 위하여 二억五천만딸라의 차관을 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미국은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서 자기들의 상회를 걸치여 미국 고문관의 감시 밑에서만 그 차관을、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신보적 애급 출판물들이 보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계획되고、있는 지중해조약에 애급이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급인민은 자기들의 수많은 불행과 고난의 원인은 로착 봉건귀족들을 지주로 하는 영 미 식민지 략탈자들 때문이란 것을 더욱더 똑똑히 알고 있다。가혹한 탄압과 비상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폭동은 애급의 도시 및 농촌의 광범한 근로자 계층을 휩쓸고 있다。

애급농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로골적인 불만에 의하여 로착 및 외국인 지주들의 불안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농촌에서는 주민들의 농민폭동이 쉴새없이 일어나고 있다。얼마 전에 북부 애급에서는 수천명의 농민과 고용자들이 애급의 대지주들의 미경작지를 폭력으로써 탈취하려고 시도하였다。

농민폭동은 가장 가혹하게 탄압받고 있다。례컨대 두스 및 쿠르프·알—부르만 지방에서는 농민들을 반대하여 군대와 헌병대가 파견되었다。이들은 총질과 사형을 가리지 않고 단행한다。애급의 대지주 및 중지주들은 호신 경비원으로 四〇〇명 내지 五〇〇명의 선발된 무장 고용인을 가지고 있다。지주들은 현재 이러한 고용자들의 경비하에서만 자기들의 소유지를 순회(巡回)한다。많은 대지주들은 주민들과의 투쟁을 위하여 무기고를 창건하였다。그러나 애급의 광범한 근로대중은 자기들의 제一차적 과업은 식민지 렬강과의

무정이며 완전한 민족적 해방과 외국의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은 쟁취하기 위한 무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一九四八년 말기에 카이로 신문『알·피스티』는 영국군대에 의한 애급점령 六七주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우리들은 그날을 모든 그 후에 계속되는 영국점령의 암흑의 날과 같이 잘 알고 있다. 침략의 날에 모든 애급인들의 심장에 불타기 시작한 불길은 그 어느때도 고치 못하는 것이다. 이 불길은 최후의 영국인 병사들이 애급의 땅을 떠날 때까지 솟아오를 것이다』 인민들 속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는 비단 영국 식민지 경영자들에게만 아니라 태양 저쪽으로부터 오는 다른 나라의 토지의 모든 욕구자(慾求者)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애급의 도시 및 농촌 근로자들은 소극적 대항으로부터 공개적인 진출로 넘어가고 있으며, 외국 압제자들과 그들의 로략·앞잡이들과의 결정적 투쟁을 위하여 재력당을 축적하고 있다.

문 익 수

一九四九년十一월十일 인쇄
一九四九년十一월 十五발 발 행

「근로자」제二十一호
【정가 三十원】

책임주필 기 석 복
인쇄인 오 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동신문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一ー五번

[illegible]—15048